

#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1992. 12.

**全賢俊**(北韓研究室 研究委員)

**安仁海**(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李宇榮**(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 要 約

## 第 I 章 序 論

舊蘇聯과 東歐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하였고 中國도 정치체제는 固守하고 있지만, 經濟體制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연구의 목적은 舊蘇聯 및 東歐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北韓이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는 김일성 唯一體制 및 그 주변 권력엘리트의 특성에 起因한다고 판단하여 북한사회 권력엘리트의 특성을 分析하는 데 있다.

中國과 舊蘇聯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發生要因은 서로 달랐지만 中國과 舊蘇聯에서 공통적으로 派閥主義(factionalism)가 發達했고 그 파벌주의가 대안적 정책노선을 중심으로 葛藤을 일으키는 過程에서 체제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공산주의적 시각으로부터 북한체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파벌주의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따라서 北韓과 같은 엘리트 구조에서 파벌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엘리트 構造의 變化過程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북한사회 권력엘리트의 특성연구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北韓에서 政權樹立 初期에 존재했던 파벌주의가 어떻게 消滅되었고 권력엘리트 통합이 촉진되었는가? 둘째, 북한체제가 권력엘리트 통합에

성공했다면 엘리트 통합구조의 具體的인 內容은 무엇인가? 셋째,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권력엘리트 통합에 變化의 可能性은 없는가, 또한 파벌주의 발생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들은 제Ⅱ장, 제Ⅲ장, 제Ⅳ장에서 각각 대답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인 제Ⅴ장에서는 파벌주의 대두를 촉진하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을 적출함으로써 향후 北韓 권력엘리트 집단내의 갈등표출 가능성과 北韓 권력엘리트의 특성이 북한체제 변화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 第Ⅱ章 北韓의 權力엘리트 統合過程

### 1. 派閥鬪爭의 勝利와 金日成 唯一指導體制 確立

#### 가. 權力創出期(1945~1960)

1945년 8월 해방 직후 북한에는 빨치산파, 연안파, 소련파, 남노당파, 국내파 등 주로 地域的 緣故에 따른 파벌이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하에 테러와 통일전선전술 등 2중정책을 구사, 경쟁자들을 제거해 나갔다. 김일성이 타파벌보다 우위를 점유하기 시작한 계기는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장군 환영 평양시민대회」였다. 이후 그는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被選되어 당권 장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승리를 기초로 1946년 2월에 구성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었고 「토지개혁」 등 일련의 「반제·반봉건적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다. 1949년에는 「조선로동당」위원장이 되어 당내 1인자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1950년 韓國戰爭을 통해 김일성은 政敵들을 自然的 또는 人爲的으로 除去할 수 있었다. 즉 그는 연안파인 무정, 소련파인 허가이, 남노당파인 박헌영 등을 전쟁패배의 책임을 지워 숙청하였다. 1956년 「8월종파사건」을 역이용, 연안파와 소련파를 제거함으로써 김일성은 명실상부한 권력통합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한편 이념적 측면에서 김일성은 1955년 12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발표, ‘주체’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戰後復舊過程에서 표출된 ‘비주체’적인 여타파벌에 대한 숙청의 예고이기도 하였다. 1956년 「8월종파사건」은 ‘비주체적인 사대주의·종파주의자’들이 청산되고 김일성이 정치적 패권을 장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 나. 權力強化期(1961~1972)

1961년 제4차 당대회는 종파주의 청산의 확인과 김일성 및 빨치산파 주도의 사회주의국가건설 발판이 되었다. 즉 김일성 권력강화과정에서 빨치산파들이 세운 공에 대한 보상으로 김일성은 그들을 권력전면에 부상시켰다. 이러한 빨치산출신들의 부상은 1966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特定勢力의 排他的 浮上을 경

계하여 1967년 5월 항일투쟁 전우인 박금철, 이효순 등의 갑산파를 숙청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빨치산 출신이라도 숙청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1969년 對南 強硬派인 허봉학 등이 軍事冒險主義者로 낙인찍혀 숙청되었다.

김일성은 충성과 이외의 빨치산 출신까지 排除하고, 당성을 갖춘 專門技術官僚들과 直系 親·姻戚들을 등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의 지도부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빨치산출신 숙청을 마무리한 후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으로 就任, 黨·政·軍에 걸쳐 전권을 장악함으로써 唯一支配體制를 完成하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이념은 확대·강화되었다.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대두된 소련의 「평화공존론」과 그에 따른 소·중간의 이념분쟁, 1961년 남한내 군사정권 등장,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1962년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책’과 함께 「국방에서의 자위」와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도록 하였고, 1966년 8월에는 「외교에서의 자주」를 선언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주체’가 「주체사상」으로 확대된 것은 1965년 이후였다. 주체사상은 북한내에서 「당의 유일사상」으로 체계화되었고,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에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명시되었다.

## 2. 金正日 承繼體制의 確立

### 가. 金正日 承繼體制 準備期(1973~1980)

김일성은 1971년 6월 革命承繼의 必要性을 역설하고 1972년 12월 당중앙위 제5기 6차 전원회의 後 非公開會議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하였다. 그리고 1973년 9월 비공개로 열린 당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당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비서로 임명되므로써 당내의 公式的 後繼者가 되었다. 이에 대해 1970년대 후반 남일, 지경수, 지병학 등 일부 원로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제거당하였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실제적인 권력장악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운동은 1973년 9월, 김정일이 주도하도록 결정되었다. 이 운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조」가 편성되었는데, 「소조」는 대학졸업반학생을 중심으로 20~5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소조는 김정일의 승계체제를 굳히기 위한 行動隊로서 각 수사기관까지 統制·調整하였으며 監督權까지 행사하였다. 1975년부터는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으로 심화되면서 軍에도 3대혁명소조가 파견되었다. 3대혁명은 항일빨치산투쟁을 경험하지 않은 김정일이 劣惡한 環境의 克服者라는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道具였고 후계자 김정일의 正統性確保 手段이 되었다.

한편 1970년 당규약과 1972년 헌법에서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명문화된 후 김정일은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확



립 10대원칙」을 발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승격시켰고 무조건성을 강조하는 한편 後繼者論을 正當化하였다. 이후 그는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4.4)와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1976.10)를 발표하여 김일성을 神格化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 나. 金正日體制 構築期(1981~현재)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일이 후계자임이 대내·외적으로 공식화 되었다. 사실상 이때부터 김정일은 組織改編權과 黨·政·軍 각부문의 엘리트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김정일 체제구축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조직을 개편하고 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당·정기구에 전문기술엘리트와 新進世代들을 기용하였다. 이후로 정무원 총리·부총리들은 전문기술엘리트들 중에서 당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2중엘리트들이 등용되었고 이들은 당과 국가기구에 重疊的으로 지위를 보유하였다. 특히 김정일이 권력통제를 위해 장악하고 있는 당비서국은 비빨치산출신 엘리트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1982년 3월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는바, 이를 계기로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완성시킨 思想家가 되는 동시에 유일한 주체사상 해석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김정일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를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체계화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였다. 1990년대에도 김정일은 3편의 주체사상 재해석 논문을 발표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 3. 北韓의 權力엘리트 統合過程의 特徵

지금까지 고찰해 본 북한 권력엘리트 통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김일성은 解放後 지지기반이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後援과 위기타개능력을 발휘하여 諸派閥과의 鬪爭을 勝利로 이끌었다. 둘째, 김일성은 政敵을 肅清하는 명분으로서 ‘자주’, ‘주체’ 등의 이념을 내세움으로써 본인의 獨裁體制와 父子承繼體制를 정당화하는 機制로 삼았다. 셋째, 김일성은 소련·중국 등에서 발생한 전임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을 예방하기 위해 親子인 김정일에 대한 早期承繼體制를 構築하였다. 넷째, 김정일은 조직·이념 양면에서 승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다섯째, 김정일은 권력승계의 공고화를 위해 하위엘리트들을 충성과와 당성·전문성을 겸비한 二重官僚로 충원하였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김일성 生存期間에는 기존의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노선갈등이나 권력투쟁같은 不協和音은 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일성 死後에도 김정일의 政治的 基盤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도부의 균열에 기인한 체제동요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 第Ⅲ章 北韓의 權力엘리트 統合構造

#### 1. 權力承繼와 權力엘리트 統合

##### 가. 獨特한 承繼構造를 통한 統合

김일성은 舊蘇聯과 中國의 경험에서 死前·死後의 안전판으로 동료나 후배가 아닌 親子에게 권력을 移讓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일성-김정일 승계체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자들은 事前에 충원에서 排除됨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체제하에서의 권력엘리트들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공고한 全一的 體系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長期的인 承繼準備를 통한 統合

김일성은 승계준비기간이 짧아 효율적인 승계에 실패, 전임자에 대한 비판이 발생할 것을 우려, 1972년부터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20여년 동안 黨·政·軍 제 분야에서 철저한 權力基盤을 다져 주었다. 김정일은 후계자내정 이후 승계구조의 공고화를 위해 舊蘇聯·中國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歸屬主義的 엘리트충원정책을 채택하였다. 결국 承繼準備期間의 長期性으로 인하여 북한 권력엘리트간 凝集力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 2. 權力엘리트 統合의 構造分析

### 가. 親·姻戚 族閥構造

中國이나 舊蘇聯과는 달리 김일성권력의 주요 特徵은 親·姻戚들이 權力核心部署를 장악했다는 점이다. 김정일의 친·인척들은 要職을 장악, 김일성-김정일의 세습체제를 지탱해 주고 있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는 家産制的 傳統이 사회전반에 잔존해 있어서 '육친적' 統治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김정일을 비롯해 박성철, 장성택 등 20여명에 이른다.

### 나. 形式的 老·壯·靑 三合構造

김정일은 연령적 이유에서 야기되는 權力弱화를 우려 元老優待政策을 펴왔다. 한편 중국이나 고르바초프 以前 소련에서도 원로정치가 시행되었으나 원로들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장년이나 청년을 등용하였다는 점에서 형식적 원로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 있고 원로들은 상징적 기능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壯·靑엘리트들은 김일성-김정일 승계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기능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책결정권한은 김일성父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엘리트들은 단순

한 명령전달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다. 黨 中心의 一元的 構造와 重疊構造

舊蘇聯이나 中國의 경우 최고통치권자라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各部門의 元老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당·정·군 集團指導體制 形式으로 통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김정일은 당비서국과 조직지도부를 통해 당권을 철저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정일은 당권장악을 토대로 政·軍까지 장악 一元的 承繼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권력은 40명 내외의 권력엘리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上位序列의 엘리트들은 당·정·의회·군 등의 요직을 중첩적으로 맡고 있어서 당·정·군간의 융합이 잘 되고 정책집행상의 效率性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에서는 舊蘇聯이나 中國 등에서 처럼 집단의 이익이나 노선차이에서 비롯된 집단갈등, 보혁갈등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 權力엘리트의 個人別 分析

#### 가. 黨 엘리트

김정일의 당중시정책으로 인해 김정일지지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기관이 당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전문관료 1세대인 김국태, 김기남, 思想專門家라 할 수 있는 황장엽과 양형섭, 공안분야의 계웅태, 김시학, 외교분야의 김용순, 대남담당 엘리트인 윤기복, 한시해, 권희경, 안병수 등이 있다.

#### 나. 政府 엘리트

북한의 정부엘리트들은 소련이나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保·革으로 나누기가 어렵다. 專門家들이 政府內 主要部署에서 실무를 기획·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黨의 指導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율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전문엘리트들이 포진하고 있는 정무원의 김정일 엘리트로서는 정무원 총리인 강성산, 외교분야의 대표적인 엘리트들인 김영남, 강석주, 부총리겸 금속공업부장 최영립,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 겸 사회안전부장인 백학림, 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장인 김달현, 부총리겸화학공업부장인 김환 등을 들 수 있다.

#### 다. 軍部 엘리트

1970년대에 김정일 후계체계가 준비되면서 군부에 대한 김정일의 指導權 確立問題가 擡頭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1975년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전개하여 軍部內 기층부분과의 결속을 강화해 나갔다. 이후 김정일은 군부원로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 지난 1992년 4월에는 8명의 차수와 664명의 장군을 직접 승진시킴으로써 군권장악의 실례를 보여 주었다.

김정일의 군부엘리트 중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 당노농적위대 부장인 오극렬, 인민군 대장인 김두남, 이봉원,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김봉률, 호위총국장인 이을설, 평양 지역 사령관인 주도일, 중앙군사위원회인 이두익, 당군사부장인 김강환,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인 김광진 등이 대표자이다.

#### 4. 派閥發生의 可能性과 限界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권력엘리트들은 構造的으로 凝集되어 있기 때문에 파벌이 발생할 가능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舊蘇聯·中國과는 달리 북한은 父子承繼를 통해 前任者에 대한 批判의 소지를 事前에 除去하였고 20여년 동안 각 부문에 걸쳐 친·인척을 비롯해 승계체제에 대한 충성주의자들만을 등용하였으며 폭력기구를 통해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일체의 갈등을 배제하는 강압정치를 실시해왔기 때문이다. 김일성 死後 김정

일 지배체제가 되더라도 파벌이 등장되기 위해서는 김정일 집권후 단기적으로는 3년, 중·장기적으로는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일 북한에서 派閥이 生成된다면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의 친·인척집단과 非親·姻戚 전문관료집단간의 갈등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 第Ⅳ章 北韓의 權力엘리트 世代交替와 派閥形成의 潛在性: 計量的 接近

### 1. 黨 中央委 正委員의 社會的 屬性

#### 가. 性比率

당중앙위 정위원의 性比率 분석결과, 1970년대에는 여성이 6.9%, 남성이 93.2%, 1980년대에는 각각 4.8%, 95.2%, 1990년대에는 각각 7.05, 93.0%이었다. 北韓이 여성지위향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엘리트 집단의 경우에는 남녀간의 불평등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 나. 年齡構造

당중앙위 정위원들이 노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970년에는 40대가 44.2%, 1980년대에는 50대가 57.3%, 1990년대에는 60대가 65.3%로 연령이 점점 높아졌다. 이러한 특성은 北韓 최고지도층 내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 다. 地域的 背景

중앙위 정위원의 출신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함경도 및 평안도출신 비율이 높고 만주출신 비율도 적지않음이 발견되었다. 전체 북한인구중 함경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2.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北韓 권력엘리트 집단내에서 지역적 배경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親·姻戚關係

당중앙위 정위원에서 김일성-김정일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 비율이 7%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970년의 경우 친·인척 9명 중 5명, 1980년은 친·인척 9명 중 5명, 1990년은 친·인척 12명 중 5명이 서열 30위내에 포진하였다. 따라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친·인척은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學歷

당중앙위 정위원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다른 변수에 비해 미확인 인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전체 위원에서 확인된 비율이 1970년은 22.4%, 1980년은 31.0%, 1990년은 32.5%). 더욱이 일반적으로 고학력자에 비해 저학력자들의 학력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졸자가 90%를 상회한다는 결과는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기별로 미확인 변수의 속성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에 근소하지만 대졸자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바. 留學地域

중앙위 정위원의 해외유학지를 조사한 결과는 舊蘇聯 유학경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1970년대 79.4%, 1980년대 74.5%, 1990년대 70.2%). 北韓은 국가발전을 위해 기술분야의 엘리트들이 필요하여 사회주의권 선진국인 舊蘇聯 유학을 장려하였기 때문에 舊蘇聯 유학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사. 出身大學

당중앙위 정위원의 출신대학을 조사한 결과 김일성대학과 김책공업대학 출신만이 확인되었는데 미확인 인물의 수가 많아 통계적

신뢰도는 낮다. 그러나 시기별로 김일성대학 출신이 증가하고 있으며(1970년대 5명, 1980년대 18명, 1990년대 27명), 김책공대 출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0명, 2명, 3명).

#### 아. 만경대혁명학원 出身

北韓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인물들 중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비율은 1970년에 3.0%, 1980년에 8.0%, 1990년의 3.1%이었다. 이에 비해 당중앙위 정위원 중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비율은 각각 6.0%, 14.4%, 12.9%로 나타났다. 이는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 상대적으로 당에 많이 진출해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 자. 海外經驗

당중앙위 정위원들의 해외경험 횟수를 조사한 결과, 정위원의 경우는 거의 반이상이 해외경험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별 해외경험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횟수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당에서 중앙위 정위원들에 대해 해외여행 특혜를 부여하고 있든지 아니면 해외경험자와 그 빈도가 많은 자가 당중앙위 정위원에 등용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차. 主要 前職

당중앙위 정위원들의 前職을 조사하여 보면 당료 출신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37.7% → 31.1% → 29.8%), 정권기관 출신비율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34.4% → 46.2% → 41.8%). 이러한 경향은 북한에서도 전문관료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90년에 들어서 군출신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특이하다(21.3% → 18.9% → 22.0%).

## 2. 社會的 屬性的 特徵: 中國 및 舊蘇聯과의 差異點

北韓의 권력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당중앙위 정위원의 사회적 속성의 특징과 변화추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앙위 정위원의 성격변화가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歸屬的 地位(ascribed status)가 중요한 조직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권력엘리트 층원과정에서 北韓이 강조하는 평등주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주요 전직, 해외경험, 유학 등의 변수가 점점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中國과 舊蘇聯의 권력엘리트 집단과 北韓 중앙위 정위원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의 鄧小平, 舊蘇聯의 고르바초프 집권이후와 비교했을 때 북한 당중앙위 정위원의 집단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둘째, 北韓은 中國이나 舊蘇聯에 비해 군부 출신이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혈연관계의 강조, 지역연고

에 의한 등용 등은 北韓과 中國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3. 上昇 權力엘리트의 特性

#### 가. 地域的 背景

北韓 上昇 權力엘리트의 경우, 함경도 출신이라는 지역적 배경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47.8%). 이것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분상승을 한 엘리트나(50.0%) 90년대 새롭게 정위원이 됨으로써 지배집단에 편입된 엘리트(50.0%)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나. 親·姻戚關係

김일성일가와의 친·인척관계는 上昇 權力엘리트집단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70년에서 1990년까지 계속 중앙위정위원으로 있었던 총인원은 48명이었다. 그들 중 지위가 상승한 인물은 27명이었으며 친·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인 8명 중 6명이 지위상승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1990년에 새롭게 당중앙위정위원이 된 총 65명 중에서도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3명이나 되었다.

#### 다. 學歷

1980년 이후 지위상승자와 1990년대에 새로이 등장한 권력엘리트들을 조사한 결과, 향후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권력엘리트로의 부상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 라. 留學地域

舊蘇聯 유학출신자가 지위상승이나 신규등용기회가 높은 것은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지만 신세대 권력엘리트일수록 舊蘇聯 출신비중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마. 만경대혁명학원 出身

上昇 권력엘리트 중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은 대부분 지위상승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바. 海外經驗

해외경험은 권력엘리트들의 신분상승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1970년대 이래 기존 권력엘리트들보다 신세대 권력엘리트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北韓에

서도 해외경험자가 보다 높은 지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사. 主要 前職

1970년대부터 당중앙위 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지위상승을 한 엘리트층 당출신 비율이 여전히 높은 반면, 80년대와 90년대에 등장한 인물들의 경우에는 정부출신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北韓의 權力엘리트 變化 可能性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들의 사회적 속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北韓에서는 性, 地域, 學閥, 親·姻戚關係 등 귀속적 지위가 권력엘리트 집단구성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경험자의 증가와 정권기관 출신의 증가로 인하여 향후 北韓 支配엘리트들이 現實主義的이고 융통성있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셋째, 향후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까지 北韓 권력엘리트 층원이 기존의 歸屬主義的 특성들에 의해 좌우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권력엘리트 집단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넷째, 中國과 舊蘇聯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北韓 권력엘리트 집단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上昇 권력엘리트의 성격분석

에서 나타난대로 권력엘리트 집단의 점진적 성격변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제개혁의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 第 V 章 結 論

### 1. 派閥形成을 抑制하는 要因

첫째, 북한에서는 혁명1세대의 死滅이나 권력교체없이 한 지도자가 長期執權하였다는 사실이 북한 권력엘리트 집단내의 과벌형성을 抑制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에서는 權力承繼가 長子에게, 長期間에 걸쳐 준비되어 오면서 승계체제에 반대할 소지가 있는 자들은 권력엘리트 층원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舊蘇聯에서와 같은 전임자에 대한 격하나 과벌형성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은 舊蘇聯에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格下以後 나타난 多元主義나 中國에서의 대립통일원칙과 같은 競爭的 思想의 출현을 봉쇄함으로써 발전노선 차이에서 발생하는 과벌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다. 넷째, 북한에서도 專門官僚의 수가 漸增하는 등 권력엘리트의 특성에 약간의 變化가 있으나 그들도 「先黨性·後專門性」에 입각해 등용되었기 때문에 中國이나 舊蘇聯에서 처럼 과벌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 派閥形成을 促進하는 要因

첫째, 中國이나 舊蘇聯에서 혁명1세대 최고지도자의 사망이 체제변화의 촉진요인이 되었던 것처럼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의 死亡은 북한체제 변화의 促進要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외유학이나 해외경험을 한 전문관료 숫자의 증가는 경제위기나 대외적 고립 해결을 위한 政策決定過程에서 現實主義的 政策을 채택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 권력엘리트 구성상 김일성-김정일의 핵심측근과 소외집단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엘리트의 잠재적 불만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빨치산파를 중심으로 하는 원로집단, 전문관료집단, 김일성의 친·인척 등 3개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원로집단은 象徵的 存在라고 할 수 있으며, 친·인척 집단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측근으로서 實勢를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며, 전문관료는 技能的 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經濟問題와 外交的 孤立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문관료의 역할이 증대할 경우 親·姻戚集團과 非親·姻戚集團間에 派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3. 北韓의 權力엘리트 特性이 北韓體制 變化에 미치는 影響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북한사회에서도 과벌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미약하나마 마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파벌의 발달을 억제하는 요인이 더 강력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즉 北韓에서는 中國이나 舊蘇聯에서와 같은 競爭的 派閥主義나 代案的 路線의 발달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유일체제 지도부의 매우 신중하고 방어적인 정책에 의해서 점진적인 방식의 변화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 目 次

第 I 章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分析의 틀: 比較共產主義의 視角	2
3. 分析의 焦點	8
第 II 章 北韓의 權力엘리트 統合過程	10
1. 派閥鬪爭의 勝利와 金日成 唯一指導體制 確立	10
가. 權力創出期(1945~1960)	10
나. 權力強化期(1961~1972)	34
2. 金正日 承繼體制의 確立	47
가. 金正日 承繼體制 準備期(1973~1980)	47
나. 金正日體制 構築期(1981~현재)	56
3. 北韓의 權力엘리트 統合過程의 特徵	66
第 III 章 北韓의 權力엘리트 統合構造	68
1. 權力承繼와 權力엘리트 統合	68
가. 獨特한 承繼構造를 통한 統合	68
나. 長期的인 承繼準備를 통한 統合	70
2. 權力엘리트 統合의 構造分析	71
가. 親·姻戚 族閥構造	71
나. 形式的 老·壯·靑 三合構造	75
다. 黨 中心의 一元的 構造와 重疊構造	78

3. 權力엘리트의 個人別 分析	86
가. 黨 엘리트	86
나. 政府 엘리트	97
다. 軍部 엘리트	106
4. 派閥發生의 可能性과 限界	111

#### 第Ⅳ章 北韓의 權力엘리트 世代交替와 派閥形成의

潛在性: 計量的 接近	114
1. 黨中央委 正委員의 社會的 屬性	115
가. 性比率	115
나. 年齡構造	118
다. 地域的 背景	120
라. 親·姻戚關係	123
마. 學歷	124
바. 留學地域	126
사. 出身大學	127
아. 만경대혁명학원 出身	128
자. 海外經驗	129
차. 主要 前職	131
2. 社會的 屬性의 特徵: 中國 및 舊蘇聯과의 差異點	133
3. 上昇 權力엘리트의 特性	138
가. 地域的 背景	139
나. 姻·姻戚關係	140

다. 學歷	141
라. 留學地域	142
마. 만경대혁명학원 出身	143
바. 海外經驗	144
사. 主要 前職	145
4. 北韓의 權力엘리트 變化 可能性	147
第 V 章 結 論	150

# 第 I 章 序 論

## 1. 研究目的

1980년대 後半부터 舊蘇聯 및 東歐 사회주의 국가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中國이 改革·開放政策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固守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舊蘇聯 및 東歐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北韓이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는 김일성 唯一體制 및 그 주변 권력엘리트의 특성에 起因한다고 판단하여 북한사회 권력엘리트의 특성을 分析하는 데 있다.

이미 붕괴된 舊蘇聯과 東歐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권력엘리트간에 路線葛藤이 있었으며 그 노선갈등으로 인하여 지도체제가 통합되지 못하고 紛열이 發生하여 밑으로부터의 체제도전에 脆弱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들 사회에서는 권력승계 이후 전임자에 대한 노선 비판과 格下運動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舊蘇聯과 마찬가지로 中國의 경우도 毛澤東 시대와 鄧小平 시대에 걸쳐 競爭的인 派閥이 존재하고 노선투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후임자는 전임자에 대한 노선비판과 함께 體制改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초기에 노선갈등을 극복하고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으며, 舊蘇聯과 같은 격하운동을 우려하여 世襲에 의해 權力承繼를 鞏固히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北韓이 초기의 노선투쟁을 어떻게 극복하여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였는가, 또한 어떠한 過程을 통해서 세습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권력엘리트 統合의 具體的 內容은 무엇인

가를 분석하고 그 토대위에서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北韓이 東歐 사회주의 국가들 및 舊蘇聯, 中國과는 어떠한 측면에서 相異한 권력엘리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체제의 性格과 變化 可能性을 深層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分析의 틀: 比較共產主義的 視角

北韓 권력엘리트의 특징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中國 및 舊蘇聯의 권력엘리트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概觀함으로써 그들 特有的 권력엘리트 특성을 밝혀내고 그것이 北韓 권력엘리트 특성연구에 示唆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舊蘇聯과 東歐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하였고 中國은 정치체제는 대체로 固守하면서도 經濟體制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아직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舊蘇聯, 中國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권력엘리트 집단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派閥主義(factionalism)인데 그것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달된 複數政黨制度만큼이나 日常的이며 普遍的이라는 점이다.” 그에 반해서 北韓에는 파벌주의가 없이 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北韓과는 달리 여타 사회주의 사회에서 파벌주의

---

1) Raymond Taras, "Political Competition and Communist Leadership: A Historiographical Introduction," in Raymond Taras, ed., *Leadership Change in Communist States* (Boston: Unwin Hyman, 1989), p. 4.

가 발달한 배경은 무엇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사회에 파벌주의와 경쟁적 노선 발달을 낳은 要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랜 혁명투쟁과정에서 형성된 中國 指導層의 一體感과 동류의식이 정치권력의 공동장악과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 즉 지도층의 대부분이 1920년대에 공산주의 운동에 참가하였고 그후 국민당의 탄압과 학살, 대장정, 본토장악 등 부단한 逆境과 苦難속에서 生死를 함께해 오면서 오랜 혁명투쟁의 경험을 쌓았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일체감과 유대는 本土를 완전히 掌握한 후 정권수립기의 권력기반 확대 과정에서도 동참과 상호협력의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후 이들 지도자간에 파벌이 형성되고 政策上의 功過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격화되어 文化革命이라는 시련기를 거치게 되나 지도층간에 형성되었던 일체감이나 유대는 그런대로 命脈을 維持하면서 과격한 肅清을 하지 않았고 개과천선하면 復權시켜 주는 것이 관례였다.<sup>2)</sup>

둘째, 毛澤東의 矛盾論에 의하면 모든 모순은 敵對的 矛盾과 非敵對的 矛盾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적대적 모순은 적과 우리 사이에 발생하며 그 모순은 敵을 打倒함으로써 해결되나, 비적대적 모순은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서처럼 인민상호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 해결은 '대립통일의 법칙'에 따라 平和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대립통일의 법칙이 조직의 형성과 관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그것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항시 반대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록 少數의 意見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는 입

---

2) 오명호, "중국정치엘리트의 순환과 충원," 「中蘇研究」, 10권 1호 (1986 봄) pp. 112~13.



장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수의 반대의견이 언젠가는 올바른 의견임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다. 따라서 중국정치에 있어서는 집권자들이 反對意見을 개선하는 집단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으며, 이러한 관행은 상호 대립되는 의견이 토의와 다수결에 따라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견이 언젠가는 올바른 의견으로 形勢가 바뀔 수 있는 여지도 남겨 놓았다. 즉 비적대적 모순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나 상극된 주의주장이 共存하는 형태를 취하기 마련이나 그 해결은 일방을 말살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과 상극을 함께 保全해 나감으로써 統一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sup>

이와 같은 비적대적 모순의 해결방식은 반대세력을 숙청하거나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포용하는 정치적 관행으로 나타난다. 병이 있으면 고쳐주어 환자를 살린다는 毛澤東의 敎示的 격언도 이러한 기본입장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sup>4)</sup>

셋째, 中國은 혁명1세대 출신 최고권력자의 權力交替를 경험했다는 점이 北韓과 비교할 때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中國에서 毛澤東으로부터 華國鋒과 鄧小平으로 이어지는 권력교체후 비로소 체제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毛澤東 사후 華國鋒이 등장하면서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 華國鋒은 1977년 5월에 열린 「공업은 大慶에서 배워라」라는 전국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공산주의 계급혁명을 강행하는 방식

---

3) 이 법칙은 문화혁명 등의 대규모 숙청시에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鄧小平 체제에서 개혁파와 보수파가 병존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오명호, “중국정치엘리트의 순환과 충원,” p. 113.

에 의해서 경제건설을 달성하고자 하는 紅 위주의 경제발전전략을 대폭 수정하는 새로운 방향제시를 하였다. 그러나 華國鋒의 제의는 毛澤東 無過誤論者 즉 凡是派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개혁지향적이지 못하였다. “몸은 毛澤東 노선에 두고 겉으로만 실용주의적 4개현대화를 내세운다”는 것이었다. 中國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華國鋒이 권좌에서 밀려나고 鄧小平 體制가 登場하는 過程에서부터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sup>5)</sup> 즉 中國에서는 혁명1세대인 毛澤東 사후 과도기로서 華國鋒 체제를 거쳐 鄧小平 체제로 바뀌는 등 두 번이나 최고권력자가 교체되었다는 사실이 중국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舊蘇聯의 경우도 中國과는 유형이 다르기는 하지만, 파벌주의와 노선 갈등을 경험하였다. 첫째, 스탈린 死後 그의 格下運動이 일어났고 수정주의자들이 등장하여 극단적인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다원주의적 토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스탈린주의로 알려진 전체주의적 독재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6년 후르시초프가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스탈린을 격하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격하운동은 舊蘇聯 指導部內에서도 本格化되었다. 후르시초프의 연설은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cult of personality), 스탈린의 잔인성, 비인간성 그리고 그의 전체정권 등에 대한 공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연설은 비밀연설이었기 때문에 舊蘇聯에서 결코 공식적으로 출판된 일은 없으나, 후일 서방에서 출판되었으며, 舊蘇聯 정

5) 김하룡, “중국개혁정책의 성격과 한계,” 서진영 편, 「社會主義 改革과 北韓」(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92), pp. 80~4.

치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났다.

스탈린을 공격한 후르시초프는 강요된 스탈린 崇拜와 神格化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부합될 수 없으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 지도를 1인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還元하였으며, 국민생활전반에 레닌식의 민주주의가 깃들 수 있도록 혁명적 사회주의의 법률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소련이 결코 전제정치로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 이 연설은 어느 정도의 자유화와 시민생활의 개선 등 內部改革에 대한 約束이었다.<sup>6)</sup>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이 舊蘇聯에서 파벌주의에 미친 영향은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分權化를 촉진함으로써 경쟁적인 정치세력의 형성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다.<sup>7)</sup> 또 후르시초프는 당과 정부의 제 1인자가 되었으나 그의 권력과 권위는 결코 스탈린에 미치는 바가 못되었지만 스탈린이 비밀서기국을 갖고 정상적인 당 및 정부기구들을 無視하며 일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후르시초프는 黨務는 상임위원회와 서기국을 통해, 정부업무는 내각을 통해 각각 수행해 나갔다는 점이다.<sup>8)</sup>

둘째, 舊蘇聯에서 파벌이 존재했던 것은 中國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고 권력자의 교체가 여러 차례 있었고 前任者에 대한 노선비판과 대안적 노선의 선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舊蘇聯의 역대 권력교체 과정에서

---

6)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Its Origins, Growth and Dissolu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451.

7) Ibid., p. 455.

8) 宋澤龜·趙範淳, 「現代 蘇聯政治論」(서울: 螢雪出版社, 1988), pp. 65~72.

전임자가 후계자로 선택한 사람과 실제로 권력을 승계한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承繼者는 後繼者로 선택된 사람과 그 정책노선에 對抗하는 것이 一般的인 현상이었다. 레닌은 스탈린을 경계했으나 스탈린이 집권했고, 스탈린은 말렌코프를 선호하였으나 후르시초프가 집권했다. 후르시초프는 브레즈네프를 선호하기는 했으나 자기를 축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브레즈네프는 체르넨코를 선호하였으나 안드로포프가 집권했다. 안드로포프는 고르바초프를 선호하였으나 체르넨코가 집권하였으며, 체르넨코는 그리신이나 로마노프를 선호하였으나 고르바초프가 집권했다.<sup>9)</sup>

이러한 이유로 舊蘇聯에서 후계자는 모두 전임자의 정책에 대하여 批判인 方向에서 代案的 政策路線을 채택하였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나타낼 수 있다.

스탈린: 보수적

후르시초프: 개혁적

브레즈네프: 보수적

안드로포프: 개혁적

체르넨코: 보수적

고르바초프: 개혁적<sup>10)</sup>

---

9) George W. Breslauer, "From Breznev to Gorbachev: Ends and Means of Soviet Leadership Selection," in Taras, ed., *Leadership Change in Communist States*, p. 49.

10) Ibid., p. 48.

셋째, 舊蘇聯에서 권력엘리트 집단내에 파벌이 형성된 것은 下位權力엘리트의 交替에도 기인한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가장 현저한 특색은 짧은 시간내에 대규모의 권력엘리트 교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권력엘리트의 急速한 交替는 브레즈네프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퇴진과도 관련이 있지만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改革派가 안드로포프의 집권 이후 점차 勢力을 掌握한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권력엘리트의 급격한 교체는 정권안정이나 인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그것은 고르바초프 개인에 의한 조치라기보다는 정치국의 개혁과 다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 3. 分析의 焦點

中國과 舊蘇聯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發生要因은 서로 달랐지만 中國과 舊蘇聯에서 공통적으로 派閥主義가 發達했고 그 파벌주의가 대안적 정책노선을 중심으로 葛藤을 일으키는 過程에서 체제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공산주의적 시각으로부터 북한체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파벌주의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또한 北韓과 같은 엘리트 구조에서 파벌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엘리트 構造의 變化過程을 면밀히 분

11) 안병만, “蘇聯 權力엘리트의 構成 및 內部政治,” 「中蘇研究」, 10권 2호 (1986 여름), p. 90.

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북한사회 권력엘리트의 특성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北韓에서 政權樹立 初期에 존재했던 파벌주의가 어떻게 消滅되었고 권력엘리트 통합이 강화되었는가? 둘째, 북한체제가 권력엘리트 통합에 성공했다면 엘리트 통합구조의 具體的인 內容은 무엇인가? 셋째, 권력 엘리트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권력엘리트 통합에 變化의 可能性은 없는가, 또한 파벌주의 발생 가능성은 없는가?

위의 첫번째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II장에서는 歷史的인 視角에서 북한 권력엘리트의 통합과정을 分析한다. 두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III장에서 1992년 현재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親·姻戚 族閥構造, 老·壯·靑 三合構造를 分析하고 나아가 黨·政·軍의 핵심 권력엘리트들을 개별적으로 살펴 본다. 세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IV장에서는 1970년, 1980년, 1990년 현재의 핵심 권력엘리트들의 社會經濟的 出身背景의 변화를 計量的으로 分析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인 제V장에서는 파벌주의 대두를 촉진하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을 적출함으로써 향후 北韓 권력엘리트 집단내의 갈등표출 가능성과 北韓 권력엘리트의 특성이 북한체제 변화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 第 II 章 北韓의 權力엘리트 統合過程

본 장의 目的은 김일성의 權力掌握과 權力承繼過程을 歷史적으로 考察해 보는데 있다. 김일성은 해방과 함께 북한에 유입된 각종 派閥 및 理念과의 鬭爭에서 勝利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派閥갈등을 終熄시키고 權力장악을 달성한다는 것은 組織과 理念 兩側面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첫째 김일성의 派閥투쟁승리와 權力승계체제 확립과정, 둘째 그의 이념투쟁 승리와 주체사상 확립과정을 糾明해 봄으로써 북한 權力엘리트가 통합되어 온 과정을 설명해 보려 한다.

研究對象의 時期區分은 金日成 權力創出期(1945~1960), 金日成 權力強化期(1961~1972), 金正日 承繼體制準備期(1973~1980), 金正日 體制構築期(1981~현재)의 4단계로 하였다.

### 1. 派閥鬭爭의 勝利와 金日成 唯一指導體制 確立

#### 가. 權力創出期(1945~1960)

##### (1) 派閥葛藤의 終熄과 金日成 獨裁體制 基盤構築

소련에서의 레닌(Lenin)은 직접 짜르정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였고, 중국에서의 毛澤東은 장개석 정권과의 ‘대장정’을 통한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정권초기에 큰 반대없이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은 제2차 세계대전이 聯合國의 勝利로 종결되면서 3·8선 이북이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 의해 점령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리한 입장<sup>12)</sup>에서 정권창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이 정권창출과정에서 국내외의 유수한 共產主義者들로부터 挑戰을 받게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945년 8월 해방 직후 북한에는 주로 地域的 緣故에 따른 파벌이 있었다. 즉 빨치산파, 연안파, 소련파, 남노당파, 국내파 등이 그것들이다.<sup>13)</sup> 이들은 각각 출신지별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빨치산파는 1930년대에 중국공산당원으로서 중국공산당 지도밑에 抗日빨치산鬪爭에 參加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소련으로 피해 들어가 소련군대의 정찰부대 요원들로 활동하다가 解放以後 歸國한 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등교육도 받지 못하여 無知하고 거칠었으나 집단적 凝集力은 他派閥을 능가하였다. 둘째, 연안파는 주로 중국공산당원이었으며 黨 및 軍事活動의 經

12) 김일성이 소련으로부터 정권담당자로 미리 내정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견해는 김일성이 이미 소련의 ‘비밀스런 대안’으로 내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김일성을 스탈린 정권 당시 실력자였던 베리아가 스탈린에게 추천했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pp. 65~71.

13) 파벌분류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林隱이 「金日成正傳」 (서울: 沃村文化社, 1989)에서 분류한 견해를 따른다. 다른 분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성철, 「분단의 정치」 (서울: 한울, 1987), p. 168 참조.



驗이 豊富하고 정치사상적 理論水準이 높았다. 그러나 이들은 中國式 社會主義建設路線을 답습했고 빨치산파와는 달리 응집력은 부족했다. 셋째, 소련파는 실무적 능력이 많은 테크노크라트였다. 그들은 절대다수가 소련공산당 당원이었으며 대부분이 高等教育을 받은 자들이었다. 넷째, 남로당파는 전체적으로 文化教育水準이 높았고 政界의 名士로서 신망이 높았으며 남한에서도 사회적 지위와 신임이 높았다. 다섯째, 국내파는 이론에 밝았고 合理的이었으며 북한지역에 튼튼한 大衆의 基盤을 가지고 있었다.<sup>14)</sup>

이렇게 상호 異質的인 性向의 소유자들이 해방조국건설이라는 공동목표하에 평양으로 집결하였다. 여기에서 당연히 제기되었던 문제는 누가 최고지도자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일본제국주의의 타도라는 共同目標下에서 각 지역에 산개해 투쟁하던 각파별의 지도자들은 자신만이 해방된 祖國의 指導者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5)</sup> 김일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그는 당시 ‘해방군’이었던 소련군이 운영하였던 「88

14) 林隱, 「金日成正傳」, pp. 161~65.

15) 해방 직후 북한에는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군용들이 일제의 감옥으로부터 출옥하거나 또는 지하로부터 나온 소위 현준혁·오기섭 등의 ‘국내파’와 김일성을 선두로 하는 ‘빨치산파’, 허가이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 무정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가 입국하여 ‘유일성’의 확보를 위해 사활적인 투쟁을 벌였다. 또한 민족주의자인 조만식 등도 ‘평안남도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梁好民, “北韓의 소비에트化,” 「北韓 共產化過程研究」(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2), p. 5; 金昌順, “「朝鮮勞動黨」의 派爭,” 「北韓 共產化過程研究」(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2), p. 219.

여단」에서 해방전까지 활동하였고, 항일무장투쟁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듯하다.<sup>16)</sup> 따라서 자신 이외의 인물들은 제거하는 과제가 남아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소련의 비호하에 각종 방법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을 제거해 나갔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테러리즘이었는데 이것은 빨치산들이 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첫번째 제거의 대상은 현준혁<sup>17)</sup>이었다. 현준혁은 당시의 혁명가들에게 잘 알려진 훌륭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조선공산당이 남한에 있는 民族主義者들과 美軍政當局과의 협력을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준혁도 조만식 및 북한의 민족주의자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하였다. 김일성은 현준혁의 주도하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설치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18)</sup> 현준혁은 1945년 9월 28일 로마네펬소장과 회담하고 귀가하

16) 김일성의 前비서실장(1948~1953)이었던 洪淳寬의 증언, “가까이서 본 金日成,”(이하 ‘洪淳寬의 증언’으로 약함) 『世界日報』, 1991. 8. 14.

17) 현준혁은 평남 개천군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고학으로 경성제대를 졸업하였고 대구사범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과학연구그룹을 조직하였다가 검거된 바 있고 이후 평안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적화공작사건에 주모자로 관계한 바 있어 평안도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고 조직도 가지고 있었다.

18) 서대숙은 이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다. 즉 김일성의 귀국일은 1945년 9월 19일로서 이는 저격이 있기 전 열흘도 채 안된 시기이기 때문에 현준혁을 제거하려는 음모에 그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서대숙,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p. 63. 그러나 최근 1945년 당시 소련 제25군 특수선전부 장교로 북한에 진주하여 소련지도부의 지시에 의해 김일성집권 시나리오를 직접 실행에 옮기고 김일성의 집권과정을 생생하

는 도중에 김일성 사주를 받은 장시우의 부대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sup>19)</sup>

김일성은 현준혁이 계획했던 분국의 조직작업을 자신이 주도해 나갔고 이를 바탕으로 김일성은 1945년 10월 10일에서 13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 5도(평남, 평북, 황해, 함남, 함북) 당원 및 열성자대회」를 마치고, 10월 14일에는 「김일성장군 환영 평양시민대회」<sup>20)</sup>에 참석하였다. 이 대회를 통해 국내적 기반이 전혀 없었던 김일성이 他派閥에 대한 劣勢를挽回하고 향후 북한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북 5도 당대회는 북한의 공산주의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중심체로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창설을 결의하였으며 향후의 政治路線과 組織路線을 定立하였다.<sup>21)</sup> 비록 김일성은 분국의 위원장이 되지 못하고

---

게 목격했던 레오니트 바신(77)舊蘇聯 예비역 중령은 김일성의 평양도착 날짜를 1945년 8월 22일로 증언하고 있다. 「東亞日報」, 1992. 10. 19.

19) 洪淳寬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이 귀국직후 현준혁을 찾아가 그의 신분을 속이고 김일성을 북조선공산주의자들의 지도자로 내세울 것을 건의했으나 목살당하였고 이것이 현준혁을 제거대상 1호로 삼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世界日報」, 1991. 8. 7; 고봉기, 「金日成의 비서실장」(서울: 천마, 1989), pp. 117~20 참조.

20) 김일성은 이 대회에서 소련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고 한다. 洪淳寬의 증언, 「世界日報」, 1992. 6. 14. 또한 김일성 가짜소동이 일어나 소련군의 발포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대회명칭이 「蘇軍歡迎群衆大會」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 87.

21) 첫째, 조선혁명의 역사적 단계는 자본민주혁명단계이다. 이 혁명의 임무는 일제잔재의 철저한 청산과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주내용

김용범이 위원장으로 되었으나 향후 인민정권이 추구해야할 기본적 목표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200명이 채 안되는<sup>22)</sup> 빨치산파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이러한 노력은 최악의 경우에서도 생존해야한다는 빨치산식 생존방식에서 발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조선분국은 비록 명칭은 분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黨中央의 役割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박헌영의 재건파공산당<sup>23)</sup>은 일개 파벌인 장안파

---

으로하는 봉건잔재의 폐지이다. 둘째, 소련군대가 진주한 북한에서는 혁명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미군정의 실시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조건속에서 전체혁명을 지도할 통일적인 당을 세울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에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을 설치하고 그 지도아래 북한을 한반도혁명의 튼튼한 민주기지로 발전시킨다. 셋째, 당내에는 좌·우경적 편향이 있다. 좌경적 편향은 2차대전을 사회주의혁명전쟁으로 규정하고 영·미의 진보적 역할을 무시하며 현단계를 사회주의혁명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판 트로츠키주의이며 이같은 극좌적 과오를 범한 이영, 최익한 등의 장안파공산당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 우경적 편향은 통일전선에 무원칙하게 우익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한다고 해서 노동계급의 독자성을 잃어버리고 친일파나 반공주의자를 함부로 끌어 들여서는 안된다. 미군의 진주와 더불어 남한에 세워진 인민공화국은 대중적 토대없이 급조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넷째, 일본제국주의 소유의 모든 생산기관 및 재산에 대한 몰수는 물론 일제의 전쟁범죄행위에 협력한 조선인의 것도 몰수하며 일본제국주의자의 토지와 반동지주의 토지도 몰수해 농민에게 무상분배하여 경작케 한다. 다섯째, 아직 공산당은 통일적인 당의 강령과 규약을 갖고 있지 못하고 철저한 레닌주의적 당규율이 부재하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22) 서대숙, 「김일성」, p. 66.

23) 1945년 8월 16일 장안파공산당이 생기자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화요회원

공산당<sup>24)</sup>을 자신의 권위로 복종시키지 못하고 북조선분국의 결정에 의거해서야 비로소 장안파를 해체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창설된 북조선분국은 2개월이 지나도록 활동상의 성과는 미진하였다. 각 파별간 상호 이해상충으로 인해 效率的인 政策決定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45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당내의 相異한 組織的·思想的 傾向을 비난하였다.<sup>25)</sup> 김일성은 이 3차대회에서 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이 회의는 분국의 결함을 자아낸 주된 원인이 分局의 指導機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도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당의 책임비서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黨史에서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의 歷史的 意義는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김일성이 명실상부한 당내 지도

---

들은 8월 19일 성명을 내고 「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것이 재건파공산당이었고 1945년 9월 11일 장안파를 흡수하여 조선공산당이 되었다.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서울: 돌베개, 1986), p. 318; 박갑동, 「박헌영」(서울: 인간사, 1988), pp. 86~9.

24) 1945년 8월 16일 舊서울계 및 화요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여 서울의 장안빌딩에서 조선공산당 복원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장안파’라는 이름이 생겼다. 대표자는 최익한, 이영 등이었다.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p. 317; 박갑동, 「박헌영」, pp. 84~6; 서대숙,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서울: 이론과 실천, 1989), p. 276.

25) 김일성,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79~80. 김일성은 여기에서 「북조선공산당 단체들의 사업에 있어서의 착오와 결함에 대하여」라는 보고를 통해 당의 통일과 규율을 강조하였다.

자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고 공산당도 불세비키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sup>26)</sup>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는 「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 각 행정국 및 각 도·시·군인민위원회대표 확대협의회」가 개최되었다. 同日 김일성은 「목전 정치정세와 북조선 임시인민회의 조직문제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듣고 참가자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을 결정하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2월 9일에는 委員選舉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23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김일성이 중심이 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1개조 당면과업」을 제시하였고 이를 발전시켜 1946년 3월 23일에는 장차 수립될 統一臨時政府의 政綱으로서 「20개조 정강」<sup>27)</sup>을 발표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1개조 당면과업」에 제시된대로 46년 2월부터 47년초까지 북한에서 「반제·반봉건적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주요 개혁내용은

---

26) 이에 대해 김일성은 1948년 3월 28일 북조선노동당 제2차 전당대회보고에서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가 있는 이후부터 조국을 민주화하는 위대한 사업들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조국을 창건하는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투쟁 가운데서 대중들과 같이 투쟁하게 되어 강력한 대중적 정당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30.

27) 북한은 「20개 정강」이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해방후의 새로운 조건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강령이라고 하였다. 「20개조 정강」은 「조선통사(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 316 참조.

46년 3월의 토지개혁, 6월의 민주적 노동법령실시, 7월의 남녀평등권법령실시, 8월의 주요산업의 국유화 등이었다.<sup>28)</sup> 그러나 사회주의체제 건설 노선이었던 민주기지노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의 노선투쟁은 분단상황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특히 「민주기지론」이 核心的 爭點이었다.

1946년 8월 28~30일 사이에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合黨하여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되었고, 1948년 제2차 당대회에서 빨치산파(갑산파 포함),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가 聯合政府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통일전선의 구체적 실천이었다. 1946년 제1차 당대회에서 뽑힌 정치위원은 김일성(빨치산), 김두봉, 최창익(이상 연안파), 허가이(소련파), 주영하(국내파)였고, 43명의 당중앙위원들도 뽑혔다. 43명 중 13명이 국내파였고, 12명은 연안파, 6명은 소련파였으며, 8명은 소속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김일성의 빨치산집단은 4명에 불과하였다.<sup>29)</sup>

이 때의 당위원장으로서는 연안파인 김두봉이 선출되었는데, 이는 김일성이 아직까지는 全權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0)</sup> 한

28) 주요 개혁내용과 과정은 위의 책, pp. 316~22 참조.

29)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중앙위원 파벌비율은 梁性喆, 「北韓政治論」(서울: 博英社, 1991), p. 74 참조.

30)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은 김일성이 당대회 이전에 연안파의 지도자들과 전술적으로 타협하여 양당이 합동하는데 협력해준 댓가로 당의 위원장직을 대중에게 잘 알려진 김두봉에게 양보했다는 것이다. 서대숙, 「김일성」, p. 74. 한편 洪淳寬의 증언에 의하면 蘇軍政當局이 김일성에게 너무 서둘러서 권력을 잡지 말도록 설득했다고 한다. 즉 서두르면 너무 많은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洪淳寬의 증언, 「世界日報」, 1991. 7. 17.

편 1946년 11월 23~24일에 남한에서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남조선로동당이 창당되었는데 많은 고참 공산주의자들이 이 당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체를 면치 못하였고 美軍政當局의 끊임없는 壓力과 단속으로 활동은 지지부진하였다.<sup>31)</sup>

또한 1948년 제2차 당대회시 정치위원은 김일성, 김책(이상 빨치산), 김두봉, 최창익, 박일우(이상 연안파), 허가이(소련파), 주영하(국내파)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역시 김두봉이었다.<sup>32)</sup> 그러나 1948년 9월 24~25일에 개최된 당중앙위 제2기 3차 전원회의는 김일성을 당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이때부터 김일성은 黨權까지 掌握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49년 6월 24일에 남로당과 북로당 양 중앙위원회의 첫번째 연석회의가 열려 중앙위원회의 임원들이 선출되었고 「조선로동당」이라는 공식명칭이 채택되었다. 여기에서 김일성이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박헌영은 제1부위원장, 허가이는 제2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때의 위원장, 부위원장, 정치위원회 분류를 보면 김일성, 김책(이상 빨치산파), 박헌영, 이승엽, 김삼룡, 허헌(이상 남로당파), 허가이(소련파), 김두봉, 박일우(이상 연안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포는 김일성이 통일전선을 계속 시행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1950년에 발발한 韓國戰爭은 김일성 一人支配體制의 確立과 관련하여

---

31) 서대숙, 「김일성」, p. 75.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여운형 등이 불참함으로써 대중정당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김남식, 「남로당연구 1」 (서울: 돌베개, 1984), p. 265.

32) 실제적인 권한은 김일성과 허가이, 김책 등이 갖고 있었다. 洪淳寬의 증언, 「世界日報」, 1991. 7. 24.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 수많은 政敵들이 自然的 또는 人爲的으로 除去되었기 때문이다.<sup>33)</sup> 한국전쟁이 勃發한 후 戰況은 점차 김일성에게 不利하게 전개되어 갔다. 그는 불리하게 전개되는 전쟁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야만 했다. 김일성은 兵士나 部隊의 이동상태불량, 남한에서의 게릴라활동 실패, 내부의 공안조직의 무능력 등과 같은 죄명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서 개인감정이나 정책노선 차이의 부각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격의 대상은 김일, 최광, 임춘추, 김열 등을 포함한 빨치산파, 김한중, 무정 등의 연안파, 허성택, 박광희를 비롯한 국내파 등이었다. 김일성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호전되자 대부분의 인물들을 復權시켰으나 潛在的인 競爭者였던 연안파의 대표자 무정만은 영원히 축출하였다.<sup>34)</sup> 또한 그는 1951년 11월에 소련과의 실력자 허가이를 제거하였다. 소련에서 공부한 허가이는 김일성이 정권을 잡는데 많은 理論的 助言을 하였으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김일성으로 하여금 허가이에 대해 열등의식을 느끼게 만들었다. 더구나 허가이는 이론투쟁을 통해 김일성에게 도전도 하였다. 그런데 허가이는 전쟁중 검열위원장을 지내면서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당원심사를 엄격히 하여 60만 당원 가운데 45만명

33) 강정구,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 건설,”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201~02.

34) 무정을 숙청한 직접적 이유는 무정이 김일성에 대해 안하무인적으로 대했기 때문이었고 그는 숙청된 후 병사하였다고 한다. 洪淳寬의 증언, 「世界日報」, 1991. 9. 4; 이기봉, 「김일성」, pp. 509~14.

을 추방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이 만든 함정이었고 김일성은 이같은 허가이의 행동을 엘리트주의라고 비난하여 숙청하였던 것이다.

한편 남로당파의 도전은 허가이의 도전처럼 1인이 아니고 集團이었다. 김일성과 비교하였을 때 박헌영은 韓國共產主義運動의 主流를 代表한다고 볼 수 있다.<sup>35)</sup> 비록 공산주의자들이 여러 분파로 나뉘어 이전투구를 계속했지만 박헌영은 남·북한 공산주의자들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남로당파는 박헌영에 대한 공지가 대단하였고 김일성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박헌영의 정치노선은 김일성의 「부르조아민주주의 혁명노선」과는 달리 「부르조아 혁명후 사회주의 혁명노선」이었다.<sup>36)</sup> 김일성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제1차 내각의 법무상이었던 이승엽이 이끄는 12명의 박헌영 지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승엽을 중심으로 1951년 9월부터 김일성을 실각시키고 박헌영을 수상으로 올릴키 위한 군사쿠데타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쿠데타기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1953년초 모두 체포되었다. 한국전쟁이 종결된지 3일후인 1953년 7월 30일에 12명의 공모자들이 북한형법 제25조에 의해 반역죄로 기소되었다.<sup>37)</sup>

---

35) 박헌영에 대해서는 박갑동, 「박헌영」 참조; 박헌영의 노선에 대해서는 김남식·심지연 편, 「박헌영노선비판」(서울: 두리, 1986) 참조; 박헌영과 김일성과의 깊은 관계는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p. 206~76 참조.

36)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pp. 285~86.

37) 이들의 명단은 이승엽, 조일명, 임화, 박승원, 이강국, 백철, 윤순달, 이원조, 백형복, 조용복, 맹종호, 설정식 등이다.

이들은 미국을 위한 스파이 활동, 남한에 있는 민주세력 및 공산주의 혁명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괴와 학살행위, 무력으로 공화국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행위 등 세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10명은 사형에 처해졌다. 박헌영도 위와 같은 죄목으로 1955년 12월 3일 기소되어 12월 15일 사형을 선고 받고 곧 처형되었다.<sup>38)</sup> 이로써 남로당과는 북한내에서 소멸되고 말았다.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정위원 11명과 후보위원 6명이 빨치산출신으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김일성을 지지하는 빨치산세력들이 점점 지위를 확보해 가는 증거였다. 그들은 아직 지배적인 세력은 아니었으나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자신의 政治的 正統性的의 근거로 삼기 위해 빨치산동지들을 더욱 많이 등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빨치산출신 등용을 위한 정적 숙청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는 제3차 당대회후 2개월도 못되어 1956년 6월 1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1957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5개년계획에 필요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를 구하기 위해서 구소련과 동구를 방문했다. 이 기간에 소련파인 박창욱과 연안파인 최창익 등은 집단지도체제의 수립과 엄격하게 통제되어 온 당기구의 완화를 명분으로 하여 조직과 선전 양측면에서 公開적으로 反金日成運動을 펴고 있었다.<sup>39)</sup> 즉 조직적으로 반김일성 세력을 규합

---

38) 박헌영은 '미제간첩'임도 시인하였다. "박헌영에 대한 북한의 재판기록," 김남식·심지연 편, 「박헌영노선비판」, p. 523.

39) 서대숙, 「김일성」, p. 131. 그들은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개인숭배 배경논리의 영향을 받아 김일성을 비판하기로 하였다.

하고,<sup>40)</sup> 선전면에서는 「근로자」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당의 정치노선과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 이때의 반김운동은 김일성의 개인숭배조장과 무모한 重工業優先政策, 농업협동화정책의 실정과 도탄에 빠진 주민생활 등을 내세워 일어난 것으로서, 김일성을 제거하기 위한 연안파와 소련파의 合同工作이었다.<sup>41)</sup>

1956년 8월에는 김일성의 소련 및 동구 방문결과보고와 인민보건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 제3기 8월 전원회의가 열렸다. 토의안건은 이상의 두 가지였으나, 소련파와 연안파가 연합한 반김세력이 당의 정치노선과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왔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 사건을 그 동안 그의 노선을 비판해 온 연안파를 제거하는 기회로 역이용하였다. 왜냐하면 연안파는 공산주의선배들로서 김일성에게는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국내파·남로당파 등 수많은 政敵들이 밀집해 있는 정권초기에 김일성은 연안파와 聯合할 수밖에 없었다. 즉 그는 연안파를 이용하여 국내파와 남로당파를 제거하는 以夷制夷式 方法을 채택했다.<sup>42)</sup> 그러나 김일성은 자의건 타의건 비대해진 연안파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연안파의 일원인 김창만을 포섭하여 연안파들에 대한 대숙청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때에 8월 전원회의에서 최창익, 박창옥, 윤공흠<sup>43)</sup> 등이 중

40) 이들은 박창옥, 최창익, 김두봉, 서희, 이필규, 윤공흠 등이었다.

41) 申敬完, “결에서 본 金正日(上),” 「月刊中央」(1991.6), p. 389.

42) 양성철, 「분단의 정치」, p. 136. 여기에서 양교수는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자질을 5가지로 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통일전선과 以夷制夷 전략이다.

43) 윤공흠의 인적사항은 洪淳寬의 증언, 「世界日報」, 1991. 10. 30.

심이 되어 김일성노선에 대해 비판을 가해 왔던 것이다.

비판의 내용은 김일성일파 중심의 당간부 기용의 불공평성, 당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주민생활의 위협, 일제에 아부한 이종옥<sup>44)</sup>의 등용 등이었다. 특히 무원칙한 중공업우선정책으로 말미암아 경공업과 농업이 낙후되어 인민생활이 곤궁하게 되었으며 당의 個人崇拜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김일성의 노선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파들이 대대적인 역공을 가했다. 8월 전원회의의 사회자였던 최용건과 김창만, 이종옥 등이 윤공흠을 반박하였고 연안파주변에서는 야유의 소리가 계속되었으며 회의장은 수라장이 되었다. 이미 김일성은 연안파들의 좌석을 빨치산, 군대, 내무기관의 당대표들로 둘러 싸게 하여 반대토론이 나오면 야유를 통해 발언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조직하여 놓았던 것이다.<sup>45)</sup> 결국 윤공흠, 최창익, 김두봉 등의 공격은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윤공흠을 비롯한 연안출신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中國으로 亡命하였다. 「8월중파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 이후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곧 당정책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黨權掌握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치자’라는 구호를 모든 論理의 根源으로 삼았다.

---

44) 이종옥은 원래 함흥시 흥남비료공장의 기술자였으나 김일성의 호위대장 이을설의 삼촌이어서 연줄을 타고 산업성에 올라와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윤공흠에 대해 토론대신 공격부터 하였다. 그의 직위는 현재 부주석이다.

45) 林隱, 「金日成正傳」, pp. 280~81: 8월전원회의의 자세한 진행과정은 洪淳寬의 증언, 「世界日報」, 1991. 10. 23 참조.

또한 이러한 경험은 이후의 幹部登用政策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56년의 8월중과사건 이후 북한의 간부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 정책에 대한 충실성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였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사상에서의 주체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관계에서는 정치에서의 자주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관계에서는 자립노선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의 핵심적인 정책목표인 당의 통일단결을 유지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파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의 경향성은 배제되었다.<sup>46)</sup> 여기서 당정책이란 곧 김일성의 입장과 생각이었으며, 파벌주의, 지방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은 곧 당중앙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김일성의 絶對的 權力으로 歸一되었다.

## (2) 路線葛藤의 清算과 「주체」의 登場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7)</sup> 그 이유는 그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正規教育을 早期에 中斷할 수밖에 없었고<sup>48)</sup> 일찌기 빨치산운동에 참가함으로써 맑

46)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349.

47) 林隱, 「金日成王朝秘史」(서울: 한국양서, 1982), p. 277; 그러나 김일성은 그의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 소년시절부터 「자본론」을 읽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07.

48) 김일성은 중학 2학년이었던 1929년에 불법활동에 가담한 이유로 퇴학당

스-레닌주의를 이론적으로 섭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해방과 함께 귀국한 후 스탈린주의를 조선에 이식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고전적 맑스-레닌주의가 아닌 소련의 문화와 경험에 의해 수정되고 변질된 스탈린주의를 북한에 접목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산주의 일당독재 강화, 중공업우선정책,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 농업의 집단화, 공업의 국유화, 공산당 지도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민의 양성, 소련을 세계혁명의 기지로 강화하여 공산혁명을 각국에 수출하는 것 등이다. 김일성은 스탈린주의를 정치적 토양이 다른 북한에 수입하여 스탈린식 動員裝置의 制度化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革命戰略의 성공여부는 유일지도자를 신격화하고 그에 대한 충성심을 제도화하는데 달려 있었다.

이러한 이념을 북한에 실천하기 위한 혁명론으로 「부르쥬아 민주주의 혁명론」이 채택되었다. 소련당국과 김일성은 북한에 쏘비에트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르쥬아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기지」<sup>49)</sup>를 만들어 장차 통일에 대비하려 하였다. 즉 그들은 남북한에 조성된 차별적 상황을 인식하여 全國的인 統一政府樹立과 이를 달성하기

---

함으로써 그의 공식적인 교육은 끝났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 p. 346; 서대숙, 「김일성」, p. 3; 許東燦, 「金日成評傳(續)」(서울: 北韓研究所, 1988), p. 15; 양성철, 「분단의 정치」, p. 56; 洪淳寬의 증언, 「世界日報」, 1991. 7. 31.

49) 민주기지론에 대한 심층분석은 김순규, “북한의 초기 통일정책: 민주기지노선,” 김일평 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p. 211~46;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서울: 백산서당, 1990), pp. 187~92.

위한 革命戰略으로서 「민주기지노선」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전체가 동시적으로 발전할 수 없을 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부분의 중점적 발전을 통하여 전체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전략으로서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북한을 全朝鮮革命 完遂를 위한 기지로 삼는다는 논리이다. 또한 「민주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기반이 너무 약했으므로 각계각층을 망라한 통일전선이 필요했던 것이다.<sup>50)</sup>

이러한 노선에 대한 반대는 현준혁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자산계급성 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즉 그의 주장은 정치적 문제처리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노동자나 빈농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 있어서는 民族問題解決과 獨立國家建設에 유용한 식견과 경륜을 가진 인사들 중심으로 계급과 당파를 초월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자는 것이었다.<sup>51)</sup>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를 핵심으로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려고 하는 소련군정당국 및 김일성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우경적 노선이었다. 이러한 노선은 蘇軍政當局과 김일성에게는 혁명의 성격 및 발전단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북한에

---

50) 김일성은 “제국주의 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반대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로동계급이 핵심이 되고 광범한 농민들과 애국적 지식인들, 심지어는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족자본가들까지 망라하는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로동계급이 영도하는 인민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해야한다”는 통일전선의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김일성, “새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 p. 332.

51) 金昌順, 「北韓十五年史」(서울: 지문사, 1961), p. 66.



서의 先쑤비에트秩序 확립을 방해하는 反革命的 路線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은 현준혁이 민족주의자인 조만식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다니는 追從主義的 役割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현준혁은 결국 소군정 및 김일성과의 혁명이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부르쑤아 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하여 소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해 나갔다. 이때 김일성의 노선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발언이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나왔다. 즉 “조선민족은 이제부터 새 민주조선건설에 힘을 합하여 나가야겠다. 어떠한 당파나 개인만으로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있는 자는 지식으로, 노력을 가진 자는 노력으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완전히 대동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sup>52)</sup> 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후 김일성은 1945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였고 거기에서 그는 정식으로 당책임비서직을 차지하게 되었다.<sup>53)</sup> 이를 계기로 그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에 반대하는 자들을 黨證授與<sup>54)</sup> 라는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이러한 승리를 발판으

52) 김일성, “모든 힘을 새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1」, p. 352.

53) 이때부터 북한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전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그를 찬양·미화하는 구호가 나붙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 177.

54) 당중수여사업을 통하여 당내 반대파의 조직기반을 와해하고 이색분자를 제거하며 그 과정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일파의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方仁厚,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70), p. 93.

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던 1946년 2월부터 사회주의 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된 1947년 2월 이전까지 그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이후로 약화된 당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통일전선에 입각하여 諸政黨間의 合黨을 추진하였다. 각당의 정강정책은 상호 약간씩 달랐으나 약화된 당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당시로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 1946년 8월 28일 「조선신민당」<sup>55)</sup>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을 만들었고, 1949년 6월에 「남조선로동당」<sup>56)</sup>과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을 만들었다.<sup>57)</sup>

김일성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는 남로당계열이었다.<sup>58)</sup>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조선로동당」 당원이었으나 내심으로는 박헌영이 1945년 8월에 제시한 「8월테제」<sup>59)</sup> 노선을 선호하고 있었다. 즉 김일성은 1947년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북한은 이미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남로당계열은 아직 「부르조아혁명단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sup>60)</sup> 이러한 발전노선의 차이는 남로당이 한국전쟁실패 책임을 지고 숙청당하는 본질적 원인이

55) 위의 책, pp. 98~9.

56) 김남식, 「남로당연구 1」 참조.

57)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方仁厚,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참조.

58)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p. 321.

59) 자세한 내용은 박갑동, 「박헌영」과 김남식, 「남로당연구 1」, pp. 22~4 참조. 박헌영은 이 「테제」에서 미국을 진보적 민주국가로 보았다.

60) 김남식·심지연, 「박헌영노선비판」, pp. 35~6;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p. 66.

되었다. 전술한 것처럼 김일성은 자기와의 노선갈등문제는 숨긴 채 북한 인민들이 가장 증오하는 ‘미제간첩’이라는 누명을 남로당에 씌워 숙청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이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는 戰後復舊事業이었다. 스탈린의 영향을 받은 그는 發展優先順位를 중공업에 두었다.<sup>61)</sup> 1953년 8월 당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후 경제건설의 총노선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는데 경제건설의 총노선으로 「중공업우선 발전과 경공업·농업 동시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sup>62)</sup> 그러나 문제는 資本, 技術, 勞動力의 不足과 인민들의 勞動意慾不足이었다.<sup>63)</sup> 왜냐하면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극심하였기 때문이다.<sup>64)</sup>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발전노선에 대한 권력엘리트간의 의견불일치였다.

---

61) 스탈린의 중공업우선정책에 대해서는 宋澤龜·趙範淳, 「現代 蘇聯政治論」, pp. 49~52 참조.

62) 김일성은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를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8」(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8.

63) 1954년 4월 1일부터 4일간에 걸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당원들의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통해 “농민들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경각심과 증오심이 희박하여지며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중하게 여기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64)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상황은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pp. 206~08 참조.

김일성은 중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경공업분야는 물론 대부분의 생산수단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대자들은 국유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인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인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基幹産業建設이라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특히 김일성의 발전전략은 빨치산과 중심의 권력개편에 불만을 품어온 연안파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였다. 1950년 무정의 숙청 이후 계속적으로 악화되어온 연안파는 그들의 불만을 김일성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반대로 표출하였다. 즉 공업발전수준이 낮고 현대적 농기계가 부족하며 남북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重工業優先政策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김일성은 1954년 11월에 실험적인 협동농장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협동농장화과정은 3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sup>65)</sup> 1956년말까지 전농지의 80.9%가 사회주의적 협동농장화하였다.<sup>66)</sup> 이에 대해서도 중국식 개발을 원하는 연안파들은 농촌집단화의 속도가 東歐國家들에 비하여 너무 빠르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1953년부터 1956년 4월까지 김일성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

65) 농협협동화운동의 구체적인 실례는 전직 로동당 간부였던 김진계, 「조국(상)」(서울: 현장문학사, 1990), pp. 237~52 참조.

66)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335.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으로서는 그의 노선의 원만한 집행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53년 스탈린 死後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반스탈린주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다. 즉 김일성은 이 기회를 통하여 정적들을 제거할 ‘이론적 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파벌을 제거한 것이 김일성 개인의 권력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sup>67)</sup>

그리하여 그는 1955년 12월에 발표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sup>68)</sup>를 통해서 ‘주체’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곧 반대파들에 대한 숙청의 예고였다. 그는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하면서 “소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소련식으로,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하자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宗派主義를 비난하였다. 이것은 이때까지도 김일성과 각 파벌간의 의견대립이 있어 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소련에서는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個人崇拜主義를 비판하였다. 스탈린주

67) 梁好民, “政治: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의 확립,” 李相禹 外, 「북한40년」 (서울: 乙酉文化社, 1988), p. 71.

68)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467~95. 김진계 씨는 이 글의 발표년도를 ‘1956년 12월’로 증언하고 있다. 김진계, 「조국(상)」, p. 263. 실제로 1955년 12월 「로동신문」에도 이 대회에 관한 보도가 없다.

의를 신봉하는 김일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sup>69)</sup> 이 사건은 오히려 김일성으로 하여금 개인숭배주의를 더욱 고수하도록 만들었고 그를 비판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철저한 탄압을 하도록 만들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북한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후 주체는 정적 숙청을 위한 편리한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 그는 ‘주체’의 이름으로 연안파인 박일우를 12월 전원회의에서 숙청하였다.<sup>70)</sup>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시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회 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일본 및 기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조선인민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다”라고 말하여 ‘주체적’으로 抗日鬪爭을 한 것처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3차 당대회까지는 맑스-레닌주의가 당의 공식이데올로기였다.

김일성은 1957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본이 그의 소련·동구 순방을 통한 자금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얻어지지 않자, 1956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에서의 자립’을 강조하였다.<sup>71)</sup> 김일성은 또한 1957년 11월에 발표된 「모스크바선언」<sup>72)</sup>에 고무되

69) 고봉기, 「金日成의 비서실장」, p. 172.

70) 북한이 주장하는 박일우의 죄목에 대해서는 方仁厚,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pp. 202~03 참조.

71) 서대숙, 「김일성」, p. 131.

72) 이 선언은 첫째, 사회주의 국가들의 완전평등, 둘째, 민족적 자주성과 주권의 존중, 셋째, 상호 내정불간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

어 ‘정치에서의 자주’를 선언하였다. 그가 ‘정치에서의 자주’까지 천명할 수 있었던 것은 8월종파사건을 효과적으로 마무리지었고 世界共產主義가 多元化된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sup>73)</sup>

#### 나. 權力強化期(1961~1972)

##### (1) 빨치산派의 得勢와 金日成 唯一體制 確立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4차 당대회는 김일성의 정치 활동에서 하나의 큰 분수령이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長期間의 鬭爭은 종식되었고 5개년 경제계획을 완수하여 전쟁피해를 복구하고 인민동원 방식으로 국가를 본궤도에 진입시켜 놓았으므로 제4차 당대회는 김일성에게 일종의 축제무대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대회는 과거의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동료들만이 지휘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건설로 향하는 발판이 되었다.<sup>74)</sup>

김일성의 권력강화과정에서 빨치산출신들이 세운 공에 대한 논공행상

---

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5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pp. 254~61; 이 선언의 전문은 나라사랑편집부 편, 「중소대립과 북한」(서울: 나라사랑, 1988), pp. 19~31에 실려있다.

73)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서울: 文佑社, 1988), p. 83.

74) 북한은 로동당 4차대회를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완성을 총화한 승리자의 대회,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온갖 종파오물들을 쓸어 버리고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위력을 시위한 단결의 대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396.

은 중앙위원회의 새로운 위원과 간부들의 선거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즉 빨치산출신 및 그들에 의해서 훈련되거나 그들과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위원회의 8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제1차 당대회가 치러진 후 15년만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에서 당은 빨치산파로 총원되었다.

또한 9월 18일 소집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김일성이 위원장으

<표 2-1> 당중앙위원 파벌분류

( )는 %임

	1 차	2 차	3 차	4 차
자료 추적 가능수	29	51	45	31
김일성	6(21)	12(23)	12(27)	24(77)
소련파	6(21)	13(25)	8(18)	1( 3)
남로파	6(21)	9(18)	9( 2)	3(10)
연안파	11(37)	13(25)	14(31)	2( 6)
김일성과 기술관료		4( 8)	2( 4)	1( 3)

출처: 染性喆, 「北韓政治論」(서울: 博英社, 1991), p. 74.

로,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이효순 등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연안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창만외에는 모두 빨치산출신이었다.<sup>75)</sup>

제4차 당대회는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파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었고 파벌투쟁은 빨치산파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었음을 내외에 과시한 것이었다. 파벌투쟁이라는 國內的 難題는 종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75) 서대숙, 「김일성」, p. 149.



는 對外問題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만 하면 김일성 정권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제 김일성의 고민은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중·소이념분쟁의 와중에서 여하히 생존해 가느냐하는 대외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중·소이념분쟁의 와중에서 1962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發展目標의 優先順位를 再評價하고, 獨自의인 軍事力 增強을 결정했다. 즉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sup>76)</sup> 이라는 표어가 발표되었고 모든 당원과 노동자들은 “한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적으로부터 우리의 거리와 마을과 조국을 보위하며” 사회주의를 한층 효율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빨치산출신 장군들은 이 전원회의에서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당의 4대군사노선을 제시했다. 이것은 김일성에 의해 1966년 10월의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회의에서 더욱 정교화되었다.

한편 김일성은 남한의 군사정권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3대혁명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1964년 2월의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북조선의 혁명역량’, ‘남조선의 혁명역량’, ‘국제혁명역량’의 강화 등 3대혁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민주기지론」이 「지역혁명론」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sup>77)</sup> 그는 ‘남한내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직·

---

76) 이 표어에 대한 설명은 「김일성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365 참조.

간접적인 南韓 顛覆計劃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방침은 군부를 더욱 호전적으로 만들었고 각부문에서 빨치산출신 군인들의 득세를 가능케하였다.

김일성은 1966년 10월에 당대표자회의를 소집, 빨치산파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원래 당대표자회의는 다음의 세가지 목표를 위해서 개최되었다. 즉 첫째는 과중한 국방비 지출부담으로 인한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 延長問題, 둘째는 사회주의 형제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중·소분쟁에 대한 立場表明, 셋째는 1961년의 제4차 당대회 이후에 숙청 또는 강등된 많은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交替問題 등이었다.<sup>77)</sup>

제2차 대표자회의에서 행해진 인사결과 당중앙위원의 1/5이 교체되었고 빨치산출신과 군장군들이 새로운 중앙위원회 위원 진용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치위원회의 진용도 대거 바뀌었다. 빨치산출신이 아닌 김창만, 박정애, 정일룡, 남일, 이종옥 등 5명이 제외되고 김익선(비 빨치산), 김창봉, 박성철, 최현, 이영호 등이 새로 선출되었다. 나머지 6명은 빨치산출신이거나 빨치산관련자인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광협, 이효순이었다. 빨치산세력의 대두는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이미 감지되었으나 1962년에서 1966년에 이르는 동안에 군사력증강이 강조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의 政治的 優位가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나 빨치산출신 장군들의 득세는 特定勢力의 優位를

---

77)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p. 447~48; 김세균, “북한의 통일정책,”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646~58.

78) 자세한 내용은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참조.

싫어하는 김일성을 자극하였다.

한편 그때까지 권력투쟁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 온 파벌은 갑산파였다. 이 갑산파는 1930년대 함경남도의 삼수갑산을 기반으로 항일투쟁을 벌였던 김일성의 맹우들이었다. 그들 중 대표자는 당비서 겸 부수상 박금철, 당비서 겸 대남공작 책임자 이효순이었다. 김일성은 1967년 5월 당중앙위 제4기 15차 전원회의를 비밀리에 개최하고 박금철, 이효순 등을 반당·종파분자로 누명을 씌워 숙청하였다.<sup>79)</sup> 북한은 이 전원회의가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80)</sup>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갑산파에 대한 숙청이 종래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숙청이 타파벌을 상대로 한 권력투쟁의 산물이었는데 반하여 갑산파의 숙청은 김일성과 함께 직접 빨치산투

---

79) 박금철에 가해진 죄목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시대에 변절자이고 2) 김일성의 투쟁경력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투쟁경력을 과시했으며 3) 당부위원장으로서는 당의 군사노선을 불성실하게 집행했으며 4) 도덕적으로 부패한 품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효순은 1961년 제4차 당대회때에 빨치산출신들이 연락국을 장악하자 그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연락국을 맡으면서 열성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대남공작에서 몇가지 실패를 하였다. 이효순에게 가해진 죄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당 연락국장으로서 대남공작을 망쳐 놓았고 특히 대남공작의 적극화를 거부함으로써 많은 희생자를 냈고 2) 김일성의 사상과 불일치되는 점이 많아 당정치노선에 불만이 있다는 것 등이다. 北韓研究所,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83), pp. 297~98.

80)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략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600.

쟁을 전개하였다고 하는 소위 唯一革命傳統構成人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충성심이 부족할 경우 누구나 숙청될 수 있다는 신호였다.

이효순은 빨치산출신 군장성인 허봉학으로 교체되었다. 허봉학은 취임하자마자 工作體制를 재편성하고 남한침투, 교란, 파괴공작을 위해 「124군부대」 등 특수계릴라부대를 창설하였다. 대남담당 총책 허봉학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출신 장군들은 호전적인 대남정책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였고 김일성 또한 이를 선호하였다. 허봉학은 對南工作을 맡은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를 김일성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 일환으로 남한의 大統領을 暗殺하기로 결정하고 특수계릴라 부대인 「124군부대」를 남파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또한 이들은 1968년 1월 23일에는 미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하여 미국과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게 하였고, 1968년 7월 남한에서 「통일혁명당」사건을 일으켰고, 1968년 10월 30일~11월 3일에 걸쳐 울진·삼척지구에 대한 무장공비 남파사건, 1969년 미정찰기 EC-121기 격추사건 등 호전적인 사건들을 연이어 일으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반도를 긴장시켰고 특히 남한의 反共意識을 더욱 고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김일성은 빨치산출신 장성들의 대두와 북한의 군사주의화가 장점 못지않게 폐단도 안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빨치산출신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은 느꼈으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빨치산의 전통이 고양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공식적 비난은 피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연락국 총책 허봉학은 비빨치산계열의 민간인 김종린으로 조용히 교체되

었다. 1969년 인민군 당 제4기 총회에서 오진우의 주도하에 허봉학 이외에도 약 10여명의 고위 장장들이 숙청되었다. 여기에는 빨치산출신의 장군으로 당비서겸 정치위원이었던 부수상 김광협, 민족보위상 김창봉, 인민군총참모장 최광, 해군제독 이영호, 사회안전상 석산 등이 포함되었다.<sup>81)</sup>

빨치산출신 장군들이 숙청된 이유는 첫째, 빨치산출신 장군들이 한국전쟁에서의 인민군의 경험을 경시하고 韓國地形에 맞지 않는 高度武器體系만 강조했다는 것이고, 둘째, 全國의 要塞化政策을 수행하면서 지하터널을 파지도 못하고 때로는 안전하지 못한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셋째, 일부부문에서 물자를 낭비하고 다른 부문에서의 부품 및 장비의 적절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며, 넷째, 김창봉을 비롯한 빨치산출신 장군들이 군부내에 도당을 형성하려고 했고 군병력을 마치 私兵처럼 다루었다는 것이다.<sup>82)</sup>

이것은 우리에게 몇가지 示唆點을 제시해 준다. 즉 첫째, 빨치산출신을 비롯한 누구도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숙청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1960년대의 군사정책종식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은 經濟開發에 政策的 優先順位를 두기 위해 빨치산출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셋째, 專門技術官僚들과 함께 빨치산출신들에 의해 훈련받은 젊은 지도자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넷째, 김일성의 直系 親·姻戚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81) 서대숙, 「김일성」, p. 208.

82) 위의 책, p. 209.

즉 김일성의 친제인 김영주가 당서열 4위로 부상하였고 김일성의 처 김성애가 민주여성동맹 위원장이 되었다. 그밖에 박성철, 양형섭, 허담 등이 등용되었다.<sup>83)</sup>

이러한 변화들은 1970년 11월 제5차 黨大會의 지도부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84)</sup> 당시에 선출된 117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제4기 중앙위원은 단지 31명만이 재선되었을 뿐이고 2/3가 넘는 86명은 새로이 선출된 신입위원이었다. 또한 당간부의 경우 1966년 10월의 제2차 당대표자대회에서 선출된 10명의 비서 가운데 단지 최용건, 김일, 김영주 등 3명만이 유임되었고 나머지 7명은 교체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서직에서 배제된 7명이 바로 빨치산출신 장군들이며 새로 등장한 김동규, 한익수, 현무광, 김중린, 양형섭 등은 전문관료들이었다는 점이다. 정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1명 가운데 김일성, 최용건, 김일, 최현 등 4명을 제외하고는 7명이 교체되었는데 오진우, 박성철, 서철 등을 제외한 김영주, 김동규, 한익수, 김중린 등은 빨치산출신이 아니었다.<sup>85)</sup> 물론 새로 등장한 인물들도 김일성의 충성스런 지지자들이었다.

김일성은 빨치산출신의 숙청을 마무리한 후 헌법개정을 하였다. 1972년 12월에 내각의 수상을 국가주석으로 격상시키고 주석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의 獨裁的 權限을 헌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내용이었는데,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

---

83) 위의 책, p. 210.

84) 위의 책, pp. 211~16.

85) 서대숙은 박성철, 서철까지 빨치산출신이 아닌 것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그의 책 부록에는 이들이 빨치산출신으로 분류되어 있다. 위의 책, p. 214.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대체되고 그의 혁명전통이 북한의 전통으로 선언되었다. 둘째, 국가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전군의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셋째, 정무원은 국가주석과 그가 지도하는 중앙인민위원회의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격하되었다. 또한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도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은 헌법상 국가주석의 제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뽑힌 사람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국가주석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김일성은 당총비서의 지위도 계속 보유하게 됨으로써 黨·政·軍에 걸쳐 전권을 장악함으로써 유일지배체제를 완성하였다.

## (2) 唯一思想으로서의 주체사상 確立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平和共存論」을 제창한 이후 중·소간의 理念紛爭은 김일성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김일성으로서는 남한과의 평화공존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중국편을 들 입장도 못되었다. 또한 김일성 자신이 스탈린시대 때의 일이긴 하지만 소련의 비호하에 정권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經濟·軍事的 援助가 없이는 1961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7개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고 安保維持가 不可能하였기 때문이다.<sup>86)</sup> 이러한 이유

86) 이 계획기간에 공업총생산은 3.2배로 향상시키도록 되어 있었고, 알곡생

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지지를 보내는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였다. 즉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불편했던 기간 내내 김일성은 이러한 불화에 관여하는 것을 피하였다.

소련·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국방에서의 자위’를 선언하게 만들었다. 당시의 북한상황은 안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1961년 남한내 군사정부 등장, 1962년 쿠바미사일위기, 1962년 중·소국경분쟁 등이 일어나 주변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게 변해갔으나 중·소에게 의지할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1962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 정책’과 함께 ‘국방에서의 자위’를 선언하고 4대군사로선을 채택하였다.

1966년 8월 12일 북한은 「로동신문」에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장문의 사설을 통해 ‘외교에서의 자주’를 공식선언, 중·소분쟁에서 中立의 態度를 취하려 하였다. 북한이 이처럼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自主外交를 표명한 것은 첫째, 中·蘇紛爭의 激化, 둘째, 중·소대국주의의 內政干涉으로부터의 自己防禦, 셋째, 독립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북한의 위신을 세워 民族的 矜持를 誇示하려는 정책적 고려, 넷째, 사회주의 공업국가에로의 발전을 위한 중·소 양국으로부터의 實利追求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sup>87)</sup> 이의 일환으로 그는 제3세계에 관심을 돌렸다. 그는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기 원하였고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

---

산은 600만톤 수준으로 잡고 있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p. 394~95.

87)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 p. 85.



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은 각 분야에서의 '주체'를 강조하였는바, 중·소이념분쟁에서의 교훈이 이후 김일성의 統治哲學 確立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1950년대 중반 김일성이 사상에서의 주체를 강조한 것은 國內的 要因과 國際的 要因의 複合的 作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국내적으로 소련과, 연안파 등이 중·소분쟁의 가시화라는 새로운 국제정세하에서 각각 소련식, 중국식을 강조하는데 대해 북한의 자체실정에 맞는 조선식에 집착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국내 세력의 주체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소이념분쟁의 와중에서 주체를 거론한다는 것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자주를 주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강조되는 내용면에서 보면 50년대 중반은 주체의 의미가 강하고, 60년대 후반에는 자주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50년대 중반 국내 정치세력에 대한 주체의 강조는 사상에서의 주체로 표현되었고, 60년대 중반 소련 및 중국에 대한 자주의 강조는 주체사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주체사상」이라는 개념은 1965년부터 대두하였다. 이것 또한 전자가 강조되는 시점에서는 당정책이 강조되었고, 후자가 강조되는 시점에서는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강조되었다.

요컨대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수령'<sup>88)</sup>의 유일적 영도체계, 당의 유일 사상체계, 주체사상의 김일성혁명사상화, 당정책의 집행력 강화,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의 강화 등이 강조되던 시기였다.<sup>89)</sup> 또한 國際環境變化, 韓

---

88) 수령에 대한 정의는 「조선문화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544 참조.

89)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용필, “주체사상과 그 기능,” 전인영 편,

半島의 緊張高調 등이 수령의 유일사상, 수령의 유일지도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으로 전개되었다. 즉 1950년대 중반에는 당정책과 사상에서의 주체가 강조되었다면, 1960년대 말에는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이 강조되었으며, 자주노선이 확고히 천명되었다. 또한 50년대에는 당의 지도적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60년대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집행력 강화가 강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50년대에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 당정책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했다면, 60년대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했다. 따라서 간부층원의 일차적인 기준인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주체사상으로 무장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써 주체사상은 북한내에서 「당의 유일사상」으로 체계화되었고,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당의 공식이데올로기로 채택되었다. 주체사상의 확립과정을 표로 나타내 보면 <표 2-2>와 같다.

---

「북한의 정치」(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102~21 참조.

〈표 2-2〉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제 기 시 기	배 경
사상에서의 주체	당선전 선동원대회 (1955. 12. 28)	· 스탈린의 사망, 크레믈린내 권력투쟁 · 당내 국내파 숙청 · 소련파 숙청계획중
경제에서의 자립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56. 12. 11)	· 대외원조 감소(5개년 경제계획수립차질) · 당내 반김일성 운동 고조 (8월 종파사건) · 중공발전 모델 시험착수
정치에서의 자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57. 12. 5)	· 공산권내 개인숭배 반대운동 · 당내 연안파, 소련파 타도
국방에서의 자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62. 12. 10)	· 중·소분쟁과 미·소공존 모색 · 한국의 군사혁명(1961. 5) · 쿠바 미사일 위기(1962. 10)
대외관계에 서의 자주	당대표자회의 (1966. 10. 5)	· 중·소분쟁의 확대 · 비동맹운동의 발전
종합화 이론체계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67. 6. 28) 당5차대회 (1970. 11. 12)	· 김일성 1인지배체제의 확립 · 김일성 개인숭배운동의 전개

출처: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서울: 文佑社, 1988), p.

## 2. 金正日 承繼體制의 確立

### 가. 金正日 承繼體制 準備期(1973~1980)

舊蘇聯에서 후르시초프에 의해 스탈린이 格下당하고 중국에서 林彪에 의해 절대적으로만 생각되었던 毛澤東의 지위가 도전받게 되자 김일성은 그의 사후를 대비한 安全辦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헌법개정으로 그의 지위는 확고하게 되었으나 구소련이나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권력승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들에게, 그것도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김일성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후계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첫째, 김정일이 북한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黨權을 掌握케 하기 위하여 그를 당비서로 기용하였고, 3대혁명소조운동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주체사상에 ‘후계자론’을 포함시켜 이론적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켰다.

#### (1) 金正日體制 準備過程

김일성은 승계문제와 관련 1971년 6월 24일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혁명투쟁을 멈출수 없습니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집니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어 벌써 해방후 자라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

는 새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가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sup>90)</sup>고 革命承繼의 必要性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표출된 이후, 1972년 12월 22일 당중앙위 제5기 6차 전원회의를 마친 후 非公開會議에서 최용건, 김일 등의 추천으로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되었다.<sup>91)</sup> 그리고 1973년 9월 4~19일까지 열린 당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김정일이 당의 핵심인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비서로 임명됨으로써 실질적인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고 1975년부터 김정일이 ‘당중앙’이라는 호칭으로만 불리어졌다.

그러나 김일성의 구상은 당내 원로들의 반대에 봉착하였다. 왜냐하면 원로들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행동을 하였고 ‘노쇠’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심지어 직책까지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sup>92)</sup> 1976년 3월 남일이 急死하였고 1976년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지경수가 사망하였으며 1977년 2월 인민무력부 부부장 지병학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77년 종반에는 부주석 겸 당정치

---

90) 김일성,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2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204.

91) 申敬完에 의하면 1971년 4월말 당중앙위 제5기 2차 전원회의가 끝나고 전원회의사업을 결산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김영주가 건강상, 조직비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으로 김정일을 조직비서로 임명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申敬完, “결에서 본 金正日(上),” p. 365.

92) 위의 글, p. 404.

위원 김동규와 군총정치국장 이용무, 사상담당비서 양형섭이 잠적했다.

위와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김정일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었다. 남일은 북한에서는 사고사로 발표하였으나 김정일세습체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김정일추종세력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여진다. 김일성의 빨치산시절 소년단원이었던 지경수는 「8·18도끼만행사건」에 대해 김정일에게 반발하다가 살해되었고, 역시 소년단원이었던 지병학도 김정일의 횡포와 군부내 「3대혁명소조원」들의 급작스런 부상에 저항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내 숙청작업의 일환으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던 이용무도 좌천되었다.<sup>93)</sup> 김동규, 양형섭<sup>94)</sup>도 김정일이 제시한 「유일사상 10대원칙」추진에 제동을 걸었다하여 숙청되었다.<sup>95)</sup>

## (2) 金正日과 3대혁명소조운동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3대혁명소조운동」의 北韓政治史的 意味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북한의 차기 정권담당자인 김정일이 이것을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의 중요성은 이미 1971년 12월 「직총」 제5차대회와 1972년 2월 「농근맹」 제2차대회를 통해 제시되었었다.<sup>96)</sup> 또한 이것은 19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93)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pp. 299~301; 申敬完, “결에서 본 金正日(下),” 「月刊中央」 (1991.7), pp. 403~05.

94) 양형섭은 김일성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복권되어 현재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95)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p. 301.

96)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487.

에 명시되었다.<sup>97)</sup> 3대혁명을 실현시키기 위한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3년 2월 김일성에 의해 정치위원회에 제안되었으나<sup>98)</sup> 김정일의 지도아래 이 운동을 실시한다는 결정은 1974년 가을에 비밀리에 열린 중앙위원회 제 9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99)</sup> 「소조」는 대학졸업반 학생들과 김일성고급당학교학생, 대학을 갓 졸업한 기술자, 사무원 등을 주축으로 조직되어 각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각 기관과 학교에 20~30명씩 또는 50명씩 파견되었다.<sup>100)</sup>

3대혁명소조의 出現背景은 첫째, 김정일承繼體制의 基盤構築에 있었다. 1973년 9월 당중앙위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의 수행문제를 토의하면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고 그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한 행동대로서의 역할을 3대혁명소조가 맡아야 한다고 의결되었다. 둘째, 장기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意識改造, 技術革新, 生産能率提高 등을 감독할 새로운 조직의 동원이 시급히 필요했다. 셋째,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라는 천리마운동이 퇴색하여 새로운 勞力動員運動의 계기가 필요했다. 넷째, 당조직들의 機能과 役割이 弱화되었는바,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만연으로 약화된 조직의 기능을 강화할 새로운 독재기구의 조직이 필요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up>101)</sup>

97) 사회주의헌법 제11조에는 사상혁명, 제25조에는 기술혁명, 제36조에는 문화혁명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1973.1), pp. 29~42.

98) '3대혁명'의 구호가 당 이론지 「근로자」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73년 10호이며 「로동신문」에 크게 나타난 것은 1973년 10월 22일이었다.

99)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489.

100) 「근로자」(1975.3), p. 7.

3대혁명소조는 김정일의 승계체제를 굳히기 위한 行動隊로서 노동자들속에서 김일성의 교시와 함께 김정일의 ‘친필과업’을 침투시키고 무조건 복종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도록 독려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소조는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모두가 김일성의 이름으로 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조는 당·행정기관과 각 수사기관까지 統制·調整하며 監督權까지 행사하였다.<sup>102)</sup>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빨치산세대들이 주로 장악하고 있었던 북한군에까지 3대혁명소조가 침투되었다는 점이다. 북한권력구조의 특성상 黨權과 軍權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당권장악을 위해서는 군권장악이 필수적이다. 김정일도 당연히 군권장악을 위해 군내부에도 3대혁명소조를 침투시켰던 것이다. 군부침투 과정에서 이용무처럼 반발한 자도 있었으나 오진우, 오극렬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자가 더 많았다. 1975년 12월부터 군에서의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sup>103)</sup>으로 深化되어 실시되었다. 1977년에는 김일성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군관계자 6천여명이 모여 「조선인민군선동원대회」를 개최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군이 힘차게 밀고 나갈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김정일의 權力基盤 擴充을 위해서는 감시기구가 강화

101) 양호민, 「북한사회의 재인식 1」(서울: 한울, 1987), p. 177; 陳性桂, 「金正日」(서울: 同和研究所, 1990), pp. 52~3.

102) 陳性桂, 「金正日」, pp. 54~5

103)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김정일이 1975년 11월 제창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p. 490.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1973년 5월에 사회안전부내의 정치보위국을 독립시켜 국가주석 직속하에 국가정치보위부를 신설하였다. 김정일 후계 체제의 확립을 위한 반당·반체제세력을 조직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정치보위부는 군당조직과는 별도로 특히 군부내 중대까지 파견되었고 고급간부를 직접 감시하였다.<sup>104)</sup>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일성이 3대혁명소조원의 약 90%가 청년인텔리층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약 90%), 김일성이 사상혁명의 주대상을 일반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舊世代 黨僚 및 幹部들의 낡은 사상잔재까지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는 북한에서 승계체제 확립과 社會主義體制 強化를 위해 저항하는 간부는 교체하는 대신 저돌적이고 출세지향적 간부들의 등용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즉 3대혁명소조원의 역할은 中國文化革命 당시의 홍위병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권력엘리트들간의 統合을 鞏固히 하고 派閥形成을 豫防하기 위해 變形된 統一前線 방법을 동원하였다. 즉 1970년대 초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라고 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징표로 하고 노·장·청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렸으며…”라고 말하여 간부정책의 기본원칙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노·장·청 배합이라는 김정일의 간부정책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1977년 12월 당중앙위 제 5기 15차 전원회의에서의 조직문제 토의결과를 분석하고, 또 1977년 12

104) 申敬完, “겔에서 본 金正日(下),” p. 442; 자세한 발전과정과 조직은 李 柱熙, 「北韓要論」(서울: 文賢社, 1987), pp. 122~24.

월 제6차 내각(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 구성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幹部들의 成分을 분석해 보면 1977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1.5세대라고 할 수 있는 빨치산 소년대원 출신들(군부 요원)이 부상하고,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군과 기술관료 포함)이 부상하였다. 노·장·청 배합원칙에 따라 장년층이 김정일의 지지속에 부상하되 우선 軍部要員들이 먼저 부상한 것으로 보여진다. 1960년대까지 국제환경, 한반도 환경에 따라 군부가 부상한 것과는 달리, 1970년대 후반 군부는 김정일 승계체제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부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장·청세력의 등장과정에서 經濟技術官僚들의 부상이 두드러지는바, 이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더욱 뚜렷해진다. 그러나 군부나 경제관료의 등장과정에서 공통적인 것은 주체사상, 즉 이념성을 1차적 기준으로 하여 총원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경제관료와 군부지도자가 새로이 총원되어 부상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 지도조직인 당은 어떠하였는가? 80년대 중반 북한은 도당책임비서와 인민위원장을 한 사람이 겸임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고, 이후 도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이 정치국 위원으로 진출하는 빈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90년에는 이들이 중앙인민위원으로까지 들어가게 된다.<sup>105)</sup> 물론 도 경제지도위원장이 정치국 위원으

---

105) 金南植, “北韓의 權力構造變化展望,” 統一院, 「統一問題研究」, 第3卷 1號

로 진출하는 빈도도 높아졌다.

이것은 결국 黨, 經濟, 軍 모두를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당에 대한 충실성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고 곧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고, 간부층원도 김정일의 노선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사람들은 1세대와는 달리 북한정권 수립 이후 교육을 받으면서 專門教育을 통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육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김정일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紅과 專을 겸비한 새로운 계급으로서 2중관료들이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sup>106)</sup>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은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김정일 후계체제를 중심으로 권력엘리트가 정비되어 왔고 이들 권력엘리트들간에 파벌이나 반대파의 형성이 정책적으로 배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3) 金正日과 주체사상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였던 맑스-레닌주의는 1970년대 초부터 그 位相에 變化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증거는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및 1972년에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sup>107)</sup>이다. 이것

---

(1991 봄), pp. 23~4.

106) 도홍렬, “엘리트형성과 순환,” 도홍렬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246~47.

107) 사회주의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은 북한에서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맑스-레닌주의가 주체사상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1970년대 초부터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승격시키기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는 1974년 2월 25일 「당선전선동부문 일군들의 회의와 강습」을 통해 「당사상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기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였고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sup>108)</sup>을 제시하였다.

왜 김정일은 맑스-레닌주의의 위치를 격하시키고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려고 하였는가? 이것은 김정일승계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그 목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이 ‘영구불변의 진리’인 주체사상을 繼承·發展시킨 장본인이라는 인식을 인민들에게 주입함으로써 後繼者로서의 正當性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김정일 反對派들을 肅清 내지는 牽制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됨으로써 소외된 김영주·김성애그룹과 일부 혁명1세대와 군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이 ‘주체’를 내세워 반대

---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더불어 주체사상을 당의 공식이데올로기로 명문화시켰다. 「근로자」(1973.1), p. 29.

108) 10대원칙은 첫째, 김일성주의에 의한 전사회의 일색화 원칙 둘째, 충성의 원칙 셋째, 절대성의 원칙 넷째, 신조성의 원칙 다섯째, 무조건성의 원칙 여섯째, 통일단어의 원칙 일곱째, 품모·방법·작품의 원칙 여덟째, 정치적 생명의 원칙 아홉째, 조직규율의 원칙 열째, 대를 잇는 원칙 등이다.

파를 숙청했던 것처럼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반대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1974년 4월에는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철학적 외피를 입히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1976년 10월에는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여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정일에 의해 심화·발전되면서 김일성은 더욱 ‘신격화’되었고 이것은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나. 金正日體制 構築期(1981~현재)

##### (1) 金正日 支持엘리트體制的 構築

김일성은 승계체제구축작업의 완성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확인하였다. 1980년 10월 10일에서 14일까지 북한에서는 로동당 제6차대회가 열렸고 이 대회를 통해서 김정일은 대내외적으로 후계자임이 공식화되었다. 그는 당비서국의 秘書로 任命되었고 서열 4위의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군사위원회의 서열 3위라는 막강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사실상 김정일은 이때부터 당·정·군 각부문의 일군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즉 김정일엘리트들을 각부문에 충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6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당지도부 조직개편의 특징은 먼저 종래의 당중앙위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바꾸고 그안에 ‘상무위원회’를 신설하

여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치국의 구성원을 5차 당대회(정치위원 16명, 정위원 11명, 후보위원 5명)때보다 대폭 늘린 점으로, 6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위원 34명(정위원 19명, 후보위원 15명)을 임명함으로써 정치국을 대폭적으로 확장하고 5인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모든 核心的 機能을 集中시키는 措置를 취하였다.

제6차 당대회의 人物構成의 特徵을 살펴보면 신임 정치국위원 34명 중 군부가 9명(26%)으로 5차 당대회때의 3명(18%)보다 증가하여 군부세력의 지도부진출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당중앙위원수는 5차 당대회의 1백72명에 비해 76명이 증가하였는데 선출된 중앙위원 중 70.6%인 1백75명(정위원 93명, 후보위원 82명)이 신진인물로서 지도부의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sup>109)</sup>

이와 같이 1970년대부터 김정일의 지지자로 구성되는 지도부의 大幅的인 世代交替가 進行되고 있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로들을 제외할 경우, 지도부의 빈번한 교체가 있었으나 숙청된 자는 없고 계속적인 任命과 召喚을 거듭하고 있다.<sup>110)</sup> 이것은 19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서 북한정치체제의 기본골격이 형성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승계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에서, 즉 북한의 정치가 일정한 안정성

---

109) 이상 제6차 당대회에서 이루어진 당지도부 개편에 대해서는 「로동신문」, 1980. 10. 15 참조.

110)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 14.

을 획득한 기반위에서 북한이 經濟發展問題와 對外關係 擴大問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북한에서는 경제침체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권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권과 經濟隔差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후계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인민들의 生活向上을 重點事業으로 설정하고 경공업우선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외 관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4년 합영법제정을 계기로 전문기술관료들을 대거 등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1980년대의 경제중시 정책으로 기계공업 및 군수공업분야의 경제전문가인 현무광이 당비서로 기용되었다(1981년). 1982년의 제7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에 임춘추, 중앙위원은 15명으로 당비서 현무광, 윤기복과 도당비서 이근모, 강희원 등이 새로 기용된 반면에 홍시학, 계응태, 김만금 등이 교체되었다. 정무원총리에 경제전문가인 이종욱이 선출되었으며 13명의 부총리 중 강성산, 계응태, 허담, 정준기, 공진태, 홍시학 등이 대부분 유임된 반면, 농업전문가인 서관희 대신 김창주(평북 용성시 당책임비서)가 새로 기용되었다.<sup>111)</sup>

1983년 당 제6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비서(10명 중 김일성, 김정일을 제외한 4명이 경제담당비서) 중 김환과 윤기복이 부총리와 평양시 인민위원장으로 각각 전보되고 그 자리에 평양시 경제지도위원장이던 안승학(경공업 담당비서)과 정무원 노동행정부장이던 최희정(계획재정 담

---

111) 「로동신문」, 1982. 4. 6.

당비서)이 기용되었는데<sup>112)</sup> 이들이 技術官僚라는 사실은 당비서가 專門化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8차 전원회의에서도 정치국 후보위원 허담(부총리겸 외교부장)이 정치국 정위원으로 승진되고, 안승학 당비서와 홍성룡, 김복신 부총리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기용됨으로써<sup>113)</sup> 경제전문관료들이 黨으로 流入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1984년은 經濟政策變化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시기로서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1월 25~27일), 당 제6기 9차 전원회의(7월 6~9일) 및 10차 전원회의(12월 4~10일)가 개최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에서는 1976년 12월 이래 만 7년 동안 정무원 총리직에 있던 이종옥이 국가부주석으로 전보되고, 제1부총리 강성산이 총리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김일성의 친·인척인 강성산으로 하여금 과감한 경제개혁을 실시하도록 배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한 行政改編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세웅(평양도당 책임비서)이 부총리로, 김복신이 부총리 겸 경공업위원장으로, 김창주가 부총리겸 농업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되었고 3명의 부총리가 증원(총10명)되었다. 아울러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경제정책위원회'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경제발전에 대한 김일성·김정일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당 제6기 9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 및 후보위원과 검사위원 일부가 보선(9명)되었다. 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박남기가 당비서로 기용되고 당중앙위원 및 후보위원과 검사위원 일부가 보선(11명)되었다.

---

112) 「로동신문」, 1983. 6. 18.

113) 「로동신문」, 1983. 12. 2.



이러한 빈번한 인물교체는 1986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당 제6기 11차 전원회의(1986년 2월 5~8일)에서 공진태, 홍성룡, 안승학 등 3명이 당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해임되고, 후임으로 1986년 2월초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에 기용된 홍성남, 부총리 겸 채취공업위원장인 홍시학이 선출되었다. 또한 당비서국도 개편되었는데 연형묵, 안승학, 김종린이 비서직에서 해임되고 김환(정치국위원), 이근모, 계응태(정치국후보위원)가 임명되었다.<sup>114)</sup>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11월 29일)에서는 국가주석으로 김일성이 재선출되었고 부주석으로 박성철, 임춘추, 이종욱 등 3명이 유임되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던 지창익이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에 이용익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당비서로 자리를 옮긴 강성산의 뒤를 이어 정무원총리에 이근모가 새로 기용되면서 국가검열위원장도 전문섭에서 현무광으로 교체되었다. 정무원 제1부총리에 홍성남이 임명되었고, 홍시학, 현무광이 부총리에서 해임되어 정무원 부총리는 6명으로 축소되었다.

1988년에 이르러 당 제6기 13차 전원회의(3월 7~11일) 및 14차 전원회의(11월 28~30일),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제8기 4차회의(12월 12일)가 개최되었다. 13차 전원회의(3월 7~11일)에서는 당비서 계응태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위원으로 승격되었고 당중앙위원에 11명, 후보위원에 21명이 보선되었다.<sup>115)</sup> 14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종린과 박남기가 당비

---

114) 「로동신문」, 1986. 2. 10.

115) 「로동신문」, 1988. 3. 12.

서로 재임용되었고, 당비서 전병호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위원으로 승격되었으며 자강도 행정 및 경제위원장 한성룡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대남담당비서였던 김종린이 87년 3월부터 중앙통신사 사장으로 있다가 다시 당비서로 복귀하였다.<sup>116)</sup>

1988년 최고인민회의 제8기 4차회의(12월 12일)에서는 총리인 이근모가 해임되고 당정치국 위원 겸 비서인 경제전문가 연형묵이 기용되었다.<sup>117)</sup> 그외에 당 제6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근모가 정치국 위원에서 해임되고 총리에 기용된 연형묵의 뒤를 이어 한성룡이 비서로 보선되었으며 현준극이 「로동신문」 주필에 임명되었다.

1989년 당 제6기 16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후보위원을 보선한 것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으나 1986년에 이용무가 현무광 대신 당검열 위원장으로 기용되었고<sup>118)</sup> 김용순이 당국제부장에 임명되었다.<sup>119)</sup> 또한 정무원개편과 함께 평양시당책임비서 강희원이 부총리로 추가 증원되고 조세웅이 해임됨으로써 부총리는 8명(김영남, 김복신, 정준기, 김창주, 김윤혁, 김환, 홍성남, 강희원)이 되었다.

1990년에 들어와 최광, 한성룡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위원으로 승격되었고, 홍성남은 후보위원으로 강등되었으며 허담이 비서에서 해임되고 윤기복은 1월에, 김용순은 5월에 비서로 임명되었다. 정준기가 부총리에서 해임되고 최영림, 김달현, 장철이 5월에, 홍시학이 10월에 추가

---

116) 「로동신문」, 1988. 12. 2.

117) 「로동신문」, 1988. 12. 13.

118) 「로동신문」, 1989. 6. 9.

119) 「로동신문」, 1989. 6. 10.

임명되었다. 김정일은 대외경제활성화를 위해 1992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에서 친·인척이면서 개혁지향적인 인물들과 충성자들을 등용하였다. 즉 연형묵대신 강성산이 총리로 기용되었고, 김달현과 김용순이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김국태와 김기남이 당비서국 비서로, 장성택이 당중앙위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홍시학은 부총리에서 탈락되었고 금속공업부장 최만현과 화학공업부장 주길본이 해임되고 최영림과 김환에 의해 대체되었다. 1992년 12월 현재 부총리는 김영남, 최영림, 홍성남, 김복신, 강희원, 김윤혁, 김달현, 김환, 김창주, 장철 등 총 10명이 되었다. 역대 총리(수상) 및 부총리(부수상)수의變動狀況은 <표 2-3>과 같다.

官僚交替過程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첫째, 비록 정무원총리가 실질적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부터 이

<표 2-3> 역대 정무원(내각)의 구성 및 변천개요

	총 리 ( 수 상 )	부총리 (부수상)
1차 (1948. 9. 9)	1	3
2차 (1957. 9. 20)	1	6
3차 (1962. 10. 23)	1	8(7+1)*
4차 (1967. 12. 16)	1	8
5차 (1972. 12. 28)	1	6
6차 (1977. 12. 15)	1	6
7차 (1982. 4. 5)	1	13
8차 (1986. 12. 12)	1	9
9차 (1990. 5. 24)	1	10
1992. 12 현재	1	10

주: \* 제1부수상제 신설(1959년 1월 20일)

출처: 梁性喆, 「北韓政治論」(서울: 博英社, 1991), p. 90.

종옥, 강성산, 이근모, 연형묵 등 經濟官僚들로 보임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중시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무원 부총리들의 교체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이는 부총리의 역할이 주로 경제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경제발전과정에서 試行錯誤를 되풀이해 왔음을 의미한다.<sup>120)</sup> 셋째, 1992년 현재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는 당비서국은 專門官僚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향후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 시대보다 經濟中心體制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김정일의 軍에 대한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그는 軍元老들을 優待하는 방식으로 軍을 장악해 온 것으로 보인다. 즉 1982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에서 인민무력부를 정무원산하로부터 중앙인민위원회 직속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1985년 4월 13일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시키고, 상장인 오극렬, 백학림, 김두남, 이을설, 주도일, 김봉울, 김광진, 이두익 등 8명을 대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들 중 오진우는 1992년 4월 20일에 김정일과 함께 원수로, 주도일 등은 차수로 승진하였다. 또한 김정일의 軍에서의 公式地位도 강화해 왔다. 김정일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1년 12월 인민군 총사령관, 1992년 4월 원수가 됨으로써 軍에 대한 권력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였다.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 의하

120) 崔星, “北韓의 權力엘리트에 대한 構造分析과 그 政策的 展望,” 統一院, 「北韓·統一研究論文集 IV」(서울: 統一院, 1991), p. 48.

면 국방위원회에 관한 절이 신설되었다. 구헌법 제93조에는 ‘주석은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헌법 제111조에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제113조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헌법과는 달리 주석이 국방위원회위원장을 맡는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석이 아닌 자도 국방위원회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곧 김정일이 合法的으로 軍權을 장악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 (2) 주체사상 해석권자로서의 金正日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헌법 4조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1992년 4월 9일에 개정된 헌법 3조에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맑스-레닌주의는 공식적으로 북한내에서 사라지고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이 당과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되었다. 주체사상이 북한인민을 규제하는 유일한 中心價値體系가 된 것이다.

그동안 주체사상은 김일성이외에는 누구도 수정하거나 해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2년 3월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sup>12)</sup>를 발표하였는

바, 이는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체계화시킨 思想家일 뿐 아니라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김정일의 사상가적 자질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재해석하거나 강화시킨 80년대의 주요 논문은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10),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1983.5),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 등을 들 수 있다. 1986년의 논문에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주체사상의 주요 부분으로 첨가되었는바, 김일성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創造하는 ‘神’으로 승격됨으로써 주체사상이 宗教理念化하는 계기가 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김일성이 1986년 5월 31일 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 기념연설에서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고 천명한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즉 이 논문을 통해 김정일이 주체사상의 해석권자로 되었고 김정일의 위치가 ‘수령’인 김일성의 위치만큼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김정일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5),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1992.1),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1992.10) 등의 논문을 통해 주체사상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첨가해 나가면서 후계

---

12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pp. 124~59.

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혀가고 있다. 물론 김정일의 이름으로 주요 논문들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구소련·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개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처였다. 즉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인민들의 사상동요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다.

### 3. 北韓의 權力엘리트 統合過程의 特徵

지금까지 고찰해 본 북한 권력엘리트의 통합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김일성은 解放後 북한내 지지기반이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後援과 빨치산출신 특유의 위기타개능력을 발휘하여 국내파를 비롯한 諸 派閥과의 鬪爭을 勝利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둘째, 김일성은 政敵을 肅清하는 명분으로서 ‘자주’, ‘주체’ 등을 내세움으로써 본인의 獨裁體制와 父子世襲體制를 정당화하는 機制로 삼았다.

셋째, 김일성은 그의 死後批判에 대한 공포에서 早期에 權力承繼體制를 構築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즉 1958년경에 이미 파벌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김일성으로서는 소련·중국 등에서 발생한 전임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을 예방하기 위해 親子인 김정일에게 권력을 세습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권력세습을 보다 확고히하기 위하여 하위엘리트들을 충성파들로 충원하거나 최소한 2중관료들을 등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專門 官僚들도 黨性에 기초하여 등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정치체제의 이러한 성격은 북한체제변화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최소한 김일성 生存期間에는 기존의 성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노선갈등이나 권력투쟁같은 不協和音은 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일성이 사망하더라도 김정일이 長期間 準備해 온 정치적 기반 때문에 단기·중기적으로는 지도부의 균열에 기인한 체제동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결론이 북한체제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 體制崩壞에 이를 정도의 급속한 改革과 開放은 하지 않을 것이나, 체제유지의 범위 내에서는 選擇的이고도 慎重한 變化는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 第Ⅲ章 北韓의 權力엘리트 統合構造

前章에서는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와 김정일세습체제 확립과정을 분석하였다. 본章에서는 현재 북한의 黨·政·軍 간부급 인물들을 분석함으로써 권력엘리트가 어떤 구조로 統合되어 있으며 향후 북한에서 파벌이 형성될 可能性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權力承繼와 權力엘리트 統合

##### 가. 獨特한 承繼構造를 통한 統合

현재까지 북한을 제외한 사회주의국가에서 後繼者로 指名 또는 內定되었던 사람은 모두 11명이었다. 즉 불가리아의 체르벤코프(Chervenkov), 舊蘇聯의 말렌코프(Malenkov)·브레즈네프(Breznev),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Ceausescu), 동독의 호네커(Honecker), 월맹의 레 두안(Le Duan), 中國의 劉少奇·林彪, 유고의 랑코빅(Rankovic), 체코의 코즐로프(Kozlov), 헝가리의 오차브(Ochab) 등이다. 이상 11명 중 2명이 前任者 生前에 前任者를 背信하여 그들로부터 權力을 奪取했고(브레즈네프와 호네커), 3명이 찬탈사건과 연루되어 逐出되었으며(랑코빅, 劉少奇, 林彪), 2명이 전임자의 생존중에 이미 그들의 신임을 잃어 버렸다(말렌코프, 코즐로프).

성공적으로 승계한 나머지 4명(체르벤코프, 오차브, 차우세스쿠, 레 두

안)도 레 두안을 제외하고는 前任者 死後에 배신하였는데, 이는 前任者와 後任者가 相剋關係에 놓이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相剋關係가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승계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sup>122)</sup>

舊蘇聯에서는 레닌의 의도와는 달리 권력이 스탈린에게 승계되었고, 스탈린은 말렌코프를 신임하였으나 후르시초프가 승계하였다. 후르시초프는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이것은 지도자의 교체가 곧 점진적 혹은 급진적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한편 中國에서는 毛澤東의 후계자로 劉少奇와 林彪가 각각 거론된 바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특히 林彪는 1971년에 모반하려다 실패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毛澤東은 生前에 後繼者를 지명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舊蘇聯과 中國의 경험에서 死前·死後의 安全을 위해서는 親子에게 권력을 移讓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은 國父로서 자신의 존재를 후대에까지 확실하게 계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의 가계를 우상화하고, 家産制(Patrimonialism)적 家父長制度<sup>123)</sup> 하에서처럼 그의 권력을 장자인 김정일에게 相續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

122) 허경구, 「북한의 체제적 변수가 권력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서울: 국토통일원, 1977), pp. 5~6.

123) 한국의 가산제에 관해서는 박성환, “한국의 가산제 지배구조와 그 문화적 의미,” 유석춘 편, 「막스베버와 동양사회」(서울: 나남, 1992), pp. 359~90 참조.

이러한 父子間 權力世襲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입헌군주제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승계구조이다. 물론 앞의 예에서처럼 일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권력을 승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그나마 親子가 아닌 동료나 후배에게로의 권력승계 시도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부자세습은 獨特한 樣態라고 할 수 있다.

또한「비준제도」<sup>124)</sup>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에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事前에 충원에서 排除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체제하에서의 권력엘리트들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공고한 全一的 體系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김정일 세습체제를 보위하고 있는가는 다음 절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 나. 長期的인 承繼準備를 통한 統合

獨裁者들은 집권기간중에는 군사쿠데타나 궁정혁명에 대한 恐怖로 인해 권력엘리트들간에 서로 철저히 견제하도록 만들고 暴力機構를 통해 이들을 감시·통제한다. 또한 재임중 모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제2인자를 양성치 않는 경향이 있다.<sup>125)</sup>이러한 결과 2인자에 대한 지명기간이 짧

124) 이 비준제도체제는 각급 당기관에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기구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승진하도록 되어 있다.

125) 毛澤東은 제2인자로 林彪를 지목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2인자를 양성치 못한 채 사망하였다. 崔明, 「現代中國의 政治」(서울: 法文社, 1974), pp. 14~7.

아 그가 충분히 권력기반을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자가 사망하여 권력이 곧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후계자 지명이 非公式的으로 당사자간에만 진행되어 여타 지도자들이 그 합법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곧 권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다. 스탈린 死後 베리아와 말렌코프, 毛澤東 死後 華國鋒의 경우가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김일성은 그가 60세, 김정일이 30세였던 1972년부터 이미 당내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하였고, 그 후 20여년 동안 黨·政·軍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權力基盤을 다져 주었다.<sup>126)</sup> 이러한 과정에서 김정일은 아버지의 절대화는 곧 본인의 절대화라는 同一視政策을 구사했고 그러한 정책은 권력엘리트 층원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결국 북한은 승계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舊蘇聯이나 中國과는 달리 歸屬主義에 根據하여 엘리트층을 충원하였고, 承繼準備期間의 長期性으로 인하여 권력엘리트간의 응집력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 2. 權力엘리트 統合의 構造分析

### 가. 親·姻戚 族閥構造

中國이나 舊蘇聯과는 달리 김일성권력의 주요한 特徵은 權力的 核心

126) 김정일의 권력기반에 대해서는 全賢俊, “金正日の 權力基盤과 政策方向에 관한 研究,” 「統一研究論叢」, 創刊號 (1992.6), pp. 1~21 참조.

部署에 親·姻戚들이 多數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일성이 그의 권력을 친동생인 김영주에게 전수하려고 의도했던 것이나 현재 親子인 김정일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은 북한권력구조의 대표적인 特徵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일의 친·인척들은 要職에 있으면서 김일성-김정일의 세습체제를 어떤 다른 엘리트들보다도 충성스럽게 지탱해주고 있다.

남한과는 달리 자유주의적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북한에는 家産制的 傳統이 사회전반에 잔존해 있어서 族閥的 統治가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일한 가산제의 영향을 받은 中國도 이러한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근 ‘太子黨’이라는 기득권층이 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sup>127)</sup>

대표적인 친·인척들은 김정일, 김성애, 박성철, 양형섭, 황장엽, 강현수, 김정숙, 김중린, 김창주, 김봉주, 김용순, 김경희, 장성택, 김평일, 강성산, 강덕수, 강인수, 김정우, 김달현, 강석승, 강영섭 등 20여명에 이른다.<sup>128)</sup>이들을 정리해 보면 <표 3-1>과 같다.

127) 「世界日報」, 1992. 9. 28.

128) 日本의 北東亞問題研究所所長인 金元奉은 36명을 들고 있다. 金元奉, “「元帥·金正日」のツ-ワレット・ブ-ツ,” SAPIO (1992.6.11), pp. 72~5.

〈표 3-1〉 김일성 관련 親·姻戚

성명	관계	직위	당서열
김일성		총비서 국가주석 당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인민위원회 수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당군사위원회 위원장 공화국 대원수	1
김정일	김일성의 장남	당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당조직지도부장 당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군 총사령관 공화국 원수	2
강성산	김일성의 이종동생	당정치국 위원 정무원 총리	4
박성철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사위	국가부주석 당정치국 위원	5
김달현	김일성 오촌 조카사위	당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무역부장	14
김용순	김일성의 전처 김정숙의 남동생	당정치국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당국제부장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19
황장엽	김일성의 조카사위	당중앙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조평통 부위원장	27

〈표 3-1〉 계속

성명	관계	직위	당서열
김중린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처의 인척	당중앙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대남공작의 총책임자 최고인민회의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28
김창주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아들	당중앙위원회 위원 정무원 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 위원	32
강석승	김일성의 외척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역사연구소장	38
양형섭	김일성의 고종사촌 김신숙의 남편	최고인민회의 의장 당중앙위원회 위원	42
김봉주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아들, 김창주의 동생	당중앙위원회 위원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국장	51
강현수	김일성의 외삼촌 강용석의 아들	당중앙위원회 위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황북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01
장성우	장성택의 친형	당중앙위원회 위원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104
김성애	김일성의 처	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위원장	116
김경희	김일성의 장녀, 장성택의 처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경공업부장	173

〈표 3-1〉 계속

성명	관계	직위	당서열
이용무	김일성의 조모 이보익의 조카	당중앙위원회 위원 교통위원회 위원장	174
김정숙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의 차녀(허담의 처)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조선」지 책임주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91
장성택	김일성의 사위, 김경희의 남편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당근로단체사업부 부장 겸 3대혁명소조부 부장	302
김평일	김일성의 차남, 김성애의 소생, 김정일의 이복동생	前 불가리아 주재대사	
강덕수	김일성의 외삼촌 강보석의 아들	조선방송위 부위원장	
강인수	김일성의 외삼촌 강보석의 아들	화학공업부 부부장	
김정우	김일성의 고종제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교류협력분과위원회 북측위원장	
강영섭	김일성의 외종숙 (강양욱의 아들)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회 위원 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	

나. 形式的 老·壯·靑 三合構造

김정일은 자신의 연령이 낮은 데서 야기되는 權力の 弱化를 우려하여 元老優待政策을 펴왔다. 그가 1992년 4월 20일에 원수에 취임하면서 당



최고원로인 오진우를 동반해서 승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舊蘇聯이나 中國의 정치적 전통이 원로정치이므로 특이한 정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고르바초프 이전 소련에서의 원로정치는 원로들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장년이나 청년을 등용하였다는 점에서 김일성·김정일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예우정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북한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실권자인 김정일이 원로들을 배제할 수도 있지만 각 부문에서 혁명1세대들을 중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엘리트들 上下間의 融合을 통한 권력의 鞏固性 培養에 커다란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노(60~70대), 장(50대), 청(30~40대)의 각 세대를 垂直的으로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129)</sup> 노년층은 주로 군부 세력들로서 김일성 세대들인바, 김일성의 모든 노선을 지지하고 따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경력에 대해 自矜心을 느끼고<sup>130)</sup> 가능한 한 이러한 전통을 後代들에게 전수하여 ‘反帝鬭爭’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아울러 이들은 김일성의 튼튼한 권력기반이면서 동시에 김정일의 권력기반이기도 하다. 물론 때로는 김정일에 대한 고풍을 제공하는 善意의 牽制勢力들이다. 대표자들로는 오진우(인민무력부장, 원수), 박성철(부주석), 최광(총참모장, 차수) 등이다.

129) 坂井隆, “金正日の 權力基盤,” 朴漢植 編, 「北韓의 實相과 展望」(서울: 同和研究所, 1991), p. 56.

130) 1992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 60돐을 기념하는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의 연설 참조. 「로동신문」, 1992. 4. 25.

中國에서도 혁명1세대들의 自然死함에 따라 李鵬, 朱鎔基 등의 장년들로 世代交替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中國에서의 세대교체는 일면 理念이나 政策의 變化라는 잠재요인을 안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양상이 약간 다르다. 즉 북한에서의 장년은 철저히 김일성-김정일노선에 충실한 先黨性 後專門性의 원칙에 의해 등용된 자들이다. 장년들은 대체로 1975년초부터 김정일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한 3대혁명소조운동의 지도세대들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에 젖어 있던 既存勢力을 비판하고 新世代의 진출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김정일의 권력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1)</sup> 당시 이 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자들이 오늘날 전문기술관료세력으로 浮上해 활동하고 있고, 그 중 대표적 인물은 연형묵이라 할 수 있다.

청년들은 1970년대초 3대혁명소조담당자들로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등장한 세대들이다. 그러나 이들도 연령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등용된 것이 아니라 충성심의 정도에 의해 선발되었기 때문에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면에서는 혁명1세대들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32)</sup> 그 대표적 인물은 장성택이다.

---

131) 리길송, “3대혁명소조운동은 위력한 혁명지도방법,” 「근로자」(1982.5), p. 31. “특히 3대혁명소조원들은 간부들을 적극 일깨워 주고 도와주어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과 낡은 사업방법에서 벗어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쾌기있게 벌려 나가도록 하였다. …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의 친위대, 근위대로 자라난 것은 우리당의 위력과 전투력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여 3대혁명소조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다. 黨 中心의 一元的 構造와 重疊構造

舊蘇聯이나 中國의 경우 최고통치권자라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各 部門의 元老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集團指導體制 形式으로 통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택동도 실제로는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였고 등소평도 평당원으로 활동하면서 ‘6老’의 협조하에 정책을 집행하였었다. 舊蘇聯의 고르바초프도 완전히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여 1991년에 쿠데타를 당하였고 결국 그는 엘친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권력의 3요소를 지탱하는 당·정·군을 수평적으로 포괄하고 있다.<sup>132)</sup>

黨優位 國家인 북한에서는 黨權掌握이 권력장악에 필요한 선결요소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당권장악의 의미는 정치국은 물론 비서국의 장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로동당규약」 26조에 “비서국은 필요시 당 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고 되어 있어 그 권한이 실질적으로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고권력자인 김일성이 직접 총비서를 맡고 있

---

132) 리길송, “3대혁명소조운동은 위력한 혁명지도방법,” p. 31. “3대혁명소조에 망라된 청년인테리들이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속에서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높은 충성심을 지닌 혁명적 인테리로 자라난 것은 참으로 귀중한 성과이다. 그것은 우리당의 간부대렬을 훌륭히 보장할 수 있는 커다란 밑천으로 당의 전투력을 높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133) 坂井隆, “金正日の 權力基盤,” p. 56.

고 제2인자인 김정일이 權限代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국을 실질적으로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당규약은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비서로 등용되면서 당·정·군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이후 김정일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당조직과 기구들을 整備·改編하였다.

김정일은 비서국 중에서도 권력유지의 근간이 되는 「조직지도부」를 통해 暴力裝置인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인민군, 호위총국 등 物理的 強制機構들을 장악하여 엘리트들을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김일성이 지난 92년 4월 12일 「워싱턴 타임즈」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당·정·군 제반 분야에서 사실상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다”<sup>134)</sup>고 밝힌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비서국은 계응태(공안), 전병호(경제), 한성룡(경제), 최태복(교육), 김중린(사회단체), 박남기(경제), 서관희(농업), 윤기복(대남), 김용순(국제), 황장엽(사상) 등 김정일 친위그룹 전문기술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은 비서국은 물론 산하 27개 전문부서와 12개 시·도 당위원장 겸 책임비서들까지 장악하고 있는바, 그 요체는 조직지도부장악과 관련이 있다. 전문부서는 27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중에서도 조직지도부는 實質的인 最高 權力機關이다. 김정일이 직접 부장을 맡고 있는 조직지도부는 13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담당 부부장이 25명이 있

---

134) 이에 대해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은 지난 9월 30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하였다. 1992년 10월 1일자 국내일간지 참조.

다. 이 조직지도부는 국가 전기관과 해당 분야의 당조직을 「3線(당조직계통·행정계통·보위부계통)·3日 報告統制體制」를 통해 지휘·통제하는바, 구체적인 주요 임무는 당생활 지도 및 간부들의 인사 관장, 간부들의 私生活 파악 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135)</sup>

조직지도부의 각 과별 업무영역이 알려진 과 중 제1과는 중앙당요원들의 당생활을 통제한다. 제2과는 외교부, 대외경제사업부, 무역부 등 對外關聯事業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사상과 생활을 통제하고 제7과는 사회안전부 담당, 제10과는 공안·사법·행정 담당, 제13과는 인민군 전체를 담당한다.

특히 제13과는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맡고 있으면서, 군장성의 인사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간부부와 사전 협조하여 軍당위원회(위원장 오진우)와 軍총정치국<sup>136)</sup>을 직접 지도한다. 군부에 대한 통제는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및 인민군 최고사령관이고, 그의 측근인 오진우가 인민무력부장임으로 2중장치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부는 백학림이 맡고 있지만 장성택(김정일의 매제)의 친형 장성우가 사회안전부 정치국장을 맡고 있고, 국가보위부장은 현재 空席이지만 김정일 친매제인 장성택을 임명하려고 할 정도로 이 기구를 철저히 장악<sup>137)</sup>하고

135) 申敬完, “결에서 본 金正日(下),” pp. 439~43.

136) 軍총정치국은 중대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다. 집단군(군단)과 각군사령부에서부터 대대급까지는 지휘기구 안에 정치부를 설치하고 중대급에는 정치부중대장만이 있다. 한편 연대급 이상의 부대에는 군당위원회, 대대급에는 초급당위원회, 중대급에는 세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137) 고영환의 증언. 민족통일연구원 초청 정책세미나(1991.10.10) 「북한의 실상」에서 소상히 밝힌 내용임.

있기 때문에 폭력기구들에 대한 안전장치 또한 비교적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권력은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40명 내외의 권력엘리트들에게 중첩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上位序列의 엘리트들은 당·정·의회·군 등의 요직을 중첩적으로 맡고 있어서 당·정·군간의 융합이 잘 되고 정책의 효율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에서는 舊蘇聯이나 中國 등에서처럼 집단의 이익이나 노선 차이에서 비롯된 집단갈등, 보혁갈등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138)</sup>

---

138) 일부 논자들은 지난 7월 남한의 산업시설을 시찰한 김달현과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연형묵 등을 '실용주의파'로 분류하면서 남한에 대한 비방·중상증지문제의 불일치성을 예로 들어 보·혁갈등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呂永茂, “北韓의 保·革葛藤,” 「東亞日報」, 1992. 9. 27.

〈표 3-2〉 北韓 權力엘리트의 重疊構造

※ 대의원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성명	당	통치기구
김일성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총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장	국가주석 대의원 중앙인민위원회 수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대원수
김정일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 조직지도부장	대의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공화국 원수 인민군 총사령관
오진우	정치국 상무위원 군사위원회 위원	대의원 인민무력부장 공화국 원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강성산	정치국 위원 정무원 총리	대의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이종옥	정치국 위원	대의원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박성철	정치국 위원	대의원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연형묵	정치국 후보위원	대의원 자강도당 책임비서 및 인민위원장
김영남	정치국 위원	대의원 정무원 부총리
계웅태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대의원
전병호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대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표 3-2〉 계속

성명	당	통치기구
한성룡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대의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최광	정치국 위원	대의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군 차수
서윤석	정치국 위원	대의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최태복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대의원
최영림	정치국 후보위원	대의원 정무원 부총리 금속공업부장
홍성남	정치국 후보위원	대의원 정무원 부총리
김철만	정치국 후보위원	대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대장
김복신	정치국 후보위원	대의원 정무원 부총리
강희원	정치국 후보위원	대의원 정무원 부총리
조세웅	정치국 후보위원	대의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홍시학	정치국 후보위원	대의원 정무원 부총리
이선실	정치국 후보위원	대의원
김용순	당정치국 후보위원 당국제부장 비서국 비서	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표 3-2〉 계속

성명	당	통치기구
박남기	비서국 비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대의원
서관희	비서국 비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대의원
황장엽	비서국 비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대의원
김중린	비서국 비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대의원
정준기	당중앙위원회 위원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윤기복	당중앙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대의원 조평통 위원장
오극렬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군사위원회 위원 당민방위부장	대의원 인민군 대장 대의원
백학립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군사위원회 위원	사회안전부장 대의원 인민군 차수
양형섭	당중앙위원회 위원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김봉울	당중앙위원회 위원	대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차수
이을설	당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	대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차수
주도일	당군사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	대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차수

〈표 3-2〉 계속

성명	당	통치기구
전문섭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군사위원회 위원	대의원 인민군 대장
이두익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군사위원회 위원	대의원 인민군 차수
김두남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군사위원회 위원	대의원 인민군 대장
김강환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군사위원회 위원 당군사부장	인민군 상장
김광진	당중앙위원회 위원	대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차수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명록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군사위원회 위원	대의원 인민군 대장
이봉원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군사위원회 위원	대의원 인민군 대장
김일철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군사위원회 위원	대의원 인민군 대장
최상욱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군사위원회 위원	대의원 인민군 상장
이하일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 부장	대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대장

### 3. 權力엘리트의 個人別 分析

#### 가. 黨 엘리트

당 우위의 체제인 북한에서 黨權掌握은 곧 權力掌握으로 이어진다.<sup>139)</sup> 黨은 김정일이 1964년 김일성대학 卒業後 最初로 진출한 북한의 공식기구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이 당에서 그의 청년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黨權掌握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는 당 위상확립과 관련해 1992년 1월 「당적 지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행정부의 독선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sup>140)</sup> 또한 김정일의 당내 위상과 그의 당에 대한 애착과 함께 김정일지지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기관이 당이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46)의 남편이자 김일성의 사위인 장성택(47)은 1945년 咸北 어랑군에서 태어나 북한의 엘리트 코스인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일성고급당학교를 나왔다. 중앙당 27개 부서 가운데 3대혁명소

---

139) 1992년 4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黨·政·軍은 김일성과 후계자인 김정일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140) 김정일은 1992.1.5.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에서 “당의 <행정화>를 반대하고 국가정권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높인다는 구실밑에 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경향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고 말하여 당의 관료주의화, 행정화를 비판하는 한편, 정부의 독주에 대해 강한 제동을 걸었다.

조부, 근로단체부, 청년사업부 등 중요한 3개 부서의 부장을 맡고 있는 核心人物이다. 그는 당내에서 ‘장부장 동지’로 통하고 있으며 1985년 7월 40세에 당중앙위 청년사업부 제1부부장에 올랐으며 1988년 12월에 청년사업부장으로 승진하였고, 1989년에는 평양축전의 總責任者로 任命되었다.<sup>141)</sup> 그가 이처럼 高速昇進을 하게 된 배경은 김일성의 사위라는 점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個人的 能力이 特出하고 엘리트의 基本條件인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사회에서의 승진조건인 背景과 能力을 兼備한 대표적인 엘리트이다. 성격이 원만하고 화술도 능해 김정일의 구상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이 불가능한 最惡의 事態가 發生할 경우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42)</sup>

다음으로 김국태(74)는 만경대혁명학원 1기생으로 6·25때 戰死한 김책의 큰아들이다. 김일성대학 졸업과 함께 모스크바대학으로 유학한 전문관료 1세대로서 철저한 당료파이다. 당이론가의 한 사람인 그는 1967~73년까지의 선전선동부장시절 정치·사상·선전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당역사연구실을 ‘김일성연구실’로 개편하는 등 黨唯一思想體系 確立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김정일의 계모 김성애와 삼촌 김영주를 축출하여 김정일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는

141) 北韓研究所, 「北韓人名辭典」(서울: 北韓研究所, 1991), pp. 733~34.

142) 高英煥, “眞相! 北韓의 實勢 金正日·金正一그룹,” 「新東亞」(1991.11), p. 384.

상징에 의한 통치의 기본인 초상화걸기에 김정일을 추가하도록 하여 김정일을 首領化하는데 主役割을 하였다.<sup>143)</sup>

오늘날 북한체제를 유지해 주는 두개의 理念的 基礎는 주체사상과 反美主義이다.<sup>144)</sup> 그 중에서도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의 모든 측면을 규정하는 聖經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이 창시하였고 김정일이 종합체계화하였다고 宣傳하고 있다.<sup>145)</sup> 그러나 이것은 그의 학문적 능력과 시간면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 內容의 龐大性으로 보아 實質的으로 주체사상을 제작한 사람들은 다수의 思想專門家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들은 황장엽(당서기, 사상담당)과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의장)이다.

1925년 함경북도 주을에서 태어난 황장엽은 김일성의 조카사위로서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1952년 모스크바대학에서 哲學을 專攻하였다. 歸國後 1954년 10월 김일성대학의 哲學講座長을 맡으면서 사상·이론적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에 ‘사상에서의 주체’를 표방하기 시작하였는바, 김일성대학의 철학강좌장이 理論的 補助를 했을 것이라는 유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는 1972년 12월 40대의 젊은 나이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되었고 3번이나 연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寄與를 하였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對外關係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실로 1975년 非同盟會員國이 되었다. 이 시기에 황장엽은 최고인민회의

143) 「世界日報」, 1992. 2. 12.

144) 주체사상은 이념적 강령이고 反美主義는 실천적 강령이라 할 수 있다.

145) 탁진 외, 「김정일지도자 II」 (동경: 동방사, 1984), p. 362.

대표단장, 정부대표단장, 당대표단장, 주체사상토론회 대표단장 자격으로 20여회에 걸쳐 30여개국을 방문하여 주체사상연구회를 만드는 등 소위 인민외교를 전개하여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 또한 그는 김정일우상화에 주력하여 김정일의 출생지를 백두산밀영으로 造作하였고 각종 說話나 傳說을 造作하였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그는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당서기로 발탁되었고 국내의 사상관련업무는 물론 해외의 주체사상연구회까지 관할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각종 행사시마다 海外 친북인사를 김일성-김정일 경배단으로 假裝하여 인민들의 가식적 自矜心을 높여 김일성 절대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sup>146)</sup>

모든 國家的 事業과 外國으로부터의 提議는 그가 주도하고 있는 당내 주체사상연구팀의 사상검토와 대응논리 개발단계를 거쳐야 하며 황장엽의 정책결정이 있어야 執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남사업이나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제의는 그의 重疊的 濾過過程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그는 朝總聯 한덕수 議長을 비롯한 일본내 유력인사들과의 폭넓은 친분관계로 對日修交의 幕後實力者로도 알려져 있다.

양형섭은 남한의 제주출신으로서 현재 최고인민회의 議長이다. 그는 모스크바 유학시절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와 교분을 갖게 되어 김일성의 사촌누이동생 김신숙(86년 사망)과 결혼하였다. 김영주와 가깝다는 이유로 1980년 당중앙정치위원회(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사회과학원장으

146) 北韓研究所, 「北韓人名辭典」, pp. 766~67; 「世界日報」, 1992. 2. 26.

로 좌천되었으나 198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권력전면에 再登場하였다. 그는 김정일의 후계체제구축에 사상적인 전위대라는 측면에서 황장엽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147)</sup>

한편 당 우위 사회인 북한에서 당노선은 엘리트를 비롯한 인민들의 행동지침이 되고 당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은 곧 반당·반민족·반국가행위가 된다. 한편 북한은 당노선에 대한 당·정·군·인민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실천여부를 당주도하에 감시·감독하고 있다. 그 대표자는 계응태(74, 공안·사법담당 당서기), 김시학(69, 당행정부장)이다. 계응태는 공안·사법·행정 분야의 總責任者이다. 그는 국가보위부장, 사회안전부장, 중앙재판소장, 중앙검찰소장 등에 대한 人事權을 갖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隨行員과 案內員은 대부분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 소속 요원들이다. 두 기관은 남측대표단의 숙소배정에서부터 남측회담대표의 수행원 및 기자들과의 私談範圍, 대표단의 活動範圍, 監視·攻略對象 選定 등에 이르기까지 諸般事業을 黨中央에 보고한다. 그는 본래 당외교와 대외무역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왔으나 對外經濟事業을 主管하면서 대외정보수집·분석에 탁월한 才能을 보였고, 1984년에 김정일이 국가보위부장 김병하를 숙청할 당시 김정일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김병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48)</sup>

김시학은 1923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고 모스크바대학에 유학했다. 1956년 11월 「작가동맹」 외국문학분과위원을 거쳐 1970년 11월 「사로

---

147) 郭承志, “平壤 IPU총회를 주재할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北韓」 (1991.5), pp. 162~70; 北韓研究所, 「北韓人名辭典」, p. 768.

148) 「世界日報」, 1992. 3. 11.

청」위원장에 발탁된 그는 組織力과 報告書作成 能力이 뛰어나 김정일에게 발탁되었다. 1981년 10월부터 당행정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국가보위부 및 사회안전부내의 당위원회사업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sup>149)</sup>

北韓의 立場에서 남한은 주체사상화의 대상지역이다. 김일성은 북한이 봉착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도 ‘미제식민지상태의 질곡’에서 擄取당하고 있는 남한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貯蓄 때문이고,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배체제도 ‘남조선해방’을 위한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라고 人民들을 糊塗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의 통일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問題에 대한 북한 지배층의 집착은 權力維持라는 基本目標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능한 통일문제 엘리트를 養成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의 所願을 成就해야 할 의무를 人間的 측면과 政治的 측면에서 二重的으로 안고 있다. 한편 그것은 결국 인민들의 자신에 대한 절대적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정치역량을 集中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개선이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를 改善시키는 契機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舊蘇聯이나 中國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인 대남담당 엘리트로는 윤기복(66, 비서국 대남담당비서, 조평통위원장), 한시해(58, 조평통부위원장), 권희경(64, 당조사부장), 안병수 등이 있다.

윤기복은 1926년 8월 함경남도 북청태생으로서 教師인 父親을 따라 서

---

149) 「世界日報」, 1992. 3. 11.



올에 와서 수송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보 4년을 중퇴한 후 만주의 전을 나왔다. 해방후 모스크바대학에서 統計學을 專攻했고 1956년 1월부터 인민경제대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전공에 맞게 주로 내각의 경제분야에서 근무하였고 1958년경 김일성의 경제담당비서가 되었다. 그는 1969년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었고 1972년부터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 북측 자문위원으로서 赤十字 本會談에도 참가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81년 5월 조평통 부위원장에 임명되었고 본격적으로 대남 관계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2월에는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장이 되었고, 동년 9월에는 「림수경석방투쟁조선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또한 1990년 1월 5일에는 對南擔當 黨秘書로 임명되었다. 1990년대초는 周邊情勢가 북한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激變期였는바,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시 북방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던 남한과의 관계를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당면과제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방면에 才能을 발휘한 윤기복이 담당 책임자로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는 전권을 장악한 김정일의 意圖를 남북대화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軍部 強硬派의 制動이 있기는 하겠지만 김정일이 견제하는 한, 그도 견제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시해(조평통 부위원장)는 1934년 함경북도 길주에서 출생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1972년 9월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로 참석하면서부터 남북관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후 무대를 유엔으로 옮겨 활동하다가 1989년 7월 조평통 부위원장에 기용되면서 대남·통일문제에서 그의 外交的 力量을 적극 發揮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1월 25일에

는 「법민련」 북측본부 부위원장직에 임명되었다. 또한 5월 23일에는 제 25차 「북미기독교자회의」에 박승덕 주체사상연구소장 등과 함께 참가하여 북한의 유엔가입을 앞두고 카터 前美國大統領을 만나는 등 활발한 對美 外交活動을 벌였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懸案인 핵사찰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을 서방언론에 積極的으로 說明하는 등 허담이 사망한 이후 그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권희경은 윤기복에게 대남정보를 제공하는 대외정보조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이 분야의 총책으로 발탁된 것은 駐蘇大使를 歷任하면서 습득한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련대사시절 매년 1~2회 정도 귀국하여 김정일에게 고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김정일의 信任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이 1989년 평양청년학생축전 준비차 소련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祝典을 成功的으로 마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50)</sup>

안병수는 1930년생으로 김일성대학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南北 高位級會談 北側代辯人으로서 達辯을 驅使하여 北韓의 立場을 說明하여 그의 역량을 과시하였다. 현재 남북고위급회담대표이면서 조평통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임수경문제나 콘크리트장벽 제거문제, 핵사찰문제 등 남한과 관련된 各種 事案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여 북한의 입장을 代辯하고 있다. 향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의 대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전환기적 상황과 관련하여 향후 그의 역할은 더욱 增大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의 김정일 주변엘리트들의 간략한 신상명세는 <표 3-3>와 같다.

150) 「世界日報」, 1992. 3. 18; 北韓研究所, 「北韓人名辭典」, p. 44.

〈표 3-3〉 黨 엘리트

성명	직책	출신지	학력	서열	겸직여부	특징	비고
계응태 (74)	당서기 (공안담당), 정치국 위원	함북	만주에서 대학졸업	8위	최고인민 회의 법안 심의회위원장, 대의원	대외정보수집 분석에 탁월, 국가보위부장 사회안전부장 중앙재판소장 중앙검찰소장에 대한 인사권 장악	
전병호 (68)	당비서 (중공업), 정치국위원	함북	만경대 혁명학원, 김일성 종합대, 모스크바대	9위	국방위원회 위원	전형적인 당료파	
한성룡 (65)	당비서(기계 · 금속), 정치국위원			10위			중공업부 문을 경공 업부문으 로 전환하 는데 선두
김용순 (57)	당비서, 국제부장	함북	김일성대, 모스크바 대	25위	최고인민회 의 외교위 원회위원장, 대의원	솔직하고 친절 한 성격 180cm, 90kg, 「남방정책」 의 기수	
박남기 (64)	당비서(경제) 중공업부부장	황해도	김책공대, 레닌그라 드대	26위	최고인민 회의 예산 심의회위원 회장	통계전문가	김정일이 경제문제 는 반드시 박남기의 심의를 거 치도록 함
서관희 (66)	당비서(농업)	평남	모스크바대	27위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주체농법을 확립	김일성의 측근설

〈표 3-3〉 계속

성명	직책	출신지	학력	서열	겸직여부	특징	비고
황장엽 (67)	당비서(사상)	함북	김일성대, 모스크바대	28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문장력이 뛰어나 남, 김정일의 우 상화에 결정적 역할	김일성의 조카사위, 김정일에게 「제왕학」 강의
윤기복 (66)	당비서,대외 연락부장,조 평통위원장, 조선해외동 포원호위원 장,범민련북 측준비위원 장,임수경석 방투쟁위원 장	함남	민주의전, 모스크바대	34위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제학자 김일 성-김정일 모두 로부터 총애를 받음, 경제·교 육·대남분야 를 섭렵	남북고위 급회담의 실질적인 책임자
김국대 (74)	간부부장, 당부장	함남	만경대 혁명학원, 김일성대, 모스크바대	38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형적인 당료 파, 「당역사연구 실」을 「김일성 역사연구실」로 개편, 김영주와 계모 김성애를 추출하는데 공 훈, 키가 크고 두뇌가 명석 온 화한 성격	김책의 장 남
김강환 (67)	군사부장	평양	만경대 혁명학원	63위			김일성 친 척설
김기남 (65)	선전·선동 부장, 당비서	강원		66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표 3-3〉 계속

성명	직책	출신지	학력	서열	검직여부	특징	비고
김시학 (69)	행정부장	평남	만경대 혁명학원	67위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조직력과 보고 서 작성에 뛰어 남	
임호균 (62)	당작전부장	평북	만경대 혁명학원, 김일성대	76위		이용산테러, KAL기폭파 등 대남테러공작 의 1인자	
권희경 (64)	당조사부장	자강		170위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주소대사역임, 정보분석능력 탁월, 덕이 많아 「권영감」으로 통함	각종고급 정보를 김 정일에게 보고, 장성 택의 후광
장성택 (47)	3대혁명소 조부장, 근로 단체부장, 청년사업부장	함북	김일성대	당중앙 위후보 위원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김정일보다 능 력이 뛰어나다 고 함	김일성사위, 김정일매제
이화선 (56)	조직지도부 2과(외교담 당부부장)		김일성대, 모스크바대	당중앙 위후보 위원		경력은 화려하 지 않음	김정일이 직접 양성
한시혜 (58)	국제부부부 장, 조평통부 위원장	함북	원산농업대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유엔 통	

## 나. 政府 엘리트

舊蘇聯의 정부 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당료들에 비해 實用主義的인 반면 이념적인 면이 약하다. 또한 매사에 적극적이고 參與的이지만 位階的이지 못하였다. 그 결과 당료들과 군부, 문화계 간부, 법관, 경제엘리트같은 전문엘리트 사이에 중요한 정책문제에 관해 意見差異가 있었다.<sup>151)</sup> 한편 中國에서도 원로그룹이 保·革으로 나누어져 있는바, 정부 엘리트들도 이와 비슷하게 보·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sup>152)</sup>

그러나 북한의 정부엘리트들은 이들 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보·혁으로 나누기가 어렵다. 물론 專門家들이 政府內 主要 部署에서 실무를 기획·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黨의 指導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율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 자신들이 엄격한 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體制改革的 思考를 缺如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등용되어 있는 정무원은 1972년에 개정된 憲法에 의해 창설된 기구로서 舊憲法의 內閣에 해당된다.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의 권한이 방대해지면서 相對的으로 地位가 弱화되었으나 행정 집행기구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 권한이 크다. 총리인 강성산(61)의 권력서열이 4위에 올라있다는 점만으로도 정무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

151) Milton Lodge, "Attitudinal Cleavages with in the Soviet Political Leadership," in Beck, et al., *Comparative Communist Leadership*, pp. 202~25.

152) 보·혁갈등에 대해서는 패리스 H. 장, "改革勢力의 登場과 그 政策," 李相禹 編, 「中共의 新進路」(서울: 法文社, 1986) 참조.

그러나 黨 優位 國家인 북한에서 실질적인 정책입안은 당정치국이나 비서국에서 하고 정무원은 具體的인 細部計劃만 세우기 때문에 정부관리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153)</sup>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矛盾을 解決하기 위해 2중관료를 양성하여 적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당·정연합기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만을 極小化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강성산(61)은 함북 출생으로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 모스크바대를 나왔다. 그는 김일성의 이종사촌 동생으로서 84년 1월 총리로 기용되어 합영법(1984.9)을 추진하는 등 3년여 동안 대외경제협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총리 재임기간 동안 소련을 수차례 방문, 기술과 자본, 특히 원자력분야 기술도입에 공헌하였다. 소련통으로 알려진 그는 88년 3월 함북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UNDP에 의한 두만강유역과 나진·선봉지구 특구개발을 통한 경제회복정책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중국과의 관계유지에 공헌하였다. 총리로 기용된 그는 김정일체제하의 대외경제협력 주책임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형묵은 1932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났고,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대, 소련의 우랄공대를 나온 엘리트이다. 1955년 귀국하였을 때는 전후복구 사업을 위해 전국력을 총동원하던 시기였고 전문 경제엘리트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형묵은 당중앙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즉시 채용되었고 이후 고속승진을 거듭하여 1970년 11월 5차

153) 고영환의 증언에 의하면 당국체부와 정무원 외교부와의 갈등이 심하다고 한다. 고영환의 증언. 민족통일연구원 초청 정책세미나(1991.10.10) 「북한의 실상」에서 밝힘.

당대회시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74년에 당정치위원 및 비서로 발탁되었고 이때에 김정일과 인연을 맺었다. 김정일이 1974년에 실시한 「70일전투」를 實務指導함으로써 그의 위상이 높아 졌다.

연형묵은 慎重하면서도 該博한 知識을 가지고 있으며 판단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김일성의 정치적 신임을 배경으로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실시된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연형묵은 당비서로서 1980년 김일성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를 起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중공업통인 연형묵은 10대전망목표 중 곡물과 간석지개간, 직물, 수산물 등을 제외한 6개의 목표를 중공업분야에 두도록 하였다고 한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로 계획된 제3차7개년계획은, 제2차7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10대전망목표」를 延長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 基本目標였다.<sup>154)</sup> 1988년 12월 연형묵이 정무원 총리가 된 것은 직접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김일성이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문제 해결을 통한 김정일체제의 공고화라는 대전략의 일환으로 구상된 것이기 때문에 목표달성 여부가 연형묵의 政治的 生命과 直結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지난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에서 자강도당 책임비서로 밀려났다.

현재까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김정일이 外交分野에서는 외교참모들의 意見에 全적으로 依存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해외방문경험이 부족하고 외교분야에서의 경력이 없기 때문

---

154)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pp. 43~4.



이다. 한편 그는 현재 공식적으로 외국사절들과 사진촬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부친인 김일성의 외교적 경륜 및 카리스마가 필요함과 아울러 김일성의 역할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외교능력 중 가장 중요한 대화능력, 즉 說得力이 不足하기 때문에 對人關係를 忌避하는 대신, 유능한 參謀들을 活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외교분야의 대표적인 엘리트들은 김용순(57, 당국제부장), 이화선(56, 당조직지도부 2과담당부부장), 김영남(67, 외교부장), 강석주(53, 외교부 부부장) 등이다.

김용순은 1991년 5월 북한외교의 代父였던 허담이 사망하고 난 후에 더욱 부상하였다. 그는 1992년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되었고 미국·일본과의 수교문제를 背後에서 지휘하고 있다. 1990년 9월 일본 자민당 가네마루와 「조·일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였고 1992년 1월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캔터 미국무부 정무담당차관과 북·미수교논의를 벌이는 등 북한의 「南方政策」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그는 김일성대와 모스크바대를 나왔고, 외교관의 기본자질인 친절성과 유연성을 겸비하여 향후 그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sup>155)</sup>

이화선은 김일성대와 모스크바대를 졸업하였고 김정일권력의 가장 核心部署인 당조직지도부 2과담당부부장이다. 외교분야의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2과는 김용순, 김영남을 제외한 모든 외교관들의 人事權을 掌握하고 있고 私生活까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성격은 외향적

155) 鄭相龍, “90년대 북한외교의 주역 당국제부장 김용순,” 「北韓」(1991.3), pp. 136~45.

이지 않고 慎重하여 드러나지 않게 김정일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향후 김용순을 이어 당국제부장에 기용될 것으로 전망된다.<sup>156)</sup>

김영남은 1925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났다. 김일성대와 모스크바대를 졸업하였고 1956년 당중앙위 국제사업부 서기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外交業務에만 전념해 온 외교통이다.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외교부장으로서는 유엔가입, 미국·일본과의 수교, IAEA핵사찰 문제 등에 대처해 나가고 있고, 특히 식량난의 해결을 위해 1980~90년대에 강화되기 시작한 東南亞外交의 先鋒將으로서 역할을 다해 태국으로부터 1991년도에 50만톤의 米穀을 수입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sup>157)</sup>

강석주는 1939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다. 강석주는 1991년 9월 17일 북한을 대표해 유엔에서 연설을 하였을 정도로 비중있는 인물이다. 당시 한국측에서는 이상옥 외무장관이 연설을 하였으나 그가 연설을 행한 배경에는 북한이 유엔가입을 그동안 반대해 오다 타의에 의해 가입하게 된 것에 대한 반발로 격을 낮춘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외교부 제1 부부장인 강석주를 등장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강석주의 國際的 位相을 높여 주었고 이것은 김정일의 個人的 配慮일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고영환의 증언에 의하면 강석주는 김정일의 호출에 언제든지 응하기 위해 24시간 待機할 정도로 그에 대한 忠誠心이 높다.<sup>158)</sup> 강석주는 영어에

156) 「世界日報」, 1992. 3. 4.

157) 北韓研究所, 「北韓人名辭典」, p. 752. 그는 지난 9월 30일 뉴욕에서 이례적으로 유엔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핵사찰문제 등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158) 고영환의 증언에 의하면 밤11시에 김정일로부터 외교부로 전화가 오면

능통하고 유엔 및 서방외교에 능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일본과의 수교를 전술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김정일로서는 그를 계속 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경제는 落後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경제에는 익숙해 있으나 資本主義 經濟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엘리트는 부족한 형편이다. 김정일 자신도 말하였듯이 북한의 관료들은 관료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創意的이고 改革的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sup>159)</sup>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달현은 개혁적인 인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근로자」지를 통해 輸出의 重要性을 누구보다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60)</sup> 물론 이것은 그가 김일성의 5촌조카사위이고 김정일의 측근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구유학파로서 세계사적인 변화에서의 활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共存關係의 유지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에 기인한 인민생활수준의 낙후, 경화부족과 외채누증 등을 경제전문가로서 더이상 坐視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험이긴 하지만 그동안 매판자본가라고 비난해 왔던 정주영, 김우중 등 남한의 재벌기업가들을 초청하여 經濟의 活路를 摸索하고 있다.

---

인터폰이나 팩스가 있음에도 슬리퍼를 신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직접 서류를 챙기기 위해 뛰다고 한다. 高英煥, “真相! 北韓의 實勢 金正日·金正一그룹,” p. 385.

159) 최은희·신상욱, 「조국은 저하늘 저멀리(하)」 (서울: Pacific Artist Cooperation, 1988), p. 228.

160) 김달현,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1989.2) 참조.

한편 그는 지난 1992년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남한을 직접 방문하여 산업시찰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현재 정무원 부총리외에도 국가계획 위원장, 무역부장, 조선국제 합영총회사 이사장,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맡는 등 대외경제분야의 실권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外交에도 能通하여 1991년 5월 필리핀을 訪問하여 외교관계를 樹立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향후 김정일시대에는 정무원 총리는 물론 그 이상의 지위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sup>161)</sup> 그러나 그도 2중관료로서 당성우위의 原則主義者임에는 틀림없다. 그외에 김정일의 경제측근들로 당비서국의 박남기(64, 계획), 전병호(68, 중공업), 한성룡(65, 기계금속), 서관희(66, 농업) 등이 있다.

한편 북한체제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전체주의적 통제체제라는 점에서 體制維持의 尖兵役割을 하는 정보·사찰기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물론 북한내에는 김일성의 카리스마 때문에 자발적 복종자들도 있겠지만 정치·사회적 逸脫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監視하고 處罰하는 폭압기구가 있다.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이 그것이다.

최근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내 「특별독재대상구역」에 收容되어 있는 政治犯의 수는 약 15만명이나 된다고 한다.<sup>162)</sup> 그동안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反抗者들에 대한 공안기관의 彈壓은 불가피했을 것이고 따라서 공안기관에 대한 絶對權者의 關心度 역시 지대했을 것이다. 특히 舊蘇聯과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이 대격변을

161) 梁相玩, “北韓경제협력의 창구,” 「北韓」(1992.4), pp. 100~07.

162)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서울: 고려원, 1990), pp. 115~19.

보인 상황에서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社會的 動搖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향후 공안기관의 업무는 더욱 과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관의 대표자는 백학림(사회안전부장)이다.

백학림은 1918년 남만주에서 태어나 김일성과 함께 보천보전투 등 항일유격대에 참가한 혁명1세대이다. 지난 1992년 4월 차수로 승진한 그는 1985년 이래로 사회안전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혁명1세대로서 김정일체제 구축의 最先鋒將이 되고 있다.<sup>163)</sup>

국가보위부는 反黨·反體制 음모자를 索出·檢擧하는 동시에 일반민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변절자와 지지자를 구별해 내는 思想查察 全擔機構이다. 국가보위부는 1973년 5월경 사회안전부에서 독립되어 나왔는데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때와 시기가 비슷하여 김정일의 당권장악을 위한 事前措置의 一環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정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관이므로 그는 최근 공식중에 있는 부장으로 매제인 장성택을 김일성에게 추천했으나 김일성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첫째 장성택이 아직 너무 어리다는 점, 둘째 김정일보다 우월한 능력을 소유한 그가 이것을 계기로 대항세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 족벌체제에 대한 주위의 비판회피 등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김정일이 이 기구를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간략한 신상명세는 <표 3-4>과 같다.

---

163) 北韓研究所, 「北韓人名辭典」, p. 761.

〈표 3-4〉 政府 엘리트

성명	직책	출신지	학력	서열	겸직여부	특징	비고
강성산 (61)	정무원총리, 정치국위원	함북	만경대혁명 학원, 김일성대, 모스크바대	4위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협영법제정, 친러파, 채취공업전문 가	김일성의 이종사촌
김영남 (67)	부총리, 외교부장, 정치국위원	함남	김일성대, 모스크바대	7위		파벌이나 종파 주의에 불간여, 김영주의 후광 으로 출세	김정일의 주연에 참석
김달현 (52)	부총리, 무역부장			14위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중요한 역할에 비해 알려지지 않았음	김일성의 5 촌조카 사위
최영림 (66)	부총리, 금속공업부장, 정치국 후보 위원	강원도	만경대혁명 학원, 김일성대, 모스크바대	16위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풍부한 경제지 식과 정확한 판 단력의 소유자	주석궁의 고급정보를 김정일에게 제공
연형묵 (60)	정치국 후보 위원, 자강도책임 비서 겸 인민 위원장	함북	김일성대 우랄공대	18위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양어머니 최일 화가 김일성을 구해줌, 원만하 고 너그러우며 예리한 판단력 과 합리적인 사 고의 소유자임, 외국어 구사 능 력 뛰어남	김정일이 「70일 전 투」를 지휘 할 때 도와 줌, 영웅칭 호 받게 도 와 줌
백학림 (74)	중앙군사위 위원, 사회 안전부장, 차수	남만주		41위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법안심의위 원회 부위 원장	전형적인 정치 군인	빨치산 출신
양형섭 (69)	최고인민회의 의장	제주	모스크바대	43위			김일성의 고종사촌
강석주 (53)	외교부 제1부부장	평남		당중앙 위후보 위원	최고인민회 의 대의원		
방승운 (60)	당행정부 제1부부장					김일성가문의 대소사관여	김정일이 「삼촌」 「방형」으로 호칭

#### 다. 軍部 엘리트

舊蘇聯軍은 特殊하여 다양한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고 지휘체계 또한 複雜多岐하여 최고통치권자가 一元的으로 통치하지 못했다.<sup>164)</sup> 1991년 쿠데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구소련군은 명령계통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가능하면 政治的 中立을 維持하려 했다. 반면 中國의 軍隊는 舊蘇聯처럼 다민족군이긴 하지만 指揮系統은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다.<sup>165)</sup> 그러나 중국군도 역시 인민의 군대라는 측면에서 盲從主義的이지는 않다. 6·4천안문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가능하면 인민들과 대화를 하려는 의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민군은 이들 군대와는 달리 최우선적으로 수령의 군대이며 다음으로 당의 군대이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그 기반을 항일 빨치산운동에 두고 있으며 항일빨치산은 곧 김일성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빨치산파들은 북한 초기의 정치적 혼란기에 김일성정권 樹立을 위해 決定的 役割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당·정의 요직에 계속 등용되었다.

결국 북한군은 김일성 個人에 대한 忠誠心이 매우 높고, 수령인 김일성의 군대로서 세습체제의 유지와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尖兵役割을 할 뿐만 아니라 당의 武裝力이다.<sup>166)</sup>

---

164) 韓國外國語大學 蘇聯問題研究所 編, 「蘇聯政治過程」(서울: 正音文化社, 1985), pp. 210~11.

165) James Wang,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An Introduction*, 이문규 역, 「현대중국정치론」(서울: 인간사랑, 1988), pp. 179~82.

北韓軍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세습체제 문제에 대해 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김일성 死後에도 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김정일에게도 ‘대를 이어’ 忠誠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군은 전환기가 될 김정일 체제하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대체로 이러한 질문의 배경에는 세습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무력 집단인 軍이 김일성의 死前, 死後에 쿠데타를 통해 체제에 變革을 가져오지 않을까, 또는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지파와 반대파간에 葛藤이 發生할 경우 軍은 어느 편을 들 것인가 하는 疑問이 깔려 있다.

1970년대에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준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군부에 대한 김정일의 指導權 確立問題가 擡頭되었다.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은 1974년부터 3대혁명소조운동을 主導하였고, 1975년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군부대에까지 확산시켜 군내 기층과의 결속을 강화해 나갔다. 군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김일성의 강력한 후원에 의한 官制運動이라는 속성상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론의 논거는 1975년 이후로 每年 軍의 주요 행사 때마다 이 운동을 찬양하고, 김일성과 당중앙(김정일)을 중심으로 굳게 뭉칠 것을 呼訴하는 論文들이 高級 將星들에 의해 발표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에도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에 대한 군의 충성 맹세는 계속 되었는데, 오극렬은 인민군 창군 48주년 기념식에서 주체사

---

166) 한철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계승해나가는 우리인민군대는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2. 4. 22.



상을 강조하고, “... 인민군 장병과 모든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을 더욱 철저히 다져 관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sup>167)</sup>

한편 김일성은 군대의 士氣振作을 위하여 1982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에서 인민무력부를 국가보위부와 같이 정무원 예하로부터 중앙인민위원회 直屬으로 改編하였다. 또한 1985년 4월 13일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대장에서 차수로, 상장인 오극렬, 백학림, 김두남, 이을설, 주도일, 김봉율, 김광진, 이두익 등 8명을 대장으로 승진시켰다. 1969년에 철직당했던 최광을 1988년 인민군 총참모장에 복귀시켰으며, 1990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 후인 12월에 당정치국 후보위원 서열 3위로 부상시켰다. 그러나 김정일의 군부엘리트 중에서 선두그룹은 오진우, 오극렬, 김두남, 이봉원 등이다.

오진우는 1917년 함경북도 북청에서 출생하여 만주 간도지방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후 1933년부터 김일성을 따라 항일빨치산활동을 벌였다. 해방후 그는 人民軍創設에 關與하였고 6·25때는 유격대장으로 參戰하였으며 50년대에는 군단장, 공군참모장을 거쳐 60년대에는 인민군총정치국장, 총참모장을 지냈다. 이것은 김일성이 1968년 「1·21청와대기습사건」 등 일련의 군사모험주의자들을 숙청키 위해 소집한 1969년 군당 제4기 4차회의에서 김일성을 보좌해 김창봉, 허봉학, 최광 등 빨치산동료들을 效率的으로 除去한 功勞를 인정받아 얻어낸 것이다. 그후 그는 1976년에 인민무력부장이 되었고 1985년에 차수, 1992년에 원수가 되는

---

167) FBIS, *Asia and Pasific*, April 28, 1980.

등 권력서열 3위로서 군부의 1인자가 되었다.<sup>168)</sup>

그가 김정일 지지엘리트로 분류되는 이유는 김일성의 노선을 적극 지지하여 군부내에서 父子世襲體制의 構築을 先導해 나갔기 때문이다. 그는 1975년 당 창건 3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뜻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여 당중앙이 제기하는 모든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며 최후까지 관철하고, 당의 혁명적인 지도에 반대되는 어떠한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타협없는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sup>169)</sup>고 말하여 김일성-김정일체제의 유지와 당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맹세했다.

이것을 계기로 군내에서는 당창건 기념일이나 인민군창설 기념일 때 장성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또한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決定的 契機는 1985년 초가을 오진우가 김정일과 酒席에서 오극렬의 징계문제로 언쟁한 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멜 때 김정일이 迅速하게 對處해 生命을 구해준 사건 때문이었다.<sup>170)</sup> 이후로 오진우는 김정일의 적극적인 支持者가 되었고 김정일의 비공식 酒席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정일을 지지하는 軍엘리트들의 간략한 신상명세는 <표 3-5>과 같다.

---

168) 趙基洙, “북한군부의 대부 오진우,” 『北韓』 (1990.8), pp. 82~90.

169) 오진우, “우리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인 당이다,” 『근로자』 (1975.10) 참조.

170) 『世界日報』, 1992. 2. 19.

〈표 3-5〉 軍部 엘리트

성 명	직 책	출신지	학 력	서 열	겸직여부	특 징	비 고
오진우 (76)	정치국상무 위원, 군사 위원회위원, 인민무력부 장, 국방위원 회부위원장, 원수	함 남	소련보병 학교	3위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군부내 김정 일에 대한 실 질적 총책임 자	빨치산출신
최 광 (74)	정치국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군차수	함 북		11위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최근 김정일 과 함께 군 행사 참석이 빈번해짐	빨치산출신
오극렬 (63)	당 노동적위 대부장, 인민군대장	만 주	만경대혁명 학원, 김일성대, 구소련공군 대학	37위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91년 5월 허 담 장례위원 회 위원	오중흡의 아들, 인민무력부장 물망, 김강환, 김두남과 함께 김정일 지지 「군의트로이 카」
김봉률 (81)	인민무력부 부부장, 차수	평 북	레닌그라드 문학대	48위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이을설 (72)	중앙군사위 원, 호위 총국장, 차수	함 남	소련군사 아카데미	49위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빨치산출신
주도일 (76)	중앙군사위 원, 평양지역 사령관, 차수	동만주		50위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빨치산출신
이두익 (71)	중앙군사 위원, 차수	만 주		52위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빨치산출신

〈표 3-5〉 계속

성 명	직 책	출신지	학 력	서 열	겸직여부	특 징	비 고
김두남 (64)	인민군대장	평 북	만경대혁명 학원, 회령군 관학교, 구 소련군사 아카데미	60위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조직지도부 제13과 담당 부장 출신	김정일의 군사 고문
김강환 (62)	중앙군사위원, 당군사부장, 인민군상장	평 양	만경대혁명 학원	63위			
김광진 (74)	인민무력 부 부부장, 남북고위 급회담대 표, 차수	평 남		78위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이봉원 (65)	인민군대 장, 인민 무력부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	함 남	만경대혁명 학원 김일성대	100위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 자격심사 위원회 위원	군인사·조 직사업의 실무책임자	최광에 이어 인민군총 참모장 가능성

#### 4. 派閥發生의 可能性과 限界

위에서 살펴본 대로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권력엘리트 들은 構造的으로 凝集되어 있기 때문에 파벌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김일성이 부자세습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2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당·정·군 모든 부문에 혁명가문출신과 忠誠心이 높은 엘리트들을 대거 登用하고 폭력기구를 통해 철저히 감시함으

로써 일체의 갈등을 배제하는 강압정치를 실시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최고엘리트와 하위엘리트간, 또는 하위엘리트 상호간에 갈등과 분파는 存在하지도 않고 容納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등용되지 못한 소외엘리트들의 존재 자체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처럼 規制力이 表出力을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소외 엘리트들이 집단세력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정·군의 3위일체적 통치구조에 의해 유지되는 북한에서 최고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支配機構에 대한 統制權을 掌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어떤 방법으로든 권력엘리트들을 支持基盤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통치의 근간이 되는 권력엘리트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親·姻戚 登用과 충성심 위주의 간부등용정책을 채택하였고 이에 힘입어 혁명 1.5세대 내지 2세대들을 지지세력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바, 그들을 세분해 보면, 첫째 김일성의 빨치산동지들을 포함한 元老集團, 둘째 당비서국과 유학 또는 해외여행을 통하여 잘 훈련된 50~60대 당·정의 專門官僚들, 셋째 親·姻戚 등이다. 여기에서 核心的인 권력을 행사하는 集團은 김일성-김정일의 친인척 집단인바, 원로집단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고 전문관료집단은 기능적 집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舊蘇聯, 中國과는 달리 북한은 父子世襲을 통해 前任者에 대한 批判의 소지를 事前에 除去하였고 20여년이라는 長期間 동안 각부문에 걸쳐 세습체제에 대한 충성주의자들만을 등용하여 권력기반을 다져 왔다. 그 결과 김정일 권력엘리트들의 응집력은 어떤 사회주의국가의

그것보다도 堅固하기 때문에 김일성 死後 김정일 지배체제가 되더라도  
파벌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집권후 단기적으로는 3년, 중·장기적  
으로는 최소 5년 以上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일 북한에서 派閥  
이 生成된다면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의 친·인척집단과 非親·姻戚 전  
문관료집단간의 갈등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 第Ⅳ章 北韓의 權力엘리트 世代交替와 派閥形成의 潛在性: 計量的 接近

본 장에서는 權力엘리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사회적 속성 (social attributes) 분석을 통하여 北韓의 權力엘리트가 세대교체를 경험하였는가의 여부와 체제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엘리트 집단내 파벌형성의 잠재성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北韓 權力엘리트 개인의 사회적 속성을 판단하는 변수로서 ① 성별 ② 나이 ③ 출생지역 ④ 김일성 혹은 김정일과의 친·인척관계 ⑤ 학력 ⑥ 유학경험 ⑦ 출신대학 ⑧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여부 ⑨ 해외여행경험 ⑩ 직업경험 등의 10가지를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지위(status)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성별이나 나이, 출생지역, 학력, 직업경험 등을 들 수 있으나, 北韓에서는 김일성과의 친·인척관계 여부가 지위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친·인척관계 변수를 추가하였다. 또한 만경대혁명학원은 北韓의 權力엘리트 양성학교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해외여행 경험과 유학경험은 폐쇄된 북한 체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점에서 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의 기준연도는 1970년, 1980년, 1990년을 삼았으며 분석대상 집단은 분석기준시기의 당중앙위원으로 하였다. 이들 집단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北韓이 당우위의 체제이고, 당중앙위원들이 광범위한 껌직을 통하여 행정기구와 군부내에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까닭

으로 이들이 체제내의 권력엘리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추출한 연구대상 인물들의 사회적 속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변수를 중심으로 통계처리함으로써 각 시기의 北韓 권력엘리트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시기별로 분석대상 인물들에 대한 사회적 속성의 빈도(frequency)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각 시기별 중앙위원의 서열변동과 관계있는 사회적 속성 중에서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가를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통하여 밝혀보았다.

北韓 권력엘리트의 사회적 속성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舊蘇聯과 中國의 당중앙위원들의 사회적 속성과 비교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체제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舊蘇聯이나 부분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中國의 권력엘리트 집단의 성향변화를 北韓 권력엘리트의 사회적 속성변화와 비교하는 것은 사회변화와 권력엘리트 집단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北韓 권력엘리트 집단이 갖는 공산국가로서의 일반적인 성격과 특수한 성격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 黨中央委 正委員의 社會的 屬性

### 가. 性比率

당중앙위 정위원의 性比率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각 년대별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의 남녀 비율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여 성	5	6.9	5	4.8	8	7.0
남 성	68	93.2	99	95.2	107	93.0
합 계	73	100.1	104	100.0	115	100.0

주: 미확인 숫자(missing value)는 1970년은 43명, 1980년은 41명, 1990년은 63명임.

중앙위 정위원의 경우는 각 시기별로 차이없이 90%이상이 남성이다.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로서 北韓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엘리트 집단의 경우에는 남녀간의 불평등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sup>171)</sup> 北韓도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였으며<sup>172)</sup> 고용구조를 본다면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sup>17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여

171)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Engels의 가족관에 기초하여, 여성의 남성예의 종속이 사유재산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남녀 평등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장려하였다. Friedrich Engels, "The Origins of the Family, Property and the State," in Karl Marx & Friedrich Engels, *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 1969) 참조.

172) 1946년 7월 30일에 공표된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1조에는 "국가·경제·문화·사회·정치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저작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27.

173) 이은죽, "여성과 가족," 이상우 외, 「北韓概論」(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 332~33.

전히 제한적이다. 비교적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 안팎에 불과하다.<sup>174)</sup> 그러나 중앙위 정위원의 남녀 비율은 이보다 훨씬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北韓社會에서 고위직일수록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각 시기별로 비슷하다.

性比率의 불균형은 中國이나 舊蘇聯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中國의 경우 10全大會(1973)에 당중앙위 정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였으나 11全大會(1977)에는 7%였으며, 12全大會(1982)에는 5%에 불과했다.<sup>175)</sup> 舊蘇聯의 경우에도 1970년부터 1984년에 이르기까지 중앙위 정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미만이다.<sup>176)</sup>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평등을 일차적인 가치로 표방하고 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 특히 권력엘리트 집단내에서의 남성우위의 특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

174) 통일원, 「南北韓 社會·文化 指標」(서울: 통일원, 1991), p. 180.

175) W. Gartke and P. Schier, *China's New Leadership* (London: Macmillan Press, 1985), p. 73.

176) 文首彦, “고르바초프 세대의 등장: 소련지도자들의 배경분석,” 「中蘇研究」, p. 15; 安澤源, “소련정치엘리트의 순환과 충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의 책, p. 83.

〈표 4-2〉 각 년대별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의 연령비율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30 대	1	2.3	1	1.1		
40 대	19	44.2	5	5.6	3	3.2
50 대	18	41.9	51	57.3	6	6.3
60 대	5	11.6	25	28.1	62	65.3
70 대			7	7.9	21	22.1
80 대					3	3.2
합 계	43	100.0	89	100.0	95	100.1

주: 미확인 숫자(missing value)는 1970년은 73명, 1980년은 56명, 1990은 83명임.

#### 나. 年齡構造

정위원의 연령비율을 정리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北韓의 당중앙위 정위원들이 노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北韓의 최고지도층 안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70년에는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80년에는 50대 그리고 90년에는 60대가 핵심적인 연령층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여 준다. 물론 미확인된 인물들이 통계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年少하고 새롭게 부각된 인물들의 경우 정보가 미비하여 미확인집단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확인 인물들의 특징은 각 시기별로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어느 시기에나 年少하고 새로운 인물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北韓의 권력엘리트는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배집단의 고령화 추세는 여타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舊蘇聯에서는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세대교체가 불가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 집권이전까지는 ‘老人政治’(gerontocracy) 라고 할 정도로 지배집단이 고령화되어 있었다.<sup>177)</sup> 그러나 고르바초프 등장 전후의 舊蘇聯과 鄧小平 집권 이후의 中國에서는 최고지도자의 교체에 따라 권력집단이 年少化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中國의 경우에는 文革時期에 일시적으로 젊은 권력엘리트들이 부각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고령의 인물들이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의 평균연령은 1982년의 71세에서 1987년의 58세로 대폭 낮아졌는데,<sup>178)</sup> 이는 鄧小平의 ‘年輕化’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179)</sup> 이러한 경향은 1982년까지는 중앙위 위원들이 고령화되어왔던 것과 대비된다.<sup>180)</sup> 중앙위 위원들의 연령

---

177) 김홍명, “소련 통치엘리트의 충원과정에 관한 고찰,” 김달중 편, 「東歐·蘇聯關係와 改革政治」(서울: 법문사, 1988), p. 87.

178) Hong Young Lee,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Party Technocrats in Social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p. 267.

179) 유세희, “중공 정치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시론,” 「中蘇研究」, p.107.

180) 8차 중앙위(1956~1958)의 평균연령은 56.4세, 9차 중앙위(1969)의 경우는 61.4세, 10차 중앙위(1973)는 62.1세, 11차 중앙위(1977)의 경우는 평균연령이 64.6세로 1982년 중앙위 12차 대회의 평균연령 71세까지를 생

비율은 舊蘇聯의 경우도 비슷하다. 舊蘇聯의 정위원의 연령구조도 1952년에는 평균연령이 55세, 1964년에는 61세, 1982년에는 69세로 점차 상승하다가 1986년에는 64세로 젊어지고 있다.<sup>181)</sup> 따라서 中國과 대비해서 본다면 급격하지는 않으나 舊蘇聯의 경우도 年少化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中國과 舊蘇聯의 중앙위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망 혹은 지나친 고령화에 따른 은퇴에서 비롯된 自然的 要因이라기 보다는 최고지도자의 교체라는 정치적 요인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브레즈네프 시대나 毛澤東 시대에는 北韓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고지도자의 교체가 없는 北韓이 연령구조에서 中國이나 舊蘇聯의 중앙위원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다. 地域的 背景

중앙위 정위원의 출신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전반적으로 함경도 출신과 평안도 출신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주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전체 북한인구에서 함경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2.6%에 불과하다는<sup>182)</sup> 사

---

각한다면 중국의 지배엘리트도 점차 고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James R. Townsend, *Politics in China* (Boston: Little, Brown & Co., 1980), p. 265.

181) 文首彦, “고르바초프 세대의 등장: 소련지도자들의 배경분석,” p. 13.

182) 통일원, 「南北韓 社會·文化 指標」, p. 26.

〈표 4-3〉 각 년대별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의 출신지별 분포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평양시	2	3.0	4	4.7	5	5.3
평안도	13	19.7	18	21.2	23	24.2
함경도	32	48.5	43	50.6	46	48.4
황해도			2	2.4	3	3.2
양강도			1	1.2	1	1.1
자강도					1	1.1
강원도	1	1.5	3	3.5	3	3.2
남한	4	6.1	1	1.2	1	1.1
만주	12	18.2	11	12.9	10	10.5
중국	1	1.5				
소련	1	1.5	2	2.4	2	2.1
합계	66	100.0	85	100.1	95	100.2

주: 미확인 숫자(missing value)는 1970년은 50명, 1980년은 60명, 1990년은 83명임.

실을 고려한다면 北韓의 권력엘리트 집단내에서도 지역적 배경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보면 평양시 출신과 평안도 출신의 중앙위원의 숫자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만주 출신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만주 출신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은 해방 이전 조선의 유민들이 만주지방에 많이 거주하였던 역사적 사실과 유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이 유격활동을 하였던 중심지가 함경도 지방이었으며, 빨치산 세대의 많은 인물들이 함경도 출신이라는 것이 당중앙위 정위원에서 함경도 출신의 비율이 높은 현

상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권력엘리트의 지역적 편중은 中國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9 全大會(1969)에서 毛澤東의 고향인 湖南省 출신이 중앙위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湖南省의 인구비례(전체의 6%)에 비해서 과다한 비율을 점하고 있었고, 林彪의 고향인 湖北省 출신도 17%에 달했다. 그러나 林彪의 숙청, 華國鋒(山西省)의 승계와 鄧小平(四川省)의 복권등 정치적 리더쉽의 교체와 중앙위 위원들의 지역적 배경의 비율 변화가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인다.<sup>183)</sup> 舊蘇聯의 경우에는 집권자의 변화나 시기적 변화에 따라서 지역적 편차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sup>184)</sup>

北韓의 당중앙위 정위원의 지역적 배경은, 中國과 대비하여 볼 때, 시기별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최고지도자 혹은 실력자의 교체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中國과 北韓의 경우는 舊蘇聯에 비해서 지역적 편차가 높다. 北韓이나 中國의 지역적 편차는 지도자의 출신지나 그의 주요 활동무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1차적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동양적 가치관이 현재의 엘리트 구성에서도 중요한 조직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83) 최의철, “중공지도층의 파벌정치,” 『中蘇研究』, pp. 15~7.

184) 文首彦, “고르바초프 시대의 등장: 소련지도자의 배경분석,” pp. 16~7.

## 라. 親·姻戚關係

중앙위원회 정위원에서 김일성·김정일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정리한 결과는 <표 4-4>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앙위원회 정위원에서 친·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비율이 7%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비율도 시기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의 경우는 절대 숫자가 늘어났으며 北韓社會의 폐쇄성을 감안한다면 미확인된 사람들 중에서도 친·인척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北韓에서 친·인척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히기 위하여 전체 정위원 중에서 서열 30위 이내의 핵심엘리트 중에서 친·인척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4-5>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970년의 경우 9명 중에서 5명, 1980년은 9명 중에 5명, 1990년의 경우는 12명 중의 5명이 서열 30위내에 포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친·인척은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고지도자와의 친·인척관계가 권력엘리트 집단에 편입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은 北韓의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사

<표 4-4> 각 년대별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의 金日成·金正日과 親·姻戚關係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친·인척	9	7.8	9	6.2	12	6.7

주: 미확인 숫자(missing value)는 1970년은 107명, 1980년은 136명, 1990년은 166명임.



〈표 4-5〉 각 년대별 서열 30위 내에 있는 金日成 - 金正日의 親·姻戚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친·인척	5/9	55.6	5/9	55.6	5/12	41.7

주: 서열 30위 이내 친·인척의 인원수 / 중앙위원인 친·인척의 인원수

회주의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통하여 개인이 아닌 家系가 함께 우상화되고 혁명적 혈통이 강조됨에 따라<sup>185)</sup> 北韓에서는 혁명가와의 혈연관계가 지배집단에 편입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中國의 최근 소위 ‘太子黨’이라고 하는 고위간부의 2세들의 득세와 비견될 수 있다.<sup>186)</sup> 그러나 毛澤東 지배하의 中國이나 舊蘇聯의 경우 혈연관계가 권력엘리트집단에 귀속되는 주요 기준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부각된 北韓의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마. 學歷

중앙위원회 정위원들의 학력분포는 〈표 4-6〉와 같다. 학력의 경우는 다른 변수에 비해서 확인이 안된 인물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전체 위

185) 이미 1960년에 김일성은 “혁명투사들의 가정은 사상에 있어 우수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저작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86.

186) 유세희, “중국 정치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시론,” pp. 129~31.

〈표 4-6〉 각 년대별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의 學歷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민학교졸	1	3.9	1	2.2	1	1.7
대학 중퇴						
대학 졸	24	92.3	44	97.8	57	98.3
대학원이상	1	3.8				
합 계	26	100.0	45	100.0	58	100.0

주: 미확인 숫자(missing value)는 1970년은 90명, 1980년은 100명, 1990년은 120명임.

원에서 확인된 비율이 1970년은 22.4%, 1980년은 31.0%, 1990년은 32.5%). 일반적으로 고학력자에 비해서 저학력자들은 학력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졸자가 90%를 상회한다는 결과는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기 별로 미확인 숫자의 속성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에 근소하지만 대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권력엘리트 집단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은 전문화 경향과 연결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鄧小平 집권 이후에 中國에서 채택된 새로운 간부정책에 ‘知識化’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1全大會(1977)에 당중앙위 정위원에서 대학교육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5.7%였던 것이, 12全大會(1982)에서는 55.4%로, 13全大會(1987)에서는 73.3%로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다.<sup>187)</sup> 이와 같은 정책은 80년대 들어 지방의 간부에까지 파급

187) Li Cheng and Lynn White, "The Thir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ian Survey*, vol. 28, no. 4 (1988), p. 379.

되어 12全大會 이후 省級 간부들의 대학이상 학력소지자 비율이 43%로서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비율이 2배 이상이나 된다.<sup>188)</sup> 舊蘇聯의 경우는 후보위원까지 포함된 숫자이기는 하지만 중앙위원 전체에서 대학교육 경험자의 비율이 1971년의 54.8%, 1976년의 60.0%, 1983년 70.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sup>189)</sup> 따라서 中國과 舊蘇聯의 경우는 권력엘리트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인물들의 비율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 경험자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고등교육 수혜자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증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집권자의 교체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와 연관이 깊다고 보여진다.

#### 바. 留學地域

중앙위 정위원의 해외유학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舊蘇聯에서의 유학경험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는 北韓이 中國共産黨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왔으며 지리적으로도 中國과 가깝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인문·사회과학분야보다는 자연과학, 특히 기술분야의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188) 유세희, “중공 정치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시론,” p. 110.

189) 安澤源, “소련 정치엘리트의 순환과 충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p. 80.

〈표 4-7〉 각 년대별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의 海外留學地域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소련	27	79.4	35	74.5	40	70.2
중국	1	2.9	2	4.3	3	5.3
일본	5	14.7	7	14.9	8	14.0
동구	1	2.9	3	6.4	5	8.8
기타					1	1.8
합계	34	99.9	47	100.1	57	100.1

주: 1) 미확인 숫자(missing value)는 1970년은 85명, 1980년은 102명, 1990년은 126명임.

2) 한사람이 2번 이상 유학한 경우도 유학지별로 단순히 누적하였음.

3) 확인 가능한 사람 중 2회 유학자는 1970년 3명, 1980년 4명, 1990년 5명임.

앞서 있는 舊蘇聯으로 유학이 장려된 결과 舊蘇聯으로의 유학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日本에서의 유학경험이 높은 것은 해방 이전의 교육경험이라고 판단된다. 시기별로 보면 미미하기는 하지만 舊蘇聯 유학생의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東歐 유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 出身大學

당중앙위 정위원의 출신대학을 정리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조사 결과 김일성대학과 김책공업대학 출신만이 확인되었는데 미확인 인물의

〈표 4-8〉 각 년대별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의 出身大學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김일성대	5	100.0	18	90.0	27	90.0
김책공대			2	10.0	3	10.0

주: 미확인 숫자(missing value)는 1970년은 111명, 1980년은 125명, 1990년은 148명임.

수가 지나치게 많은 까닭으로 통계적 신뢰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별로 김일성대학 출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김책공대 출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北韓에서 김일성대학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중을 감안한다면 소수의 숫자이기는 하지만 권력엘리트에 김책공대 출신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北韓에서도 1970년대 이후 점차로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할 수 있다.

#### 아. 만경대혁명학원 出身

당중앙위 정위원들의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4-9〉에 정리되어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革命遺子女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 교육기관으로 혈통을 중요시하는 北韓에서 정치적 비중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北韓의 부부장급 이상의 인물들 중에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밝혀진 비율이 1970년에 3.0%, 1980년에 8.0%, 1990년의

〈표 4-9〉 각 년대별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의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출신	7	6.0	21	14.5	23	12.9

주: 미확인 숫자(missing value)는 1970년은 109명, 1980년은 124명, 1990년은 155명임.

3.1%이다. 이에 비해서 당중앙위 정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 상대적으로 지배적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들어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세는 만경대혁명학원이 1948년에 설립되었으며 김정일의 모교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자. 海外經驗

중앙위 정위원들의 해외경험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0〉와 같다. 〈표 4-10〉는 미확인을 포함한 전체 숫자를 기준으로 해외방문 횟수의 백분율을 계산한 것이다. 미확인 변수를 해외경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위원의 경우는 거의 반 이상이 해외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90)</sup> 또한 시기별로 해외경험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횟수

190) 앞의 다른 사회적 속성을 조사한 것과는 달리 해외경험 횟수에 있어서 미확인 변수(missing variables)를 해외경험이 없는 경우로 계산한 것은 북

〈표 4-10〉 각 년대별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의 해외경험 횟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1~2회	32	27.6	42	29.0	34	19.1
3~6회	17	14.7	18	12.4	34	19.1
7~9회	4	3.5	14	9.7	38	21.4
10회이상					2	1.1

주: 1) 미확인 숫자(missing value)는 1970년은 63명, 1980년은 71명, 1990년은 70명임.

2) 해외경험은 방문의 목적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北韓이외의 국가를 방문한 횟수를 합산한 것임.

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해외방문 경험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문횟수 자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상대적으로 北韓에 대한 정보 획득의 통로가 넓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1970년대에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방문한 北韓인물들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반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외 경험자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경험을 한 사람과 그 중에서 빈도가 많은 사람이 北韓에서 중앙위원회 정위원이라는 주요 지위에 오르고 있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北韓에서 해외경험의 증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北韓이

---

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나 해외경험을 한 인물들은 대부분 외부 세계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다른 사회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유출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北韓사람들이 北韓 이외의 사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해외방문자의 이야기나 北韓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의 접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경험자의 증가와 이들의 고위직으로의 진출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이 北韓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차. 主要 前職

중앙위 정위원들의 前職은 <표 4-11>과 같다. 전직을 당, 정권기관, 대외기관, 군부, 각종 사회단체로 대분류하였으며<sup>191)</sup> 前職이 많은 경우 가장

<표 4-11> 각 연대별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의 主要 前職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인원수 (명)	백분위 (%)
당관계출신	23	37.7	33	31.1	42	29.8
정권기관출신	21	34.4	49	46.2	59	41.8
최고인민위	4	6.6	4	3.8	9	6.4
군 부	13	21.3	20	18.9	31	22.0
합 계	61	100.0	106	100.0	141	100.0

주: 미확인 숫자(missing value)는 1970년은 55명, 1980년은 39명, 1990년은 37명임.

191) 당에는 정치국, 서기국, 당산하기관 등이 포함되며, 정권기관에는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하위원회와 산하기관 그리고 정무원 등이 포함된다.



오랜 기간 재직하였던 것을 주요 전직으로 간주하였다. 시기별로 비교하면 당료 출신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정권기관 출신들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에서도 부분적으로 전문관료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90년에 들어서 군 출신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군부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에 잠재적인 위협세력이 되는 군부를 무마하기 위하여 군부 출신들을 우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권력엘리트의 직업경력의 변화여부는 그들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中國의 경우 鄧小平 집권후에 중점을 둔 간부정책의 하나가 ‘專門化’이다. 정치국원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11全大會(1977), 12全大會(1982), 13全大會(1987)에서 당 출신 비율은 31%에서 21%, 17%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부 출신은 27%, 50%, 72%로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군 출신은 31%에서 21% 그리고 11%로 감소하고 있으며,<sup>192)</sup> 당 중앙위원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全大會(1977)에서 당료 출신은 48.8%였으나 12全大會(1982)에서는 47.6%로 그리고 1985년 현재는 37.5%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출신은 같은 기간에 17.4%에서 30.4%, 39.3%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 출신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1.9%, 16.7%, 16.0%를 차지함으로써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192) Cheng and White, “The Thir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 383.

있다.<sup>193)</sup> 舊蘇聯의 경우 中國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1971년과 1976년 그리고 1986년을 기준으로 하면 당 출신이 각각 40.0%, 42.2%, 43.7%이며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정부 출신이 32.0%, 32.0%, 30.2%이며, 군 출신은 8.0%, 7.0%, 8.1%로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sup>194)</sup> 舊蘇聯 중앙위 위원들의 경력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외교관이나 예술가, 학자와 노동자 등 주요 직업별로 일정 비율이 할당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中國의 경우 중앙위원의 직업경력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北韓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 반면 舊蘇聯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社會的 屬性의 特徵: 中國 및 舊蘇聯과의 差異點

지금까지 北韓 당중앙위 정위원의 사회적 속성 변화추세를 10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료의 제약으로 개별적인 변수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10년단위로 보았을 때 일정한 추세는 파악할 수 있었다. 앞 절의 분석을 토대로 北韓의 권력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당중앙위 정위원의 사회적 속

193) 유세희, “중공정치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시론,” p. 109.

194) Jerry Hough and Merle F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p. 457; 文首彦, “고르바초프 세대의 등장: 소련지도자들의 배경분석,” p. 16; Richard D. Little, *Governing the Soviet Union* (New York: Longman, 1989), p. 102.

성의 특징과 그 변화추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앙위 정위원을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보았을 때, 집단의 성격변화가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시기별로 변화가 두드러지는 사회적 속성은 연령인데, 시기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집단의 구성원이 뚜렷한 교체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性比나 출신지역, 학력 등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유학경험, 해외경험,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여부, 출신대학과 주요 전직 등은 약간의 변화만 보일 뿐이다. 이러한 특성은 지난 20년간에 걸쳐 北韓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엘리트 집단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과 유지하고 있는 체제도 뚜렷한 변화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北韓 권력엘리트 집단에서는 歸屬的地位(ascribed status)가 중요한 조직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서 본다면 남성, 함경도(혹은 평안도), 인척관계, 만경대혁명학원 경험 등의 사회적 속성이 정위원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조직원리가 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개인의 成就的地位(achieved status)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입학자격이 혁명가족이라는 혈연적 관계로 제한받는다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집단은 대체적으로 강력한 통합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집단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갖는 기득권에 더욱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집단적 특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층원과정도 여전히 일차적인

인간관계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개혁적인 성향을 띠기가 어려우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北韓의 권력엘리트의 사회적 속성을 통해서 北韓이 강조하는 기본적 가치가 현실과 일치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46년부터 완벽한 여성해방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이 여전하며, 地域主義가 잔존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특성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면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지양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北韓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등과 같은 가치는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일정한 변화추세를 보여주는 사회적 속성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요 전직, 해외경험, 유학 등의 변수이다. 정권기관 출신들이 정위원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경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미하기는 하지만 東歐圈의 유학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엘리트 집단의 전문화를 유발할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체제변혁을 겪고 있는 中國과 舊蘇聯의 권력엘리트 집단과 비교하여 본다면 北韓의 권력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중앙위정위원의 특성은 北韓의 사회변동을 전망하는데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北韓과 비교하여 中國과 舊蘇聯은 각각 鄧小平의 집권과 고르바초프의 집권 이래로 중앙위원의 집단적 성격이 뚜렷하게 변화였다. 中國은

‘年輕化’, ‘知識化’, ‘專門化’의 新幹部政策에 맞추어서 커다란 변화를 보였으며, 舊蘇聯도 특히 연령구조나 학력과 같은 부분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교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毛澤東의 사망과 四人幫 및 華國鋒의 몰락에 이은 鄧小平의 執權과 브레즈네프의 사망과 체르넨코와 안드로포프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체제의 핵심적 권력엘리트의 성격을 변화시켰다고 생각된다.

北韓의 경우는 김일성이 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엘리트의 성격 변화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권력엘리트의 성격변화는 최고지도자의 교체에서 일차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연령의 저하나 고등교육을 받은 인물들의 증대추세, 그리고 中國의 경우와 같이 당 및 군부 출신의 비율이 감소되는 반면 정부기관 출신이 증가하는 추세는 체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념지향적인 인물보다 전문적 기술이나 학식을 가졌으며 젊고 개혁지향적인 인물들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中國이나 舊蘇聯에서는 체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北韓 중앙위원의 속성변화에 있어서 특이한 하나의 현상은 中國이나 舊蘇聯에 비해 군부 출신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中國에서는 변혁기에 군부역할이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논의속에서도 전시대에 비해서 군부 출신의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舊蘇聯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권력엘리트에서 군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두가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앞으로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을 위해서 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재적 경쟁

세력이 될 수 있는 군부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둘째로 군부의 입지가 강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체제변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up>195)</sup>

권력엘리트의 성격변화라는 차원에서는 北韓이 中國 및 舊蘇聯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몇가지 측면에서는 舊蘇聯 권력엘리트 집단과 비교할 때 北韓과 中國의 권력엘리트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도 있다. 예를 들어 혈연관계의 강조, 지역주의적 경향 등은 北韓과 中國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舊蘇聯의 경우는 권력엘리트 집단내에서 지연이나 혈연관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동양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관계를 보다 중요시하고 家父長的 질서를 존중하는 동양사회의 문화적 환경이 사회주의화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舊蘇聯은 공산화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교체를 여러차례 경험하였기 때문에 엘리트의 충원기제(mechanism)가 구조화됨으로써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요소가 비교적 경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舊蘇聯이 聯邦共和國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비록 사회주의 국가로서 전체주

---

195) 군부가 반드시 보수세력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제3세계의 군부는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후 급격한 체제변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우 남북간의 평화정착이 체제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수용이 북한체제의 변혁과 연관되어 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군부는 보다 보수적일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의적 성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국가들에 비해 舊蘇聯은 권력분산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 지방정부나 지방당 차원에서 개혁지향적인 정책실험이 가능하였으며, 이들이 중앙정부에 진출함으로써 전체적인 체제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진다.<sup>196)</sup>

### 3. 上昇 權力엘리트의 特性

지금까지 北韓의 권력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당중앙위 정위원들의 사회적 속성의 시대별 변화과정을 분석하였고 이들이 舊蘇聯과 中國의 경우와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살펴보았다. 北韓엘리트들의 시기별 사회적 속성의 변화도 北韓 정치체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北韓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력엘리트들이 아닌 새롭게 부상하는 권력엘리트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中國과 舊蘇聯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체제변혁과 권력엘리트 집단의 성격변화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北韓의 경우는 舊蘇聯이나 中國에 비해서 권력엘리트 집단의 변화가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새롭게 부상하는 집단이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지도자의 교체와 같은 결정적인 변수가 없

---

196) 1986년의 소련의 중앙위 위원들을 보면 정부 출신은 중앙정부 출신이 25.1%로 지방정부 출신 5.2%보다 많지만, 당 출신의 경우 중앙당 출신이 13.7%인데 반해 각 공화국과 지역의 당 출신이 30.0%나 된다. Little, *Governing the Soviet Union*, p. 102.

다고 하더라도 北韓社會의 지배집단의 성격변화와 앞으로 지향될 정책 방향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20년에 걸쳐서 꾸준히 서열 상승이동을 한 사람들과 새롭게 정위원이 됨으로써 北韓의 권력엘리트에 편입된 사람들의 사회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당중앙위 정위원 중에서 상승이동을 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분석기준 시점인 1970년, 1980년, 1990년 모두 정위원이었으면서 전 시기에 비해 서열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
- ② 1980년에 처음 중앙위 정위원이 되었으면서 1990년의 서열이 전시기 보다 상승한 경우
- ③ 1990년에 새롭게 정위원이 된 경우

이들 세 집단을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속성들과 교차분석하여 볼 경우에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권력엘리트 집단의 성격변화가 보다 명확해지리라고 보여진다.

#### 가. 地域的 背景

상승 엘리트들의 지역배경을 교차시켜 본 결과는 <표 4-12>과 같다. 北韓 엘리트들이 지위상승을 하는데도 함경도 출신이라는 지역적 배경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47.8%). 이것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분상승을 한 사람이나(50.0%) 90년대 새롭게 정위원이 됨으로써 지배집단에 편입된 사람들(50.0%)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표 4-12〉 上界 권력엘리트의 출신지역

빈도(명) 횡비율(%) 종비율(%)	평양	평안	함경	황해	양강	자강	강원	南韓	만주	蘇聯	합계
70년대 이후 상승인물	1	6	10				1		2		20
	5.0	30.0	50.0				5.0		10.0		100.0
	25.0	30.0	30.3				50.0				29.0
80년대 이후 상승인물		6	9	2					3	1	21
		28.6	42.9	9.5					14.3	4.8	100.1
		30.0	27.3	66.7							30.4
90년대 등장 한 인물	3	8	14	1		1	1				28
	10.7	28.6	50.0	3.6		3.6	3.6				100.1
	75.0	40.0	42.4	33.3		100	50.0				40.6
합 계	4	20	33	3		1	2		5	1	69
	5.8	30.0	47.8	4.4		1.5	2.9		7.3	1.5	100.0

주: 미확인 196명

상승 권력엘리트 전체의 비율과 중앙위원 중에서 함경도 출신의 비율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편차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쉽게 변화되기 어려우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 나. 親·姻戚關係

김일성 중심의 北韓體制에서 김일성일가와 친·인척관계를 갖는 것이 승엘리트 집단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4-13〉은 친·인척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상승 권력엘리트들에서 차지하는 정

〈표 4-13〉 상승 권력엘리트와 친·인척관계

	1970년이후 1990년까지		1980년이후 1990년까지		1990년에 새로
	지속된인물 <sup>1)</sup>	상승한인물 <sup>2)</sup>	지속된인물 <sup>3)</sup>	상승한인물 <sup>4)</sup>	등장한 인물
전 체	48명	27명	60명	49명	65명
친·인척	8명	6명	1명	1명	3명

- 주: 1) 1970년에 정위원이었으면서 1990년까지 정위원의 지위를 유지한 인물  
 2) 1970년에서 1990년까지 정위원으로서 지위가 상승한 인물  
 3) 1980년에 정위원이 처음 되었고 1990년까지 지위를 유지한 인물  
 4) 1980년에 정위원이 되었고 1990년에 지위가 상승한 인물

도를 정리한 것이다. 1970년에서 1990년까지 계속 중앙위 정위원으로 있었던 총인원은 48명이며 이 중에서 지위가 상승한 인물은 27명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친·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인 8명 중 6명의 지위상승이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1990년에 새롭게 중앙위원이 된 총 65명 중에서도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3명이나 된다. 그러므로 北韓에서 김일성의 친·인척은 지배집단에서 확실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다. 學歷

꾸준히 지위상승을 하는 권력엘리트나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엘리트들의 학력분포는 다음의 〈표 4-14〉에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미확인 숫

〈표 4-14〉 上昇 권력엘리트들의 학력

빈 도(명) 횡비율(%) 종비율(%)	인민학교졸	대학교졸	합 계
70년대 이후 상승인물	1	11	12
	8.3	91.7	100.0
	100.0	24.4	26.1
80년대 이후 상승인물		16	16
		100.0	100.0
		35.6	34.8
90년대 등장한 인물		18	18
		100.0	100.0
		40.0	39.1
합 계	1	45	46
	2.8	97.8	100.0

주: 미확인 219명

자가 많기는 하지만 80년 이후에 등장하여 지위상승이 이루어졌거나, 9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권력엘리트들 사이에서의 추세를 본다면 앞으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만이 北韓에서도 권력엘리트로 성장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라. 留學地域

舊蘇聯에 유학한 경험이 지위상승을 하거나 새롭게 권력엘리트로 부상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앞서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지만 새로운 세대의 권력엘리트일수록 舊蘇聯 편중이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

〈표 4-15〉 상승 권력엘리트의 유학지역

빈 도(명) 횡비율(%) 종비율(%)	불명	蘇聯	中國	日本	東歐	기타	합계
70년대 이후 상승인물	16	10		1			27
	59.3	37.0		3.3			99.6
	15.7	34.5		20.0			19.2
80년대 이후 상승인물	36	10		2	1		49
	73.5	20.4		4.1	2.0		100.0
	35.3	34.5		40.0	33.3		34.8
90년대 등장한인물	50	9	1	2	2	1	65
	76.9	13.9	1.5	3.1	3.1	1.5	100.0
	49.0	31.0	100.	40.0	66.7	100	46.1
합 계	102	29	1	5	3	1	141
	72.3	20.6	0.7	3.6	2.1	0.7	100.0

주: 미확인 124명

다. 또한 90년대에 처음 정위원이 된 권력엘리트 가운데 東歐地域에서 유학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은 東歐의 변혁이 주로 지배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마. 만경대혁명학원 出身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이 北韓 권력엘리트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상승 권력엘리트들을 보면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은 대부분 지위상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까지 지속되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표 4-16〉 上昇 권력엘리트 중의 만경대 출신

	1970년이후 1990년까지		1980년이후 1990년까지		1990년에 새로 등장한인물
	지속된 인물	상승한 인물	지속된 인물	상승한 인물	
정위원	48	27	60	49	65
만경대	6	5	10	9	7

#### 바. 海外經驗

해외경험을 통하여 北韓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北韓의 개혁과 개방에 해외경험을 가진 권력엘리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경험이 있느냐의 여부와 그 빈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北韓의 권력엘리트들의 전체적인 성격과 이들이 추진할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보여진다. 다음의 〈표 4-17〉은 해외경험이 많은 것이 권력엘리트들의 신분상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70년부터 존재하였던 권력엘리트들보다 새로운 세대의 권력엘리트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北韓에서도 해외경험자가 보다 높은 지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들이 추진할 정책도 상대적으로 개방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7〉 上界 권력엘리트의 해외경험

빈 도(명) 횡비율(%) 종비율(%)	불 명	1~2회	3~6회	7~9회	10회이상	합 계
70년대 이후 상승인물	6	4	8	9		27
	22.2	14.8	29.6	33.3		99.3
	10.5	14.8	33.3	29.0		19.2
80년대 이후 상승인물	24	11	8	6		49
	49.0	22.5	16.3	12.2		100.0
	42.1	40.7	33.3	19.4		34.8
90년대 등장한 인물	27	12	8	16	2	65
	41.5	18.5	12.3	24.6	3.1	100.0
	47.4	44.4	33.3	51.6	100.0	46.1
합 계	57	27	24	31	2	141
	40.4	19.1	17.0	22.0	1.4	100.0

주: 미확인 124명

#### 사. 主要 前職

앞에서 권력엘리트들의 특성비교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당에 비해 정권기관 출신들이 당중앙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상승 권력엘리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특히 1970년대부터 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지위상승을 한 사람들은 당 출신 비율이 여전히 높은 반면, 80년대와 90년대에 등장한 인물들의 경우는 점차로 정부 출신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물론 北韓의 경우 검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표 4-18〉 上昇 권력엘리트의 주요 전직

빈 도(명) 횡비율(%) 종비율(%)	당	정권기관	최고회의	군	합 계
70년대 이후 상승인물	9	8	3	4	24
	37.5	33.3	12.5	16.7	100.0
	26.5	17.0	75.0	17.4	22.2
80년대 이후 상승인물	14	17		3	34
	41.2	50.0		8.8	100.0
	41.2	36.2		13.0	31.5
90년대 등장한 인물	11	22	1	16	50
	22.0	44.0	2.0	32.0	100.0
	32.4	46.8	25.0	69.6	46.3
합 계	34	47	4	23	108
	31.5	43.5	3.7	21.3	100.0

주: 미확인 157명

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점차로 이념보다 전문성이 중시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sup>197)</sup> 비록 이러한 추세가 北韓社會에서 이념분야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뒷받침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실리를 중요시하는 테크노크라트가 좀 더 부상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197)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主要 前職의 경우는 분석대상자의 종사기간을 중심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판단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현재 획득한 가능한 자료에서 해당 분석대상자의 前職이 정확히 언급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각 시기를 통해 동일한 정도로 발생가능하다는 점에서 추세의 비교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할 수 있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8> 참조).

#### 4. 北韓의 權力엘리트 變化 可能性

1970년부터 1990년까지 北韓 權力엘리트의 기본적인 사회적 속성을 변하지 않는 측면과 변화하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비교적 변하지 않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 본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위직일 경우에 이러한 불균형은 보다 심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배경에서는 인구비례로 보아 함경도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30년 동안 별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중앙위 정위원과 같은 지배적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나타낸다. 셋째, 연령구조가 점차 고령화되어 간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1970년대부터 北韓 權力엘리트 집단은 이미 大卒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학력이 우선시되는 추세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北韓社會에서 권력엘리트가 되거나 엘리트집단내에서도 상위직을 점하는 데에는 김일성종합대학출신과 김일성가족과의 친·인척관계,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그 추세가 완만하기는 하지만 북한 권력엘리트의 속성 중 변화하는 요인으로서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舊蘇聯 유학이 권력엘리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이었지만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東歐地域 유학 출신이 상대적으로 늘



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해외여행경험이 北韓 권력엘리트 집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 현재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방문 빈도가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北韓 권력엘리트의 주요 前職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 권력엘리트들에게 있어서의 당 출신 비율은 근소하지만 감소하는 추세이며 반대로 정부기관과 군 출신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北韓 권력엘리트의 사회적 속성의 특징은 다음의 몇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를 주장하면서도 北韓에서도 性, 地域, 學閥, 姻·戚關係 등 귀속적 지위가 권력엘리트 집단구성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귀속적 지위로 연결된 집단은 일반적으로 강한 응집력을 띠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北韓의 권력엘리트는 기존체제의 고수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해외경험자의 증가와 정권기관 출신의 증가는 앞으로 北韓의 지배집단이 현실주의적이고 융통성있는 성격을 띄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北韓體制가 미약하지만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리라고 전망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것이다.

셋째, 앞의 두가지 특성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北韓의 권력엘리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귀속주의적 특성들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권력엘리트 집단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실주의적이고 개혁지향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기존의 권력엘리트의 구조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지위상승이 제한되거나 소외된다면 이들은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요인을 종합해 볼 때 北韓 권력엘리트집단내에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北韓에서도 파벌의 형성된다면 주로 귀속적 지위가 특징적인 김일성·김정일의 친·인척 집단과 해외관련 및 전문관료집단간의 갈등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中國과 舊蘇聯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北韓의 권력엘리트 집단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승 권력엘리트의 성격에서 보여지듯이 권력엘리트 집단의 성격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점진적 개혁의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 第 V 章 結 論

지금까지 北韓 權力엘리트의 特性을 派閥主義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파벌의 존재와 그에 기인한 대안적 路線의 葛藤이 體制變化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을 때 북한체제에서 권력엘리트집단내 파벌형성을 抑制하는 요인과 促進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1. 派閥形成을 抑制하는 要因

첫째, 북한에서는 中國이나 舊蘇聯에서 나타났던 혁명1세대의 死滅과 권력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북한 권력엘리트집단내의 파벌형성을 抑制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이후 지금까지 한 지도자가 長期執權을 했다는 사실이 북한체제에 변화가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지도 모른다.

둘째, 북한에서는 權力承繼가 長子에게 世襲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난 20년 동안의 長期間에 걸쳐 승계준비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中國이나 舊蘇聯에서와 같은 전임자에 대한 격하운동이나 대안적 노선을 혁명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현재의 권력엘리트 구조는 이미 김정일 후계체제로 鞏固化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성 死後에도 엘리트집단내에 파벌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소련에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 나타난 多元主義

나 中國에서 毛澤東의 대립통일의 원칙과 같은 競爭의 思想이 병존할 수 있는 토양이 북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유일사상, 유일체제, 유일노선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숙청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경쟁적 파벌이나 대안적 노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사 다원주의나 경쟁적 노선이 구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唯一體制下에서는 아직은 抑壓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에서도 專門官僚의 수가 漸增하는 등 권력엘리트의 특성에 약간의 變化가 있으나 中國이나 舊蘇聯에 비해서는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微弱하다는 사실이다.

## 2. 派閥形成을 促進하는 要因

첫째, 고령화된 김일성이 곧 死亡하게 된다는 사실은 中國이나 舊蘇聯에서 경험했던 혁명1세대 최고지도자의 사망이 체제변화에 미친 영향과 유사한 경향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해외유학을 했거나 해외경험을 한 전문관료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나 대외적 고립을 해결하는 대책을 둘러싸고 代案的 政策을 선호하는 권력엘리트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러한 세력이 현재는 억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불만 증대에 기인한 社會的 動搖가 발생하거나 외부의 압력 등이 있을 때는 표면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셋째, 북한 권력엘리트의 구성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핵심측근과 소의

된 집단이 뚜렷이 구분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권력엘리트는 빨치산파를 중심으로 하는 원로집단, 전문관료집단, 김일성의 친·인척 등 3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원로집단은 象徵的 存在라고 할 수 있으며, 친·인척 집단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측근으로서 實勢를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며, 전문관료는 技能的 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經濟問題와 外交的 孤立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문관료의 역할이 증대할 경우 친·인척집단과 비친·인척 집단간에 派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3. 北韓의 權力엘리트 特性이 北韓體制 變化에 미치는 影響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북한사회에서는 파벌이 형성될 수 있는 미약한 토대가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파벌의 발달을 억제하는 요인이 더 강력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에서는 中國이나 舊蘇聯에서와 같은 競爭的 派閥主義나 代案的 路線의 발달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유일체제 지도부의 매우 신중하고 의도적인 정책에 의해서 점진적이고 순응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는 中國이나 舊蘇聯과 달리 파벌주의 변수가 아닌 유일체제의 적극적인 노선변화에 의한 체제변화의 가능성은 없는가? 논리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혁을 시도하다가 붕괴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 때문에 북한은 당분간 체제유지를 위해서 급속한 체제개혁은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研究報告書 92-15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2년 12월 25일

發行日 1992년 12월 28일

---